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아홉 번째 시리즈

진로의 길에서 나를 발견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아홉 번째 시리즈

진로의 길에서 나를 발견한다

C O N T E N T S

추천사

- 학생부종합전형, 그 아홉 번째 이야기 4
김문석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01. 들어가며

-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8
권오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02. 학교 수업과 진로 탐색

고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그림 이해하기 26
김진석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수업시간에 발견하는 나의 진로 적성과 흥미

- └ 1학년 공통과목 편 42
서기남 봉담고등학교 교사
- └ 2, 3학년 일반선택, 진로선택과목 편 57
양민욱 경기성남고등학교 교사

- (선생님들께 공유하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는 수업 사례 72
김태진 새솔고등학교 교사



03. 진로진학을 위한 소통

책 속에서 내가 가야 할 진로를 찾아본다

- └ 독서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방법 88
박정준 서울오산고등학교 교사

교내 활동을 통해 진로의 문을 두드린다

- └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방법 101
정무웅 송곡고등학교 교사

나에게 맞는 전공·학과를 탐색하는 방법들

- 이순남 신목고등학교 교사 123

04. 대학 교수님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진로 탐색을 위한 전공체험 활동

- └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138
임동혁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교수
- └ 광운대학교 화학과 145
이윤미 광운대학교 화학과 교수

부 록

- 광운대학교 학부 및 학과 안내 156



추천사

학생부종합전형, 아홉 번째 이야기



김문석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2014년부터 발간을 시작한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가 어느덧 아홉 번째 시리즈를 맞이하였습니다.

광운대학교 입학처에서 발간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 사랑받아 왔으며 올해에는 ‘2024 대입인 서울대학 중 가장 수요자 친화적 대학’이라는 기사 등으로 여러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학의 입시와 관련되어서는 ‘첨단학과 신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입시 준비도 이전과는 다른 도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통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면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 바라는 것이 대학입시를 바라보는 보편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생활에 충실한 자기주도적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전형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의 특징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운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를 통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학교 수업, 진로 진학, 대학의 요구 등에 대한 길 안내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에는,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학교 수업과 진로 탐색, 진로진학을 위한 소통, 대학 교수님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등으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생부종합 전형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스토리북은 새로운 고교교육과정, 진로 및 전공 탐색과 결정, 진로 관련 교과 선택 등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꾸몄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에 소중한 글을 올려주신 교육정책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시며 원로이신 권오현 서울대 교수님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하시며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주신 김진석(소명여고), 서기남(봉담고), 양민욱(성남고), 김태진(새솔고), 박정준(오산고), 정무웅(송곡고), 이순남(신목고) 선생님들과 함께 임동혁(정보융합), 이윤미(화학과) 교수님 등 집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전체 진행과 업무를 맡아 주신 이용찬 입학사정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셔서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에서 멋지고 활력이 넘치는 청춘을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그 아홉 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김문석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 하는
학생과 융합전형 이야기



01

들어가며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



권오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前 국가교육과정 개정위원회 위원
前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본부장

1. 들어가는 말

인터넷과 매체 환경의 고도화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갈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와 현안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와 교육의 본질적 요소를 반영하여 학교교육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은 항상 국가 교육과정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는 시대 변화를 읽고 현재를 새로운 환경에 맞춰주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Alvin Toffler는 “과거에 학습한 것을 버리지(unlearn) 못하는 사람은 21세기에 문맹과 같다”고 했습니다.¹ 이전에 알고 있는 사실에만 얽매인 채 고정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미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가 분야별 지식을 확정하여 전해주는 정답형 사고방식에 머물러서는 학생들에게 다가올 사회에 대처할 경쟁력을 키워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속 세대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안목을 길러주려 한다면 학교는 분야별 내용 지식과 핵심역량과 더불어 정답형 사고의 반대편에 있는 ‘디자인적 사고 design thinking’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디자인적 사고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자신과 공동체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타인과 공감하며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의 시대적 정합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학교는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삶, 국가 교육 방향 등을 반영하여 학생이 미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 Trilling & Fadel (2009).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해 어떤 인물을 키워야 하는지(미래 인재상 정립), 교육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역량기반 관점), 이를 위해 학생들은 진로와 학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학생의 자기디자인), 그리고 대학교육과는 어떠한 연계가 필요한지(대입전형과 일체화) 등에 대한 바람직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 글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던져진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들을 선행적으로 정리해보는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미래 인재상과 학교교육

미래 인재상은 국가나 사회 혹은 조직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인재상은 특정 시점과 공간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이상적으로 충족시키거나 그럴 잠재력을 지닌 사람에 대한 상(像)입니다. 이러한 인재상은 학교와 대학이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협력적 연계 속에 후세를 양성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재상 개념은 사회적 관심사의 자리에서 기대하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재(人才)와 인재(人材)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전자는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한 다양한 재주나 능력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반면에, 후자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쓸모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인재(人才)는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우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라 한다면, 인재(人材)는 타인과 비교를 전제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한 결과를 창출하는 재목(材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교육목표에 해당하는 ‘인재상’ 개념에는 오로지 인재(人材)만 사용하며 ‘人才’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교 우위적 지위를 뜻하는 인재(人才)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일뿐이며 공적 제도로서의 학교가 추구하는 인물상은 인재(人材)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인재상은 시대적 필요와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인재(이하 ‘인재’는人材만을 의미한다)를 보는 눈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대사회는 탁월한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 인재라 부르지 않으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창출하는 수행 자질, 즉 역량(competency)을 균형 있게 소유한 사람을 인재라 칭합니다.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과 능력을

소지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을 잘 관리할 내적 근육(열정, 끈기, 자기 주도성, 치밀함 등)이나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사회적 역량(소통, 협업 등)을 두루 지녀야 합니다.

인류 사회에서 인재상의 시대적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 세계사적으로 보아 두 번의 큰 전환이 눈에 띕니다.

인재상의 시대적 흐름

	전통 사회	19세기	산업 사회	2000년	현대 사회
사고	통합적 사고 (ABC)	→	영역적 사고 (A, B, C)	→	디자인적 사고 (A+B+C)
인물	전인형 인물 (인품기반)	→	전문형 인물 (내용기반)	→	관계형 인물 (역량기반)
대학(교육자)	교양대학 (성인군자)	→	학과체제 (분야전문가)	→	전공설계 (교육디자이너)
평가	교양 평가	→	표준화 평가	→	종합 평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 사회는 통합적 사고(ABC)를 중심에 두며 전인(全人)형 인물을 최고의 지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여 대학도 교양대학의 성격을 지녔으며 교사는 성인군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² 그러다가 1800년대를 거치며 인류 사회는 급격하게 영역적 사고(A, B, C)를 추구하며 전문형 인물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성적 활동은 주로 깊이 있는 지적·내용적 요소를 탐색하는 데 매진하게 되고 학교도 교과 중심의 체제로 재편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이 되면 하나의 분야만을 관리하는 전문가에서 더 나아가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디자인적 사고(A+B+C)를 지닌 인물이 부각됩니다. 다양한 연결성을 체화한 “관계형 인물”이³ 지식형 인물보다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여 자기 나름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자질을 뜻하는 역량이 교육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학업도 여러 분야를 연결하여 자신만의 개별화된 학업을 설계하는 자질을 중요하게 인식하기에 교사는 학생이든 교육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교육 디자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기반 관계형 인물을 T자형에서 진화한 M자 형 인물(M-shaped person),⁴ 혹은 국내에서는 Π(파이)자형 인물로 부르기도 합니다.

2 이를 논어에서는 개별 분야(器)에 통달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인품을 갖춘 사람을 이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군자 불기(君子不器)라 칭하였다.

3 G. Colvin(2017), 85쪽.

4 W. Holmes 외(2020), 34쪽.

일반적으로 역량은 능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능력이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갖춘 상태를 지칭하는 반면에, 역량은 이런 능력을 사회적 맥락에 맞게 실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자질로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특성을 지닙니다.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역량의 강조는 학교의 존재근거를 지식 전수의 기능적 역할에서 벗어나 개별화된 인격체를 육성하는 교육 본연적 역할로 성격을 바꾸어 가는 데 일조했습니다.

학교교육을 '목적-수단의 연쇄 고리' 내에서만 판단한다면, 개인적 성장과 같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보다는 외적 목표(대학입시 성과 등)를 위한 기능적 역할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역량 요소가 주목받은 것은 교육이 곧 삶의 바른 준비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역량기반' 관점은 개별화 교육과 인재상(人材像) 개념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효과적입니다. 한마디로 '역량'은 탈 표준화 시대에 개인의 성장 동력을 일괄적인 관리가 아니라 개인의 요구(needs)를 반영한 개별화(personalisation)를 기반으로 키워주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⁵ 개인의 다양한 삶과 성취를 표준화된 하나의 기준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 오늘날은 스스로 최장수 시대에 평생 성장을 이어갈 의지와 방법을 개인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개인적 성장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끄는 자질을 역량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교육과 대학입시도 역량 요소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1980년대까지의 산업사회는 각 분야(학과, 교과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당 분야 속 지식을 되도록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을 학교교육의 관심사로 여겼지만, 오늘날은 지식 자체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고 이를 스스로 탐구, 분류, 재구성, 활용하는 자질을 더욱 높게 평가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들어온 이후 교실은 지식 습득의 핵심 공간이라는 역할에서 해방되고 많은 부분을 역량 함량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대학입시 역시 분야 중심의 콘텐츠 측정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결과에 주목하게 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가 대입에서 분야별 성취도를 나타내는 계량적 점수보다는 종합적 '적합도'를 평가의 중심에 두는 추세를 보입니다. 적합도 판단의 기준에 포함되는 학업 경험이나 역량 요소들은 일회성 집필고사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찰이 필요하기에, 우리 대학입시도 장기적 관찰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형태로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5 Colby(2018), 2쪽.

3. 2022 개정 교육과정 : 핵심 논점

최근 한국교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단연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편의상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국제적인 호환성도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교 단계의 선택 교육과정에서 이르면 과목별 선택 이수하는 어느 나라든 너무나 당연한 제도이기에, 굳이 고교학점제라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마치 우리가 특별한 교육 체제를 운영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향후는 '고교학점제'를 강조하기보다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접근하며 고교학점제 요소들을 학생의 개별화 학습 혹은 성장 중심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발달 과정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보면, 이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선택과목 성취평가제(ABCDE) 확대', '핵심 원리와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는 교실수업', '미이수 제도 도입과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등이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성취평가제 확대'와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다룹니다.

1)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확대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욱 잘했는가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취평가제는 2011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등급제 평가를 성취평가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데서 비롯됩니다. 교과목 별 성적을 학년 단위로 석차를 매겨 9등급으로 분류하는 평가제도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급우들 사이 배타적 경쟁심을 조장하여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협동학습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제약하기에 그 대안으로 성취평가제가 제시되었습니다.⁶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나 취향에 따라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유도하려면 성적에 의한 서열화보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일정하게 판단하는 평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취평가제는 교실 내 평가에 있어서 교과별 성취 준거를 강조하고 학생맞춤형 성장 지원이라는 학교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려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성취평가제에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 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이면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제 성적산출 방식은 다양한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① ABCDE 유형(공통과목/일반선택과목, 석차 9등급도 병기함) ② ABC 유형(진로선택과목) ③ P/F 유형(교양과목) 등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주요 선택과목이 석차 9등급 병기 없이 ABCDE+(I) 유형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풍토에서는 성취평가제 등급을 대입에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니다. 우선 대입에서 성취등급이 학교 측과 대학 측 사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는 매개체(즉,

⁶ 참고, 교육과학기술부(2011.12.14.).

‘정보재’의 역할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와 대학이 ‘정보재 ABCDE’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재의 가치 판단에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재로서 성취등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영한 정보인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목 별 성취등급이 ① 교과 성취기준의 수준인지 ② 교과 구성영역 별⁷ 성취수준의 합인지, ③ 교사가 판단한 교과의 전반적 실력을 의미하는지 ④ 교과 별 역량을 반영한 역량관련 수준인지 등, 성취등급 이면에 담겨 있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먼저 형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정분할점수와 학교산출분할점수의 이원적 산출체계를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면 학교마다 혹은 과목마다 다른 산출체계에 대한 정보를 대학들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개별 학교와 교과의 성적 산출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택과목 성취평가제를 전면 도입한 후 각 지역 내 학교들의 과목별 A등급 비율의 차이가 대입의 합격률 차이로 이어질 때, 우리 사회가 이를 무난하게 수용할지도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1> 과목의 A등급 비율이 지역 내 학교에서 K고 34%, H고 21%, M고 8% 등 차이가 난다면, 교육수요자들이 성적산출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주요 과목 등급 비율에 따른 지역 학교 서열화가 두드러지면서 개별 학교들에는 큰 부담 요소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대입평가에서 성취등급의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추가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추가 정보’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취등급 해석에 도움을 주는 ‘추가 정보’

	‘추가 정보’ 역할을 하는 요소들	주요 내용
1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강생 수, 등급별 비율을 병기	현재 병기하는 요소들을 성취평가제 확대 후에도 그대로 유지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개인별)	학생의 학업태도, 탐구 활동, 깊이 있는 학습, 개인별 등급에 대한 추가 설명 등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교과별)	과목별 주요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형식 등에 대한 시스템 기반 기록
4	공통과목에 한하여 석차 9등급을 병기	성취평가 체제가 대입에서 안정화될 때 까지 공통과목 석차 등급을 잠정적 유지
5	등급 해석의 근거가 되는 기타 요소들	대학별 고사, 학교별 등급산출 타당성 모니터링, 집필고사 문항의 공개 등

7 교과 영역은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분류(① 지식/이해, ② 과정/기능, ③ 가치/태도)를 따를 수도 있고, 교사 개인별 분류(예, ① 이해/분석, ② 생성/조직, ③ 가치/태도, ④ 전이/확산)에 근거를 둘 수도 있다.

시대 환경과 교육의 변화 방향에서 볼 때, 새로운 교육과정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중합전형 방식의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 번 시행된 교육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⁸ 그러나 신뢰 사회가 형성되지 못한 한국의 풍토에서 보아,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는 학생부중합전형에 큰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대입에서 성취평가제는 학업역량 평가에 관한 것이기에, 과거에 비교과 부분에 초점화된 공정성 문제 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성취등급의 신뢰도를 높여줄 '추가 정보'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본질, 국가의 미래인재 육성, 사회 균형 발전 등 국가교육 아젠더에 맞는 대입제도 설계와 더불어 대입 정성평가의 정착, 입학사정관의 평가 리더십 강화 등 학생부기반 전형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 깊이 있는 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방대한 양의 교과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 '핵심 아이디어 big idea'를 기반으로 교과 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①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 혹은 타 교과의 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거나, ② 특정 지식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여 이를 일반화하거나, ③ 개별 지식을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에 적용하여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학습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깊이 있는 학습'으로 명명하며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눈길을 끕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2. 교수·학습> 부분에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학교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1)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 2)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업이 학생의 삶에 의미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 4)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과정과 학습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8 예, 김진숙 외(2021), 69쪽.

교육과정이 기술한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깊게 사고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은 수행 방식과 태도에 따른 심층 학습을 지칭하기에, 교과 내용의 난이도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심화 학습’과는 구분됩니다.⁹ 즉, ‘깊이 있는 학습’은 아주 쉬운 내용이라도 깊게 사고하고 탐구하는 학습 형태를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탈분리적 사고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장치들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개인의 다면적 판단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내용 지식의 확보보다는 이를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확장해 감으로써 스스로 맞춤형 성장의 힘을 길러가는 학습이 필요한데, 이러한 학습유형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필자는 포괄적 용어로서의 ‘깊이 있는 학습’을 다음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여 검토해 보려 합니다. 가) 핵심 아이디어 기반 ‘깊이 있는 학습’, 나) 지식의 맥락화로서의 ‘깊이 있는 학습’, 다) 심층적 사고로서의 ‘깊이 있는 학습’

가) 핵심 아이디어 기반 ‘깊이 있는 학습’

핵심 아이디어는 여러 세부 내용에 걸쳐 적용되는 포괄적이면서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교과 내 혹은 교과 간을 관통하는 일반적 개념과 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핵심 아이디어 기반 ‘깊이 있는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며 각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연계하여 교과 내 지식이 작동되는 원리를 파악하는 학습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교과 내용을 내면화 하거나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학습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며 이를 여러 상황에 전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 기반 ‘깊이 있는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는 세부적인 학습내용에 적용되는 핵심적 개념과 일반화된 원리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세부 내용들을 포괄하는 중심적 요소로서 학생들이 세부 내용은 잊어 버리더라도 계속 남아 해당 주제(topic)의 지식이 작동하는 체계와 응용 가능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과 남부의 재건”이라는 주제의 학습을 수행하는 경우, “캔자스 유혈사태,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조항,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 40 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 조항” 등이 디테일한 학습요소로 설정 가능한데, 이러한 세부 내용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자유’와 ‘갈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자유에 대한 정의는 개인과 집단 및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데, 이것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¹⁰ 필자도 대학에서 ‘이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세부적 텍스트(카카오톡, ppt, 신문기사, 문학 등)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인간의 이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텍스트 분석, 텍스트 수용 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의 본질은 잘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인간의 이해도 표현 못지않게 생산적 특성을 지닌다>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9 ‘심화 학습’은 내용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이기에 내용 수준이 높은 과목 명칭은 <심화수학>, <심화 영어>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10 이찬승(2021).

나) 지식의 맥락화 기반 ‘깊이 있는 학습’

지식의 맥락화는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의 한 유형으로서 교과 지식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으로 사고하고 자기화, 관점화하는 학습입니다. 학생들은 맥락화를 통해 교과 간 연계, 자기 삶에 적용, 그리고 다른 상황에 전이하는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교과 지식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맥락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데, 주요 차원으로는 ① 교과 맥락(교과 간 연계, 다면적 분석, 교과별 배경지식의 적용 등), ② 사회 맥락(우리 사회의 제도, 문화, 환경, 공동체 등과 연결), ③ 개인 맥락(자신의 삶, 진로, 환경 등과 연결)을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교과 주제가 있을 때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다양한 맥락과 연결하여 깊게 사고한 다양한 사례들을 <맥락화 노트>에 정리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학습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맥락화 기반 ‘깊이 있는 학습’은 Kieran Egan의 깊은 학습(Learning in Depth= LiD)과도 일맥상통합니다.¹¹ Egan의 깊은 학습은 익숙한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사과, 먼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학습을 수행하는 방과 후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의 깊은 학습은 개별 지식과 자기 관심을 연결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지식이 작동하는 일반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학습의 즐거움을 높여주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맥락화 기반 ‘깊이 있는 학습’은 개별 교과 내용을 학습할 때 학생 스스로 ‘지적 질문 knowledge questions’을 던지고 탐구를 통해 자신의 답을 찾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학습방식은 풀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공부와 대비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부에서 ‘풀이’가 곧 ‘학습’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학습’은 지적 내용에 대해 학생이 여러 관점을 설정하여 다면적으로 사고하는 공부를 의미하는 반면에, ‘풀이’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좁은 범위의 공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5달러의 거스름돈을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보도록 하면 학생은 스스로 “10\$/2개 + 1\$/5개”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구성하여 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학생이 자기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때 이를 학습이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의 조합을 주고 맞는 정답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2\$/10개 + 1\$/5개 = 25달러)에 익숙해 있는데, 이때는 학생이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부는 학습이 아니라 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능은 출제자가 관점을 설정하여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는 대표적 풀이형 공부 유형입니다.

11 참조, Kieran Egan(2014) : 깊은 학습(김희용 외 역)

다) 심층적 사고로서의 '깊이 있는 학습'

세 번째는 사고력 수준에 따른 '깊이 있는 학습' 유형입니다. Norman Webb은 지적 내용에 대한 사고 수준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¹²

지식의 깊이 Depth of Knowledge (DOK) : N. Webb

DOK	사고 수준	주요 특징
Level 1	기억 / 회상 recall	사실, 정의, 용어, 단순 절차 등 정보를 기억으로부터 회상하거나, 알고 있는 간단한 연산 및 공식을 적용
Level 2	기능 / 개념 skill / concept	회상이나 자동적 반응을 넘어서 정신적 활동과정을 투입. 자기 판단을 통해 사례를 추상적 개념(원리)으로 일반화를 시도
Level 3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	추론, 설계, 증거 제시 등을 행하며, 자신의 사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함. 인지적 요구 수준이 더욱 복잡하며 추상적임
Level 4	확장적 사고 extended thinking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추론, 개발, 사고를 요구함. 다양한 요소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결과를 창출

지식의 깊이(DOK)를 간단한 예로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작가 브레히트(B. Brecht: 독일)의 「재회」라는 작품은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 K씨를 오랜만에 만난 어느 남자가 K씨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동안 변한 것이 없군요." 그러자 K씨가 "아!"라고 말하며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코이너씨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짧은 작품은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동안 K씨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남자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자 실망하는 내용입니다. 인간 세상의 일상적 주제인 '변화'를 다루는 이 작품은 대단히 평범한 내용을 지니는데, 학습자들은 이를 평범하게 학습하는 데 그칠 수도 있고, 이러한 평범한 내용을 깊이 있게 사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DOK 레벨에 따라 분류한 사례입니다.

12 참조, Norman Webb(2007)

문학작품의 사고 수준별 해석 사례

DOK	사고 유형	주요 내용
Level 1	기억 / 회상 rec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 좋게 변했는데 이를 알아주지 않은 데 대한 실망 예) 외모, 능력, 나쁜 버릇
Level 2	기능/ 개념 skill / conce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의 유형 구분은? (개과천선, 금상첨화) • 유형별 실망 강도는? (이에 대한 논거 제시) • 독자의 자유로운 이해 근거는? (수용 이론)
Level 3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점 1 : <변화>와 <변신>의 구분은? • 관점 2 : K의 <변화>에 따른 이익은 어떻게 배분? • 관점 3 : 수용의 주요 개념 탐구 - '빈자리' 개념 등
Level 4	확장적 사고 extended thin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를 다른 분야에 확장 :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설명 예) 금상첨화 = 성장, 개과천선 = 탄생 • 수용 이론의 적용 =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에 전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적인 학력 개념에만 매달리다 보니 '지식의 콘텐츠와 학력 수준을 동일시' 하였는데, 이제는 지식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태도도 학력 속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지식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학생의 동기화 및 그 지식을 관리하는 태도도 학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입 평가 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을 유심히 점검함으로써 수업의 내적 모습과 학생이 취득한 등급을 서로 연결하여 판단하여야 학생의 학업역량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학력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더욱 종합적이고 자기주도적이며 수업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해야 합니다.

4.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진로·학업 설계

교육과정이 바뀌면 학생들은 변화된 학교교육의 내용에 맞게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입 전후에 학생들은 희망하는 진로와 학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삶의 비전을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래 진로와 학업 설계는 앞으로 살아가 삶 많은 부분들을 결정지어 주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진로 설계

성공적인 진로 찾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준비와 다양한 활동들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재의 단계만 생각하지 말고 긴 호흡에서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을 찾아 진행하고 필요한 경험들을 차분히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로 탐색은 다음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가)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양한 진로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기본 성향과 적성을 파악한 후 진로디자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진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디자인은 적절한 시간을 배분하여 ① 자신이 좋아하는 것, ② 자신이 잘 하는 것, ③ 자신이 부러워하는 것 등을 순차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스로 설계에 반영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선생님 들로부터 <준비-활용-도전>에서의 특성과 중점 사항 등에 대해 조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갖추면 다가올 삶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 내부에 형성되는 자존감은 향후 미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나) 직업의 가치 인식

직업은 사회적 가치인식과 연결되어 있기에 진로 설계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실현에 매진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유망 직업에 대해 예상해 보려면, 미래 사회의 변화와 모습을 먼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업의 소멸, 분화, 생성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무작정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통적 선호 직업에만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일자리의 60%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라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의 말에 의하면 사람과 인공지능의 역할 분담을 예측하며 자신의 직업을 다가올 사회에 합당하게 미리 설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장기적 삶의 방향 설정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치열하게 순위를 매기는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자신의 리듬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기본 방향은 ① 경제적 힘과 전문성 ② 큰 꿈 추구하고 무한도전 ③ 사회봉사와 자부심 ④ 나만의 웰빙과 행복 추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장기적 삶의 방향은 지나치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직업에 한정시키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큰 틀에서 자신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남들을 가르치며 교육봉사를 하고 싶다(위의 ③번) 등 넓은 범위의 설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기적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것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선택과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의미를 더해 줍니다.

2) 학업 설계 : 과목 선택 및 깊이 있는 학습

미래 진로에 대한 설계는 학교교육에서 학업 수행으로 구체화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과 운영 방식에서 학생의 자율적 결정을 더욱 확대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보다 더욱 다양한 과목들을 편성하고 모든 과목에서 학기별 이수를 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이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이 모두 ABCDE 성취 평가제로 바뀌면 대입에서 현재의 9등급 체제보다 성적을 통한 변별이 어렵게 되기에, 대학은 어떤 과목을 이수하였는지를 더욱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선택과목의 조합뿐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골라 이수하고 그 결과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이나 직업 세계에서의 활동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와 수도권 대학 일부가 발표한 바처럼 자연계 모집단위는 자신의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핵심’ 권장과목’ 형태로 아예 명시적으로 공지한 반면에, 인문계 모집단위는 이전보다 느슨한 형태로 선택과목 이수와 전공적합성을 연결시키려 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하여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 한정하여 (핵심) 권장과목 이수 계획을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지만, 인문계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미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 이수를 계획하는 데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학업 설계에서 선택과목 조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교과별 학업 내용을 학생에게 기능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방법을 줄이고, 학생이 직접 체험하고 탐구·적용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깊이 있는 학습’의 취지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려는 적극적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 즉 <교과 내용 ⇒ 핵심원리 이해 ⇒ 자신의 관심 반영(교과 주제 or 큰 주제) ⇒ 적용/융합/활용(탐구 학습) ⇒ 성찰/토론>의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깊이 있는 학습’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교실수업을 통해 지식을 수동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교과외의 지식을 자신이 지닌 생각의 지도 속에 정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습득한 지식을 자기 관점에서 탐구, 활용, 융합, 일반화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탐구력과 전이 자질을 적극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개별 교과 수업에서 교과 학습내용을 나의 관심과 관점에 적용하는 '생각 참여'의 태도를 습관화하고, 교과 주제를 자기 관심과 관련하여 맥락화하면서 사고의 깊이를 확대해 가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이 커질 뿐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사항도 한층 풍부해질 것입니다.

3) 전공/학과 선택

진로 희망에 맞춰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는 진로와 연관된 학과를 선택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남습니다. 대학에는 <단과대학-학부-학과-전공>의 위계 속에 다양한 교육단위가 존재합니다. 대학의 교육단위에서 단과대학과 학부는 미래 진로와 연관된 큰 분류를 의미하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큰 분류를 기반으로 자신의 미래 학업을 구상한 다음에, 차츰 세부 전공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꿈을 더욱 구체화해 가면 됩니다. 대학의 모집단위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모집단위 이름을 보고 막연히 나의 진로 학업 설계와 관련된 전공이라 단정 짓지 말고 그 학과/전공이 운영하는 내부 교과과정과 개설 과목을 보고 자신과의 연관성을 판단합니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흥미나 호기심) 분야인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적성이나 소질)인지 구분하여 검토한 후에 여기에 맞춰서 학과/전공을 선택합니다.

셋째, 자신이 꿈꾸는 미래 직업을 찾아가는 데 해당 학과/전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신에게 합당한 모집단위를 선택합니다.

넷째, 사회적인 명성에만 의존하여 학과/전공을 결정하지 말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 직업에 맞는 분야를 소신 있게 선택하되 최종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내립니다.

다섯째, 자신의 진로 학업 설계에 맞는 학과/전공을 하나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다른 제2, 제3의 대안도 함께 마련해 둡니다.

한편, 기존의 학과 체제로 분류된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융복합적 학업을 수행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학과/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요즘은 대학은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공부할 여건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예로 들면,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에 다른 전공과정을 하나 더 이수하는 복수전공,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연합하여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합전공, 특정 학과(부)가 다른 학과(부)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하여 편성한 연계전공, 학생이 스스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설계전공 등을 통해 융복합적 학업이 가능합니다. 원천 지식과 혁신적 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의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과의 테두리에 안주하지 말고 융복합적으로 접근할

마음의 준비를 일찍부터 하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정부가 대학의 전공 단위를 ‘학과 또는 학부’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모집 단위 광역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육제도에 대한 변화 모색은 대학, 학교, 학생과 같은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미래 비전에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사회 문제의 완화나 그 부작용에 응답하려는 외부적 관점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정책적 흐름에 응답하느라 변화에 대한 질은 피로감만 쌓일 뿐, 교육경쟁력을 키우는 원천인 일관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있게 추진한 교육개혁들도 복잡계로서의 한국 사회에 내재하는 어려운 공식 속에서 금방 해답이 오답으로 변해 있음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더욱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념해야 할 교육의 본질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기의 삶을 디자인해 갈 기회를 두루 제공하며, 둘째, 그 과정에서 미래 비전에 맞게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도록 적절하게 자극을 주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며, 셋째,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면서 제도적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취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표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각자에게 맞는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보면, 고교학점제는 탈 표준화 및 개별화를 추구하는 전반적 사회변화에 대한 한국 교육계의 적절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이 최근 교육과정의 전반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21)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11.24
- 교육과학기술부(2011) :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2011.12.14
- 권오현 외(2020) :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
- 김진숙 외(2021)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아렌트, 한나(1996) : 인간의 조건(이진우, 태정호 역), 한길사
- 온정덕 외(2021) :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교육부
- 이찬승(2021)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수업지도', 이런 면이 중시된다!
<https://21erick.org/column/7399/>
- Colby, Rose L(2018). Competency-Based Education. A New Architecture for K-12 Schooling, Harvard Education Press
- Colvin, Geoff(2017). 인간은 과소평가 되었다(신동숙 역), 한스미디어
- Egan, Kieran(2014) : 깊은 학습 : 지식의 바다에 빠지다(김희용 외 역), 학지사
- Holmes, W. 외(2020) :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정제영 외 역), 박영 story
- Trilling & Fadel(2009) : 21세기 핵심역량(한국교육개발원 역), 학지사
- Webb, Norman L.(2007) : Issues Related to Judging the Alignment of Curriculum Standards and Assessments, In.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20 (1) 7-25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 하는
학생과 중합전형 이야기



02

학교 수업과 진로 탐색

고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그림 이해하기

수업시간에 발견하는 나의 진로 적성과 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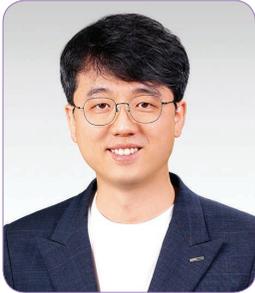
- └ 1학년 공통과목 편
- └ 2, 3학년 일반선택, 진로선택과목 편

(선생님들께 공유하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는 수업 사례



고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그림 이해하기

김진석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한 학기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보낸 첫 학기는 어땠나요? 학교 수업도 수업이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행평가와 각종 활동 등으로 쉼 없이 달려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급에서, 교과 수업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맡았나요? 아마도 학급이나 학년 단위 임원을 맡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이 아니라도 학급 내에서 1인 1역이나 교과 부장, 동아리 활동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한 학생이 틀림없을 것이기에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중학교에 비해 더 어려워진 과목들과 훨씬 넓어진 시험 범위 등에 쫓겨서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고등학교 생활인데, 과목별로 수행평가도 챙기느라 여러 활동들과 발표들을 준비하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정규동아리를 선택해야 했고, 교내 봉사활동이 있었다면 신청했을 것이며, 자율주제탐구 활동 등으로 학기말을 힘들게 보내지 않았나요? 게다가 학교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1학기를 마치기 전에 2, 3학년 때 들어야 할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지도 받았으리라 봅니다.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공통과목처럼 동일한 과목을 들으면 뭘텐데 왜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 비교적 진로가 확실한 학생도 과목 선택이 쉽지 않을텐데, 명확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더욱 답답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바로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교과에 대한 모든 것만이 아니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것이 바로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참여 가능한 활동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고등학생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교육과정은 내비게이션

교육과정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와 배열과 조직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교과 학습 및 생활 영역의 총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은 내가 배우게 될 교육의 전체적인 과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교과와 학교 생활 영역 전체의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수업과 활동들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 수 있기에, 당연히 자신이 어떤 부분에 더욱 초점을 두고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계획 또한 세울 수 있습니다.

초행길을 가려고 할 때 길을 안내해주는 도구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반대로 내비게이션 같은 도구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도 역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큰 고민 없이 따라만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여기서 목적지는 목표하는 '진로', '직업'일 수도 있고, '삶 전체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가까운 '대학'과 '학과'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달리 우리의 진로는 목적지를 정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면 도달할 수 있는 간단한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에 달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 탐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력의 과정에 항상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가깝게는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진학을 위해서, 멀게는 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떠한 교육과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핵심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상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을 6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이런 학생으로 성장 시키기 위한 길잡이(내비게이션)가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자주적인', '더불어 사는', '창의적인', '교양 있는' 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학교생활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방향등입니다.

3.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현재 고등학생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3학년은 교육과정 편성과 명칭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으로 인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단위' 대신에 '학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단위와 1학점은 모두 50분 수업을 1주일에 1시간씩 총 17주를 진행하는 수업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용어는 왜 바꾼 것일까요?

과거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을 받더라도 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출결상황만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최소 성취 수준에 학생이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과목의 이수를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학처럼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이 불가능한 체제로 설계가 된 것인데, 이는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이 일정한 성취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실제로 일정한 성취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를 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



또한 한 학기에 진행되는 수업의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1주일에 수업 30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4시간을 합해 총 34시간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수업 29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3시간을 합해 총 32시간으로 2시간이 줄었습니다. 수업량을 줄여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총 이수 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총 192학점이 졸업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총 204단위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에 비해 교육과정의 총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점들을 쌓아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건을 갖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21]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22~'24] 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5~]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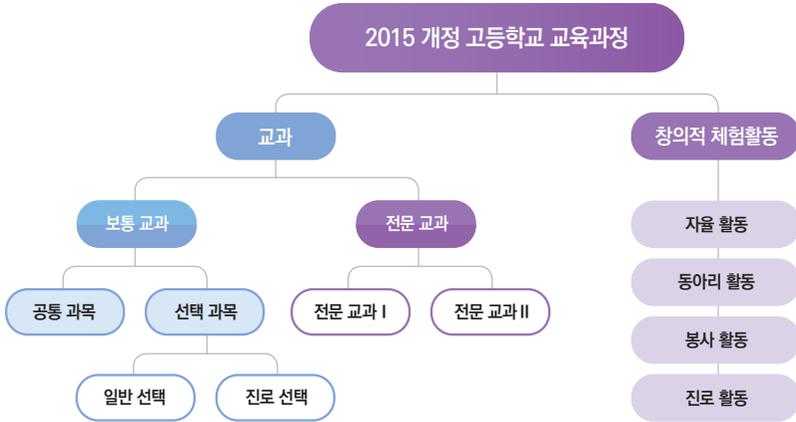
	운영체제 전환		제도의 단계적 적용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2	'23	'24		'25~
수업량 기준	단위 (특성학교 : 학점)		학점		학점
총 이수학점	1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학점제 이전 ~ 2022년	단계적 이행 2023~24년	전면 적용 2025년~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1)회	50분 17(16+1)회	50분 16회
총 이수학점 (이수시간)	204단위 (2,890시간)	192학점 (2,720시간)	192학점 (2,560시간)
교과 · 창체 비중	교과 180 창체 24	교과 174 창체 18	교과 174 창체 18

여러분은 2023학년도에 입학했으니, '단계적 이행'에 해당합니다. 아직 고교학점제로 이행 중이라는 뜻인 데요. 고등학교 2, 3학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점제로 명칭이 변경된 점과 총 이수학점이 전과 달리 줄어든 점은 이전과 달리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 되는 2025학년도 학생들과 다른 점은 여전히 선배들과 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학년도 후배들의 경우, 2022 개정 교육 과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목명도 달라지고, 평가 방식도 여러분과는 좀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4.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교육과정 편제라고 하니 뭔가 잘 다가오지 않죠?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담은 큰 틀의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부터 살펴볼까요?

①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 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교과 수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각의 활동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 자체가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한 좋은 과정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특색 있는 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합리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자발적 활동을 통한 소질 및 적성 개발, 삶을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	나눔과 배려 실천, 환경 보전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체득	흥미, 적성, 소질에 기반을 둔 자아 정체성 확립과 진로 개발 및 지속적 발전 추구
· 자차·적응활동 (학급·학생회 활동 등) · 창의주제활동	· 예술·체육활동 · 학술문화활동 · 실습·노작활동 · 청소년단체활동 등	·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등	· 자기이해활동 · 진로탐색활동 · 진로설계활동 등

2023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두 고등학교의 시간표를 한 번 볼까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1주일에 1시간씩 줄어들면서 고등학교 2, 3학년에 비해 조금 더 여유가 생긴 모습입니다. 왼쪽 시간표처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하루로 몰아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오른쪽 시간표처럼 체험활동을 나눠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을 특정 요일 오후로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1학년 시간표 예시 1

교시	월	화	수	목	금
1	통과	수학	영어	체육	국어
2	정보	국어	한국	통사	통사
3	영어	한국	정보	국어	음악
4	국어	통과	통사	수학	과탐
점심시간					
5	수학	음악	수학	한국	창체
6	무용	영어	통과	진로1	창체
7				영어	창체

2023년 1학년 시간표 예시 2

교시	월	화	수	목	금
1	통과	수학	영어	체육	국어
2	정보	국어	한국	통사	통사
3	영어	한국	정보	국어	음악
4	국어	통과	통사	수학	과탐
점심시간					
5	수학	음악	수학	한국	공동 교육 과정
6	무용	영어	통과	진로1	
7	영어	창체	창체	창체	

시간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시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생활의 대부분은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학교는 수업을 듣고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장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암기를 통해 꾸역꾸역 집어넣는 수동적인 공부만이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인 태도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연결하고 다시 수업이나 기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② 교과 - 학교생활의 중심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교과는 일주일에 29시간이 편성되어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3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봐도 알겠지만 당연히 고등학교 생활의 주축은 '교과'가 되겠죠? 다양한 자율활동이나 깊이 있는 동아리 활동, 꾸준한 봉사활동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업을 통해 교과들을 학습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는가가 학교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교과는 대입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죠?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됩니다.

1. 보통 교과에는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 과목**'이 있으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됩니다.

- 1학년에서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2, 3학년에서는 학생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을 합니다.
-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별 학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이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교과 융합 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2.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I 과 전문교과 II로 구분되는데,

- 전문 교과 I 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웁니다.
- 전문 교과 II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 II 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웁니다.
- 전문교과 I, II 의 과목을 일반고등학교에서 배울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학교마다 학교의 교육 목표,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과목을 추가하고, 삭제하여 그 학교만의 특성을 편제로 보여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학교도 그 학교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과학과목이 다양하다든지, 수학과목이 다양하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예체능 과목이 다양하다든지요. 신중히 선택하고 입학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의 표는 과목의 특성과 성적처리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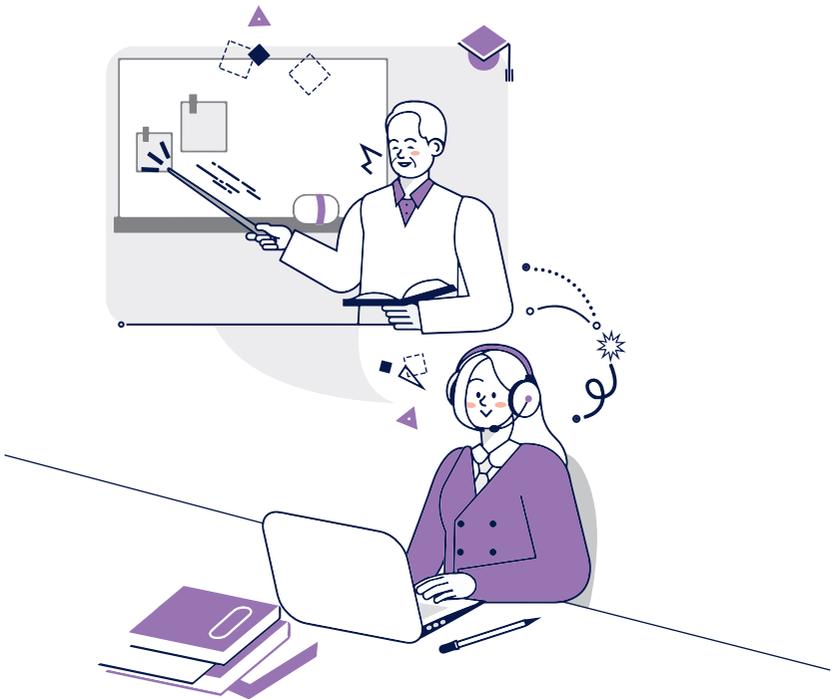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목(보통 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인공지능 기초	
	제2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위의 표에서 보듯이 보통교과의 경우 '교과 영역'과 '교과(군)'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교과 영역'은 크게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교과(군)'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명칭은 '과목'입니다. 과목은 주로 1학년때 배우는 '공통 과목', 2·3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선택과목(일반선택 & 진로선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학생들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과목이고 필수 이수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각 교과의 주요 내용, 기본적인 개념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은 융합, 진로, 심화, 체험 등의 성격이 강조된 과목입니다. 과목의 차이가 조금 이해되나요? 이런 과목 특성과 더불어 성적 처리 방식도 다른데, 이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전문 교과 I 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전문 교과 II 과목입니다.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과목들 중에 내 전공과 관련하여 꼭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학교에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해주시길 것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주문형강좌, 지역연계교육과정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문교과 I 편제

교과(군)	과목			
과학 계열	심화 수학 I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정보과학	심화 수학 II 고급 화학 화학 실험 융합과학 탐구	고급 수학 I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과학과제 연구	고급 수학 II 고급 지구과학 지구과학 실험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스포츠 경기 체력	체육과 진로 탐구 수상 운동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스포츠 경기 실습	체육 지도법 개인·대인 운동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분석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예술 계열	음악 이론 합창 미술 이론 입체 조형 무용의 이해 무용 음악 실습 문예 창작 입문 고전문학 감상 극 창작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사진의 이해 사진 표현 기법	음악사 합주 미술사 매체 미술 무용과 몸 안무 문학 개론 현대문학 감상 연기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영상 제작의 이해	시창·청음 공연 실습 드로잉 미술 전공 실기 무용 기초 실기 무용과 매체 문장론 시 창작 무대기술 영화기술 암실 실기 사진 영상 편집	음악 전공 실기 평면 조형 무용 전공 실기 무용 감상과 비평 문학과 매체 소설 창작 연극 제작 실습 시나리오 중급 촬영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독해 I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중국어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독해 II 독일어 회화 I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회화 I	심화 영어 I 심화 영어 작문 I 독일어 회화 II 프랑스어 회화 II 스페인어 회화 II 중국어 회화 II	심화 영어 II 심화 영어 작문 I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외국어 계열	중국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I	중국 문화 일본어 회화 I 일본 문화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문화 아랍어 회화 I 아랍 문화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 문화	일본어 회화 II 러시아어 회화 II 아랍어 회화 II 베트남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
국제 계열	국제 정치 한국 사회의 이해 현대 세계의 변화	국제 경제 비교 문화 사회 탐구 방법	국제법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사회과제 연구	지역 이해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문교과II 편제 중 일부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기초과목	실무 과목		
미용 관광 레저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보건 관광 일반 관광 사업 관광 서비스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헤어 미용 메이크업 여행 서비스 실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피부 미용 네일 미용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카지노 서비스 실무	미용과 관광·레저과
음식조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중식 조리 소믈리에 바텐더	서양 조리 일식 조리 바리스타	조리·식음료과

2) 단위(학점) 배당

2021, 2022학년도 입학생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단위)	필수이수 단위
기초	국어	국어(8)	10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 예술	체육		10
	예술(음/미)		10
생활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94
자율편성단위			86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단위			204

2023학년도 입학생 (현 고1)		
교과(군)	공통과목 (학점)	필수이수 학점
국어	공통국어(8)	10
수학	공통수학(8)	10
영어	공통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		10
예술(음/미)		10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94
자율편성단위		80
창의적 체험활동		18
총 이수단위		192

위 표는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와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의 단위 배당 기준입니다. 그 중 오른쪽 표에 있는 '2023학년도 입학생 학점 배당 기준'을 교육과정총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 ① 국어, 수학, 영어는 필수이수학점이 각 10학점입니다. 즉 1학년 때 배운 공통과목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2, 3학년 때 각 과목을 2학점 이상씩 더 들어야 합니다.
- ②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기초교과라 부르는데요, 이 교과와 과목들이 아무래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학교에서는 이 과목들의 시간을 더 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균형적인 학습이 중요하므로 이들 교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초교과 총 이수 학점(174학점)의 50% (87학점)를 초과해서 수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교과에 너무 치중하여 과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③ 과목에 따라 학점을 조금 줄이고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데, 한국사는 6단위 이상, 2학기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한국사를 1학년에 편성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는 1학년과 3학년에 한 학기씩 배치하는 등 변화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이기에 생긴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④ 고등학교 수업은 50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1학기 17회 수업 중 1회는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진로탐색 수업, 교과융합 수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기말을 '학교자율교육과정 주간' 등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자율주제탐구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교과 심화, 협동 활동 등을 하면 학생부에 좋은 기록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3)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별 평가 예시 - 과목별 평가 및 성적표

보통교과 중 '공통과목'과 '기초, 탐구, 생활·교양' 영역은 성적표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수강자수' 그리고 석차등급(1~9등급)이 표시되고, 성취도가 5단계로 표시됩니다(교양 교과 제외). 그런데 체육·예술 과목은 성취도만 3단계로 표시되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수강자수' 그리고 석차등급(1~9등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교양교과는 P(통과) 여부만 표시하고, 진로선택은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수'가 표시되지만, '표준편차와 석차등급'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문교과 I, II 등에 대한 성적 표시 방법 역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죠? 곧 익숙해질 겁니다.

구분	성적표 표시 내용				석차등급 (1~9등급)	성취도 (3/5단계)	비고		
	원 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 자수					
보통교과 과목	공통과목	○	○	○	○	○	5단계 ABCDE	단,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산출 (성취도 3단계)	
	일반 선택 과목	기초/탐구/ 생활·교양	○	○	○	○	○	5단계 ABCDE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	×	×	3단계 ABC	수강자 수 미입력
		교양 교과	×	×	×	×	P	P	
	진로 선택	○	○	P	○	P	3단계 ABC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전문교과 I (특목고)	○	○	○	○	○	○	5단계 ABCDE	[3단계 평가]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사회탐구방법, 사회과제연구	
전문교과 II (특성화고)	○	○	○	○	×	×	5단계 ABCDE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	● 또는 등급	●	3단계 또는 5단계	석차등급 미산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	×	×			

성적표 예시 자료

구분	교과(군)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등급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	국어	화법과 작문	4	80/62.9(16.5)	A (224)	3
	기초	수학	수학 I	4	72/51.2(21.3)	A (218)	3
			탐구	사회	윤리와 사상	3	93/52.6(22.1)
	탐구	과학	물리학 I	3	89/63.3(19.1)	A (42)	2
			생활·교양	제2외	일본어 I	2	97/67.9(21)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2	-	A	-
진로 선택 과목	수학	기하	4	83/68.6	A(114)	A(34.2%) B(37.7%) C(28.1%)	
교양 교과(군)	교양	철학	1			P	

5. 공동교육과정

현재 교육과정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과목을 담당하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늘리려 하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 역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수강을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에는 단일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등을 교육청, 학교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운영 목적'과 '운영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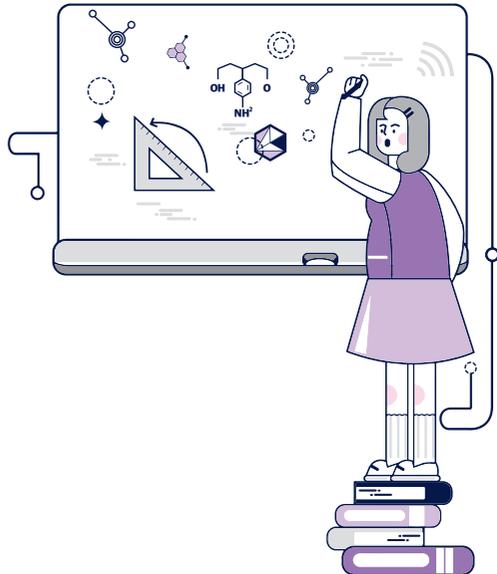
운영 목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교사 수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고등학교 소속의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최대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 방법	수업 개방 범위	거점형	거점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에 개방
		학교 연합형	2~4개 인접학교가 협의하여 학교 내 미개설 과목을 상호 분배하여 공동 개설하고 연합 학교 학생에게만 개방
	참여 학교 유형	일반고 간 연계형	수요가 적어 단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인근 학교가 모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일반고-특성화고 연계형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 다양한 보통 교과 수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에 개설된 수업 수강 기회 제공
		일반고-특목고 연계형	특목고에 개설되지 못한 보통교과 수업을 희망하는 특목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에 개설된 수업 수강 기회 제공
	수업 운영 방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면 수업 진행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 모여 실시간·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우측QR코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면 빨리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년제를 거쳐왔기에 과거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탐색을 거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자신의 진로가 확립된 학생이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많죠? 주변의 친구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경험 자체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찾아보고 고민하는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서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셔도 됩니다.

진로가 정해졌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고등학교에 와서도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과목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과 이어질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발견하는 나의 진로 적성과 흥미



1학년 공통과목 편

서기남

봉담고등학교 교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리더교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봉담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서기남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3 담임만 하다가 몇 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진로를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3 담임으로 다시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1학년 학생들의 진로 찾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공부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할 시간이 많지 않고, 학업 및 개인적인 고민 등으로 숙절없이 시간이 흘러가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2학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신이 진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내신이나 수능성적을 향상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입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로찾기에는 소홀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이 생기고, 이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 고민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진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로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진로를 찾는 길은 다양합니다. 자신의 흥미, 역량, 가치에 맞는 진로를 빠르게 찾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손해가 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순하게 학과 선택을 후회하여 재수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행히 1년 만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였

으며 학과선택에 만족하고 원하는 진로목표를 이루고 직장에 취직도 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이때 1년의 시간 동안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금전 및 시간, 노력은 그대로 매몰된 비용이 됩니다. 대부분은 배우는 것보다는 손해로 다가오는 것이 크겠죠. 결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진로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 단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 보고 학생의 진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찾지 못한 채 대입을 치르고 대학에 낙엽이 물에 흘러가듯이 입학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학생의 선택권이 커진 만큼 그 책임도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 학교 및 선생님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는 저같은 어른들의 몫이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이에 대한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첫째 나를 잘 파악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진로와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셋째 앞의 두 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의 전공(학과)을 어떻게 탐색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중에서 나의 학업적 역량 파악을 통한 진로찾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치 진부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이라도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괴로운 학생이라면 읽고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역량에 대한 이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말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로를 파악하는 것이니, 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고사성어나 명언같이 그 속뜻을 파악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나의 역량, 흥미, 가치관만 잘 파악한다면, 진로를 찾아가는 여정이 절반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역량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力量)은 힘의 양이란 뜻으로, competency(경쟁력)이란 용어를 일본에서 한자어로 만든 말입니다. 이는 수치나 높낮이를 구분 가능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힘으로, 주로 기업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현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 전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과목별 핵심역량도 정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각 교과별 목표이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지필평가와 함께 수행평가라는 방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수치화하여 점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역량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치로 표현하기 애매한 부분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이에 따른 과목별 핵심역량

2015 교육과정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국어교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	자료 정보 활용	의사소통	공동체 대인관계	문화 향유	자기성찰 계발
수학교과	문제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영어교과	영어 의사소통	자기관리	공동체	지식정보 처리		
사회교과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 활용 능력	
과학교과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역사교과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정보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정체성과 상호존중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교과 핵심역량 및 해설

핵심 역량	해설
창의적 사고력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사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문제를 명료화하거나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
비판적 사고력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사물, 상황, 지식 등의 신뢰성, 정확성, 진위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정신적 능력, 논리적 일관성과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사회현상과 문제를 탐구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능력. 문제해결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타인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능력을 의미
정보 활용 능력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 평가, 활용하고 창출하는 능력,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정보의 창출과 활용에 있어서의 윤리 수준을 의미

대학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두루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지표를 연구한 자료인 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평가 지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학마다 세부적인 평가지표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크게 '학업 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중심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5개 대학 평가지표	
학업 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진로 역량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 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나의 진로를 찾는 첫걸음은 결국 학교 수업을 통해 각 교과별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에 있습니다. 지필고사에서 주로 각 교과내용의 사실 이해 정도를 파악한다면, 수행평가는 조별활동, 발표, 토론, 실험, 보고서 작성, 독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관리,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역량을 길러주려 하는 활동으로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나의 역량을 파악하자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모두 1학년에서는 공통과목 위주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는 고등학생이라면 최소한의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계열에 상관없이 길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1학년 공통과목 비교

교과(군)	공통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국어	공통국어 1, 2
수학	수학	공통수학 1, 2 (기본수학 1, 2)
영어	영어	공통영어 1, 2 (기본영어 1, 2)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한국사 1, 2
	통합사회	통합사회 1, 2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실험

수행 및 지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이 평가되어 점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성적으로, 점수화할 수 없는 부분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재되며 대입(학생부종합전형)에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치로 나온 성적은 나의 학업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해당 학년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성적통지표를 통해 나의 학업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차 지필고사 이후 통지표의 원점수와 석차(등수)를 고려하여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역량은 흥미와 가치관과는 다르게 걸음으로 드러난 양이므로, 노력을 통해 성장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통지표 중 보통교과목 및 전문교과목 성적 예시

과목명	구분	고사/영역명 (반영비율)	만점	받은 점수	합계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석차(동석차수) /수강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국어(4)	지필	1차 지필평가 (30.00%)	100.00	95.20	28.56	29			14 / 289	13.6 (8.6)
영어(4)	지필	1차 지필평가 (30.00%)	100.00	92.40	27.75	28			8 / 289	11.9 (7.5)
수학(4)	지필	1차 지필평가 (30.00%)	100.00	65.80	19.74	20			78 / 289	10.7 (9.9)
통합사회 (3)	지필	1차 지필평가 (30.00%)	100.00	77.60	23.28	23			75 / 289	14.5 (7.3)
통합과학 (3)	지필	1차 지필평가 (30.00%)	100.00	65.40	19.62	20			120 / 289	12.5 (8.4)
한국사(3)	지필	1차 지필평가 (30.00%)	100.00	82.50	24.75	25			45 / 289	11.5 (7.7)

각 지필고사의 성적통지표에서 받은 점수, 석차를 활용하면 나의 학업적 역량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받은 점수는 시험 난이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는 석차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석차만으로 개인의 학업적 역량을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석차를 보고 객관적으로 역량을 파악하여 진로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나의 학업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로, 1학년 시기에 대략 4회 정도(시·도에 따라 다름) 실시합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수능처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1학년은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만 구분), 한국사 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후 나오는 통지표에서 원점수 득점, 전국 백분위, 등급을 보고 학업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어, 탐구, 한국사는 전국백분위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적 위치는 비교가 어렵고 원점수와 등급을 활용해야 하며 국어, 수학의 경우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전국 백분위도 표시를 해 줍니다. 백분위는 높을수록 좋으므로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과목의 석차가 높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예시(일부내용)

영역	원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석차/백분위/등급				응시자수
	만점	득점	범위	득점	학급석차	학교석차	전국백분위	등급	
국어	100	75	0~200	121	5 / 22	49/289	82.11	3	350000
수학	100	68	0~200	122	4 / 22	44/289	81.28	3	350000
국어	100	86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350000
국어	50	37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350000
국어	50	43	원점수에 의한 등급					1	350000
국어	50	35	원점수에 의한 등급					2	350000

3. 역량을 통한 진로탐색

물론,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 노력 대비 성장이 더딘 경우와 빠른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파악하여 나의 학업적 역량의 과목별 차이를 분석,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선수학습(초, 중학교 학업내용) 정도와 개인적인 소질이 영향을 주는데, 선수학습 정도는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소질의 차이는 역량과 더불어 흥미의 영역까지 걸쳐져 있어 나의 학업적 노력에 비해 성장의 폭이 크지 않

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소질에 대한 파악은 향후 나의 성장정도와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계공학자가 꿈인 학생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공학과 희망 학생의 성적분석 및 학업적 노력에 대한 분석

과목명	1차 지필		2차 지필		학업에 기울인 노력
	점수	석차	점수	석차	
국어	95.20	14/289	93.50	18/289	예습, 복습 위주로 학습, 주말에 문제풀이, 시험기간에 내용정리 및 문제풀이
영어	92.40	8/289	95.50	10/289	예습, 복습 위주로 학습, 주말에 문제풀이, 시험기간에 내용정리 및 문제풀이
수학	65.80	78/289	71.70	82/289	매일 2시간 이상 노력, 주말에는 문제풀이 5시간 이상, 시험기간 가장 많은 시간 투여
통합사회	77.60	75/289	88.90	33/289	복습 위주, 시험기간에 간단한 내용정리 및 문제풀이
통합과학	65.40	120/289	55.60	145/289	물리 위주로 공부, 화학/생명/지구과학은 수업내용 정리위주
한국사	82.50	45/289	75.00	69/289	복습 위주, 시험기간에 간단한 내용정리 및 문제풀이

국어나 영어는 선수학습이 튼튼하여 예습과 복습, 주말 문제풀이, 시험기간에 최종정리 정도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와 한국사도 복습 정도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학은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성적향상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인 소질이 아쉽게도 부족한 것으로, 공학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필수적인 핵심 학업역량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통합과학은 물리과목에만 관심을 보여 생명/화학/지구과학의 흥미가 낮아 전반적인 학업 성적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계공학계열 지망이라면 물리과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학년 선택과목 물리과목에서는 뛰어난 학업성취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학계열은 화학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고, 생명과 지구과학은 계열에 꼭 필요한 과목이 아니라라도 1학년 통합과학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과학 학업성취는 오히려 2학기 지필고사에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학적인 소질이 국어, 영어, 사회계열의 소질에 비해 부족하며, 과학도 물리에만 흥미를 보이고 화학에는 흥미가 없어 학업적 역량을 발전시킬 동기가 부족하며 물리조차 아직은 역량이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계공학계열로 진로를 정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흥미도 중요하지만, 해당 계열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에 나온 가상의 학생은 언어계열 학과 진학을 위한 역량이 더 뛰어나므로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교사인 필자도 수학적 역량 및 흥미가 부족한 부분이, 인문계열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적인 소질 차이인 경우가 크기 때문에, 노력으로 극복은 가능하나 소질이 부족하데 해당 소질이 중요한 분야의 진로를 정한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하므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꼭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대학 4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초과목에 대한 학업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학업을 지속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계열별 중요과목에 대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계열별 학과와 관련 공통교과

계열	관련 학과	관련 공통교과
언어/문학	국어국문학과, 동양어학과, 서양어학과, 영어영문학과, 통번역학과 등	국어, 영어, 통합사회
인문과학	고고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사학과, 인류학과, 철학과 등	통합사회
상경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무역·유통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등	수학, 통합사회
광고언론 정보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정보미디어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등	국어, 통합사회
사회과학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통합사회
법행정	공공인재학과, 국제학과, 법학과, 보건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	통합사회
자연과학	대기과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지질학과, 천문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등	수학, 통합과학
생활과학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	수학, 통합과학
농림	농생물학과, 동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조경학과 등	수학, 통합과학
기계전자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로봇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운항학과 등	수학, 통합과학
정보컴퓨터	빅데이터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 정보보안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수학, 통합과학

계열	관련 학과	관련 공통교과
건축/환경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수학, 통합과학
화학생명	생명공학과, 섬유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재료공학과, 화장품과학과, 화학공학과 등	수학, 통합과학
보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 재활치료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등	수학, 통합과학
의약학	수의학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학, 통합과학
교육	언어교과(국어, 영어 등)교육과, 사회교과(지리, 경제, 사회 등) 교육과, 과학교과 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과,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각 교과 교육과와 관련된 과목

표의 내용을 보면 인문 및 사회계열은 주로 국어와 통합사회과목이, 자연계열은 수학과 통합과학과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합사회에서 길러야 하는 역량은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인식, 그 문제에 대한 비판적/논리적 사고와 분석,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보획득 및 활용능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문제 인식과 분석, 해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입니다. 통합사회과목이 관련 기초교과인 학과는 과목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핵심역량을 길러야 학과 진학 이후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수학과 과학교과가 중요한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및 통합과학교과에서 길러야 하는 핵심역량이 중요합니다. 수학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 및 추론역량,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발휘하는 역량, 수학적 정보를 획득·정리·처리할 수 있는 역량, 이러한 수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에 수학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중요합니다. 통합과학교과에서는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과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역량,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중요합니다. 자연계열의 모든 학과에서는 수학과 과학이 필수적으로 중요과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적과 함께 이러한 역량을 길러야 자연계열에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역사과목의 역량에 대해서는 <표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이에 따른 과목별 핵심역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8. 대학 계열별 학과와 관련기초교과>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정보연구원에서 발간한 2015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안내서를 참고하였으며, 각 대학별로 계열과 학과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열구분과

관련학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열구분과는 다르게 교과목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계열로 구분되는 교육학과의 경우 사회계열 핵심역량이 중요한 학과로, 통합사회와 관련된 핵심역량이 높은 학생이 대학에서도 좋은 학업적 성취를 나타낼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의 선택과목안내서, 대학의 학과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선택과목안내서는 대부분 각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대학의 계열(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학과소개 페이지의 교육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학과소개 페이지 각 학과의 상세 안내 내용을 보면 학과의 교육과정, 교과목안내, 전공로드맵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은 대학 1~4학년에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에 대해 나와 있으므로,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파악을 통해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과목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학과소개 페이지

광운대학교
Kwangju Women's University

광운
입학
교육
취업
연구/산학
KW-LIFE

교육 / 대학 / 한눈에 보는 대학

한눈에 보는 대학

전자정보공과대학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서 전자정보통신분야의 핵심중심 공학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고급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전자공학과
- 전자통신공학과
- 전자융합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계측공학과
- 로봇학부(정보제어전공, 지능시스템전공)
- 지능정보학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분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 전통 있는 기존의 두 소프트웨어관련 학과를 전문성 있는 두 학부로 개편하고, 전도유망한 융합소프트웨어 분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정보융합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최고의 시스템과 역량으로, 현대 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융합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정보공학부
- 소프트웨어학부
- 정보융합학부

대학

- 한눈에 보는 대학
- 전자정보공과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공과대학
- 자연과학대학
- 인문사회과학대학
- 정책법학대학
- 경영대학
- 인재·융합학부대학
- + 대학원
- + 특수대학원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학과소개 페이지

소개

교수진

교육과정

교과목안내

전공로드맵

교육과정

학년	구분	인증	1학기		인증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학년	교양필수	-	영어읽기와 쓰기	3	-	영어회화	3
			대학수학 및 연습1	3		대학수학 및 연습2	3
			공학설계입문	3		공학설계입문	3
2학년	전공필수	-	기초전자회로및실험1	3	-	기초전자회로및실험2	3
			물리전자1	3		물리전자2	3
	전공선택	-	회로이론1	3	회로이론2	3	
			전자기학1	3	전자기학2	3	
			디지털공학	3	컴퓨터구조	3	

52 진로의 길에서 나를 발견한다

4. 수업에서 발견하는 나의 진로역량

흥미는 어떤 종류의 활동 또는 사물에 끌리는 개인의 일반화된 행동 경향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경험, 유전적 원인 등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 흥미로 인한 행동 경향은 다릅니다. 이러한 흥미는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역량은 개인이 얼마나 잘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흥미가 없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역량이 뛰어나거나 발전한다면 그 과정에서 흥미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학교생활보다는 개인적인 여가활동에 흥미가 더 많으므로 단순히 넓은 범위의 흥미를 파악하는 것은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적 여가를 진로와 연결하여 성공하는 덕후들의 사례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을 통해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학업적 흥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흥미는 동기를 가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업적 흥미를 파악하고 이를 역량을 기르는데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학업적 흥미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때 외부적인 '동기'는 배제하고 학업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내가 끌리는 과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좋아서 등은 외부적인 동기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가는 줄 모른다거나, 지도를 보고 직접 그 지역을 탐색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게 즐겁다거나 하는 등 과목과 연관된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많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진로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흥미가 없다면, 진로결정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흥미는 역량만큼은 아니지만, 향상이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흘린 듯이 해당과목의 수행평가나 활동,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난 사람보다,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학업적 흥미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기계공학과 진학 희망학생의 예시에서, 수학역량도 부족하고 특히 과학에서 화학과 생명과학, 지구과학에는 흥미가 없고 물리에만 흥미를 가져 통합과학 성적이 하락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화학이라는 과목이 진로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흥미를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의 교육과정, 선택과목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한다면 해당 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어 학업적 역량을 길러야 하는 동기가 유발되며, 흥미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및 진학에 필요한 과목임에도 흥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흥미가 없다면 학업적 역량이 점점 낮아져 성적도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흥미유발을 위해서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누적하는 방법, 나의 학업적 역량의 상승이 눈에 보이도록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독해능력이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독해능력이 향상된다면 해당 과목의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해를 하기 위한 자료는 가급적 자신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국문 소설 등을 매일 10페이지씩 읽기, 게임에 나온 영문 문장 1개를 해석해보기 등 하루에 30분 내의 시간을 투자하여 해결가능한 과제를 스스로 부여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해당과목에 대한 흥미가 유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표현능력 등으로 서서히 확장시켜 나간다면 흥미가 유발되고 역량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은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현재 내 기준으로 쉬운 문제를 다양한 유형을 풀어 보고 자연스럽게 수학적 원리를 터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는 흥미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걸린다고 답지를 보거나 물어보지 말고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 흥미유발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해 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단, 수학적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면 풀이과정 해답을 보고,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통합사회는 다양한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윤리, 지리, 법, 정치, 사회문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어려우며, 외울 내용으로 생각되어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사도 비슷합니다. 역사적 맥락이나 사실이 현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단순히 암기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려 하고, 외울 내용이 너무 많아 흥미를 잃습니다. 사회 및 한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 삶에 끌어들여와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책 읽기, 여행 및 관광, 인터넷이나 뉴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때, 사회 및 역사와 관련된 맥락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사회와 역사가 친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사회 및 역사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등의 시청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학업과 연결시킨다면 흥미가 자연스럽게 유발될 것입니다.

통합과학은 수학처럼 어렵기 때문에(혹은 어려울 것 같아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은 과학을 쉽고 친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SF드라마나 영화, 소설이나 책 등은 과학에 대한 친숙함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업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말고 접하고, 이후에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접한다면 과학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것이 아닌, 친숙하게 접근가능한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후 수업시간에 배우는 다양한 과학적 내용들이 학업으로서가 아닌,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된다면 과학적 흥미가 생기게 되고 학업적 역량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과제나 장기적인 계획은 흥미유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현재 역량으로 적당히 해결가능하고 그날그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해결가능한 과제를 꾸준히 해결해 나간다면 흥미가 유발 되고, 해당 과목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계열(학과)에 필요한 역량 발전으로 연결되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업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분석해 보는 것을 통해서도 흥미를 알 수 있으며,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심화, 확장해 나간다면 흥미가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유튜브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지방대학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접하여 관련 내용에 흥미를 가져 통합사회 시간에 지역 불균형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흥미가 유발된 것입니다.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지역 불균형에 대한 사례를 토론 동아리에서 토론을 통해 다뤄볼 수도 있고, 혹은 독서동아리에서 관련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율시간에는 자율주제 탐구를 통해 지역 불균형에서 지역 소멸로 심화하여 주제탐구를 해볼 수 있으며, 관련된 내용을 진로시간에 특강을 듣거나, 발표나 보고서 등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 유발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된 각 교과내용을 수업시간에 학습한 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심화 확장하여 다뤄봄으로써 흥미가 강화되고 교과의 핵심역량도 향상되어 나의 진로를 위한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 케이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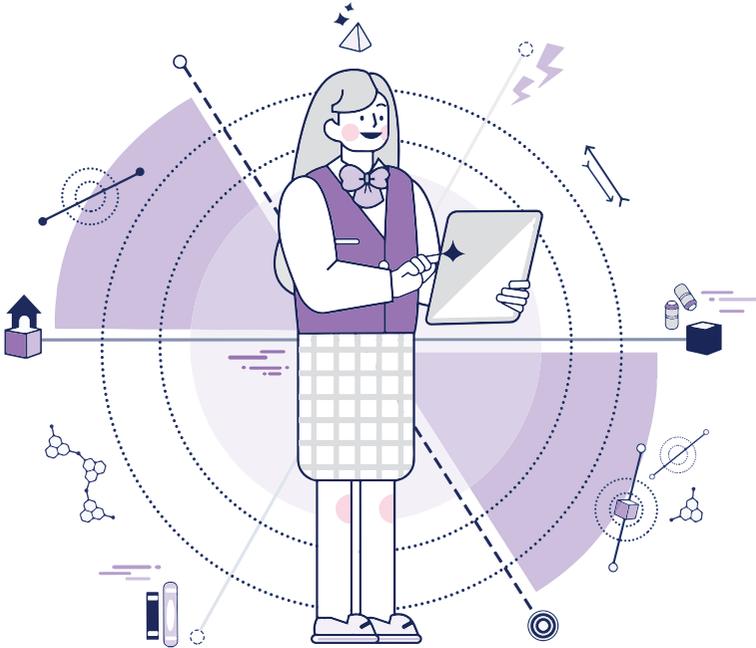
5. 나의 가치관에 대한 탐색

가치관은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관점입니다. 역량이나 흥미에 비해 가치관은 변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그 변화가 경험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등을 거치거나 지식이나 경험을 쌓으면서 세계의 인식이 커지고 자아가 발달하면서 가치관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치관을 단순히 한 가지 면만을 부각하거나 흑백논리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등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이를 투명한 단순한 가치관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가치관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은, 가치관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오로지 보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로를 탐색한다면, 바람직한 진로탐색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말 그러한 기준만이 절대적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스스로 그러한 생각에 경도되어 다양한 가치를 파악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므로 가치관에 대한 탐색 및 고민, 균형있는 가치관 정립도 진로 탐색에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나의 역량과 흥미, 가치관을 파악하여 진로 및 직업을 찾아보고, 해당 직업에 맞는 준비를 위한 전공(학과)를 찾는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와 마찬가지로 진로를 찾는 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교과수업을 통해 나의 역량을 파악하고, 흥미와 가치관에 대한 검사 및 상담을 통해 나의 직업적 흥미를 찾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직업에 대한 정보와 대학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아 3년 동안 진로 및 학업설계를 진행한다면, 대입 및 진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

단, 자신의 역량과 흥미, 가치관을 두루 잘 파악하여 세 요소를 균형 있게 녹여내어 진로를 찾아야 하며, 진로 및 직업과 대학의 계열(분야)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 하므로 결코 짧은 시간에 나의 진로 탐색이 끝나지 않음을 주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동안 틈틈이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업시간에 발견하는 나의 진로 적성과 흥미



2, 3학년 일반선택, 진로선택과목 편

양민욱

경기성남고등학교 교사
성남지역 진학지도리더교사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前 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리더교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양민욱입니다. 매년 5~6월이 되면 고1, 2 학생들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특히 고1 학생들은 3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차 지필평가를 치르고, 과목별 수행평가 실시로 정신없는 와중에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2 학생들도 과목 선택의 큰 방향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하기는 했으나, 진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진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교육과정 박람회나 교육과정 설명회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도와줄 학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도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학생의 적성 및 진로에 맞는 선택학습의 강화를 통한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인 만큼 과목 선택은 '친구따라 강남가듯이' 친한 친구와 동일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사와 지원 동기, 진로에 대한 방향성, 더 나아가 해당 전공(계열)에 대한 학업 준비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첫째, 현재 대입의 흐름에 따라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지 상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과목 선택이 대입전형에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목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은 단순히 진로(전공, 계열)만 정한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딱딱하듯이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로(전공, 계열)뿐만 아니라 각 선택 과목 및 자기 자신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셋째, 과목 선택이 실제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보고, 평가자의 관점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과목 선택의 중요성

1)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의 흐름에 따라 '과목 선택'을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및 개인별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또한 학생의 기초 소양과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입전형을 설계하는 대학 또한 교육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형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진로역량 또는 전공(계열)적합성 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학생의 진로 관심사, 이에 따른 과목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정량적 지표(내신등급 및 성취도, 수능최저학력기준 등)를 중심으로 전형이 설계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반영 교과 이수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 정도를 제한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체제와 달리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공통과목만이 9등급제인 상대평가이고, 모든 선택과목(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고교학점제에서는 융합선택과목이 새롭게 신설되었음)은 성취평가제(ABC)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평가 방식 비교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	비고
공통과목	상대평가(9등급제)	상대평가(9등급제)	
선택 과목	일반	절대평가(성취평가제ABC)	
	융합	-	고교학점제에서 신설
	진로	절대평가(성취평가제ABC)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일부 서울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내신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반영하는 '교과(내신등급) + 정성평가'의 형태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대학별로 운영 시작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히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등의 정성평가와 관련한 질문 내용을 보면, 평가 요소 중 전공적합성이나 진로역량에서 과목 선택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에서의 정성평가 반영 방식

구분	대학	전형명	전형방법	정성평가 요소
2022 대입 이후	고려대	학교추천	교과 80 + 서류 20	교과이수총실도 70 + 공동체역량 30
	동국대	학교장추천	교과 70 + 서류 30	학업역량 50 + 전공적합성 30 + 인성 20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교과 100 (공동·일반 80 + 진로 20)	학업수월성 10 + 학업총실성 10
2023 대입 이후	건국대	KU학교추천	교과 70 + 서류 30	학업역량 33.3 + 진로역량 66.7
	경희대	고교연계	교과 70 + 서류 30	학업역량 50 + 진로역량 50
	서울대	정시-지역균형	수능 60 + 교과평가 40	교과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정시-일반전형		1단계 : 수능 100(2배수) 2단계 : 1단계 80 + 교과평가 20		
2024 대입 이후	부산대	학생부교과	교과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 교과80 + 학업역량평가 20	교과이수 노력, 교과 위계성, 학업성취도
	경북대	교과우수자	교과 80 + 서류 20	교과이수 현황, 진로선택과목 이수 및 성취도
	목포대	교과일반 등	교과 90 + 서류 5 + 출결 5	학업수행역량(진로선택과목 등) 정성평가
2025 대입 이후	한양대	추천형	교과 90 + 정성평가 10	정성적 평가
	공주대	교과II전형	학생부 80 + 정성평가 20	정성적 평가

또한 고려대의 '교과 이수 총실도'나 성균관대의 학업총실성 내 '교과목 이수 현황', 부산대 '교과 이수 노력'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여부를 교과 전형에서도 핵심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평가 방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학생의 내신 성적(등급이나 성취도) '만'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계열)에 맞는 과목 이수 '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는 대학의 의중입니다. 서울대는 2023대입부터 정시모집의 지역균형전형과 일반전형에도 교과 평가를 도입해 전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평가의 3가지 평가 항목은 교과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으로 그 중 첫 번째가 '교과 이수 내용'입니다. 즉, 과목 선택은 수시모집에 국한되는 요소가 아니라 정시모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연세대의 경우 2026대입부터 정시모집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이수, 출결 등을 평가에 도입한다고 사전 예고를 함.)

결국 2022대입 이후 '내신 + 정성평가' 형태를 띠는 교과전형이 증가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므로 앞으로 교과전형에서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수능 + 정성평가' 형태를 띠는 수능 위주 전형도 추가됨에 따라 과목 선택이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 더 나아가 논술 전형 등 타 전형에도 반영될 수 있는 흐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과목선택'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대입전형의 불균형 및 학생·학부모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일부 불공정 요소가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2019.11.28.). 이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미반영하도록 조치되었고,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교사 추천서는 2021대입 이후부터, 자기소개서는 문항 수 및 글자 수 축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 단계를 거쳐 2024대입부터 폐지됨. 그리고 대입전형 4년 사전예고제로 인해 학생부 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 대입 미반영은 2024대입부터 적용됨.)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하는 서류가 학생부, 자소서, 교사 추천서에서 학생부 1개의 서류만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게 됨에 따라 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 봉사활동, 독서활동상황 등은 학생부에 기재는 되지만,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2021대입부터 고교 정보 블라인드 평가를 기존 서류평가에서 서류+면접까지 확대하고, 고교 프로필 제공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학생들의 출신 고교 유형이나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보다는 고교 3년간의 교과 이수 현황과 정규교육과정 내의 교과·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대학에서도 교과 이수 현황을 전공(계열) 관련 과목 이수 여부 확인뿐 아니라, 학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과 함께 교차 확인하면서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사와 학생만의 진로 방향과 색깔이 어떠한지를 세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의 비중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것에 발맞추어 신중하게 과목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학생부 대입 반영 항목 비교

연번	항목	평가 반영 내용	
		2023대입까지	2024대입 이후
1	인적학적사항	인적학적사항 통합 모든 자료	인적학적사항 통합 모든 자료
2	출결사항	모든 자료	모든 자료
3	수상경력		미반영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미반영	미반영 (단,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만 반영)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모든 자료	모든 자료 (단,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미반영)
6	교과학습발달상황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자료	1,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자료 (단, 영재/발명교육 미반영)
7	독서활동상황	1,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자료	미반영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학년 자료	1, 2학년 자료

2.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전공(계열)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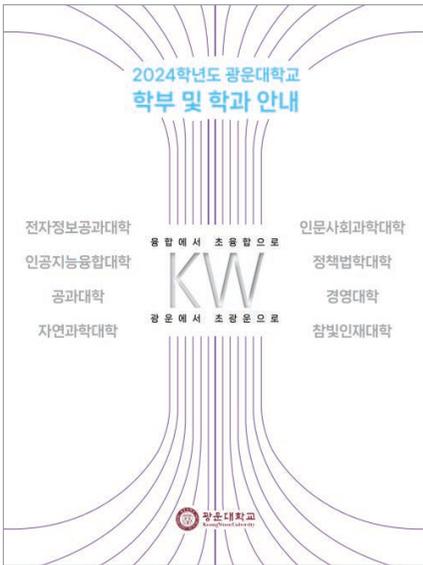
N포세대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취업,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도 해당되는 듯합니다. 현장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희망 전공이나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는 문과를 기피하고 이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大學)’은 단어 그대로 가장 큰 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계열)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이론을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전공(계열)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대학에 가야 합니다. 만약 공학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한다면 수학과 과학 교과목에 대한 이수 및 학습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니까요.’, ‘앞으로 유망하다고 알고 있어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공(계열) 학과가 무엇을 연구하는 곳이고, 각 전공(계열) 학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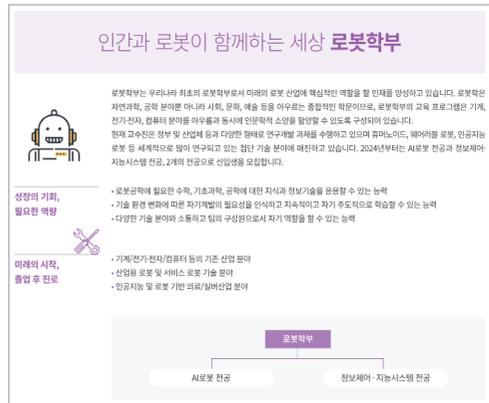
진학한다면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기초를 닦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선행해야 할 교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공(계열)과 전공 교과목,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 볼까요?

① 전공(계열) 학과에 대한 이해

우선 전공(계열) 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각 대학별 전공 가이드북이나 학부 및 학과 안내서입니다. 광운대학교에서 학부 및 학과 안내서는 매년 발간하여 신설 학과 및 개편사항과 더불어 각 학부(과)별 교육 목표 및 추구하는 바, 전공 학문의 특성과 교육 프로그램, 해당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학부 및 학과 안내 표지



로봇학부 학부 안내서

위 오른쪽 그림에서 로봇학은 '자연과학, 공학 분야뿐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학문' 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봇공학은 수학, 기초과학, 공학 관련 역량과 동시에 인문학적 소양 또한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학부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의 경우,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의 수학 과목과 더불어 물리학과 화학의 I, II 과목 수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어, 사회 과목 이수를 통해 인문학적 기본 소양 함양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학부 및 학과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방향성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②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전공(계열)의 성격과 전공 교과목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과목 선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학과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경영학과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의 경영 현상을 관찰하여 그곳에 존재하는 법칙을 밝히고, 이를 실천적 목적에 따라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관리, 경영통계, 품질관리 등을 주요 교과목으로 배웁니다. 따라서 경영학과를 포함한 상경계열은 수리적 사고 및 논리적, 분석적 사고력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계열은 사회 교과목과 더불어 수학 교과목의 이수 현황을 중요하게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학 교과에서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또는 미적분 과목까지 이수한다면 대학에서의 전공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사회 교과에서 정치와 법,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사, 세계지리 등의 과목을, 영어 과목이나 제2외국어 I·II 과목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열별 과목 선택의 예시-상경 계열

구분	1	2	3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미적분)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탐구	사회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생활과 화학 중 택 1~2
생활·교양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I·II, 한문 I·II 등 일부 포함 택 4~5		

(출처: 2023 고등학교 선택 과목 안내서, 서울시교육청교육정보연구원)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각 전공 분야에 진학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거나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출처: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내)입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으로 분류하고, 핵심 권장과목은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으로, 권장과목은 전공 분야 공부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는 학과(부)의 경우 학생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권장과목은 희망 전공 분야에 진학하기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권장과목은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리스트가 과목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마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환경과 여건이 다양하고, 학생의 진로가 변경되거나 이러한 과목을 미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또 다른 형태로 학습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별로 과목 선택에 관하여 제시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 자료와 더불어 함께 참고할만한 자료로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2022년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안내한 '자연 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통계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천문 학부	물리학전공		확률과 통계
		천문학전공		지구과학Ⅱ, 물리학Ⅱ, 확률과 통계
	화학부	화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명과학부	생명과학Ⅱ, 미적분	화학Ⅱ, 확률과 통계, 기하	
	지구환경과학부	물리학Ⅱ 또는 화학Ⅱ 또는 지구과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간호대학	-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공과대학	광역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건설환경공학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기계공학부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재료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Ⅱ, 화학Ⅱ, 확률과 통계	
	전기·정보공학부	물리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컴퓨터공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	
	화학생물공학부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화학Ⅱ 또는 생명과학Ⅱ	
	건축학과	-	미적분	
	산업공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에너지자원공학과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원자핵공학과	물리학Ⅱ, 미적분	-	
	조선해양공학과	물리학Ⅰ,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항공우주공학과	물리학Ⅱ, 미적분, 기하	지구과학Ⅱ, 확률과 통계	
	농업생명과학 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식물생산과학부		생명과학Ⅱ	화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산림과학부		-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화학Ⅱ, 생명과학Ⅱ	-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농업생명과학 대학	응용생물화학부	화학 I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 II, 확률과 통계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 II 또는 화학 II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수학교육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교육과	물리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화학교육과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물교육과	생명과학 II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지구과학교육과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화학 II, 생명과학 II	-
	의류학과	-	화학 II, 생명과학 II 또는 확률과 통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약학대학	약학과	화학 I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의과대학	의예과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유전공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 단, 인문대학, 정치외교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경영대학, 미술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치의학과 등 위에 명시되지 않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의 경우는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 모두를 제시하지 않았음.

2) 각 선택 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에 대한 이해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내가 수강해야 할 선택 과목이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어떤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당 과목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이미지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각 과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과목별 내용 흐름 및 주안점을 파악하여 과목별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에서도 해당 과목을 선택한 배경 및 이유뿐 아니라 자신만의 진로 방향성도 나타낼 수 있어 대입에서도 유리한 측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회과 과목이지만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은 내용 체계뿐만 아니라 핵심 문제와 쟁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생활과 윤리는 현대 생활의 여러 영역(생명, 사회, 과학, 문화, 평화 등)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들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데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학생들뿐 아니라 자연 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탐구해 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윤리, 환경윤리, 인공지능윤리, 문화윤리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윤리적 쟁점과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과목입니다.

반면 윤리와 사상은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 사상을 공부하고 이러한 윤리적 관점을 비교하여 우리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

이 깊이 있는 소양을 닦기에 적합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상의 이론을 비교 탐구해보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학생만의 생각과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생활과 윤리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윤리 • 불교윤리 • 도교윤리 • 의무론 • 공리주의 • 덕윤리 • 도덕 과학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생활과 실천윤리 •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생명과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 • 임신중절·자살·안락사·노사의 윤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죽음의 원리 • 생명윤리 • 사랑과 성 윤리
사회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 • 다양한 직업윤리 • 청렴의 의미 • 청렴한 삶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청렴의 윤리 • 사회 정의와 윤리 • 국가와 시민의 윤리
과학과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관(인간/동물/생명/생태중심주의)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 기후 정의 문제 • 책임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기술과 윤리 • 정보 사회와 윤리 • 자연과 윤리
문화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 이론 • 관용 • 윤리적 생대주의와 보편윤리 • 종교 간 갈등 극복을 위한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 다문화 사회의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가치 • 평화의 가치 •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 국제 질서 및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 민족 통합의 윤리 • 지구촌 평화의 윤리

윤리와 사상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인간과 윤리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특성에 대한 규정 •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중요성 •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과 우리 삶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유교 및 중국 성리학의 특징 • 조선 성리학의 특징 • 초기 불교 및 대승불교의 특징 • 도가 및 도교사상의 특징 • 한국 전통윤리사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 및 한국 윤리사상의 연원 • 인의 윤리 • 도덕적 심성 • 자비의 윤리 • 분쟁과 화합 • 무위자연의 윤리 • 한국과 동양 윤리사상의 의의
서양 윤리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주의의 윤리와 보편주의의 윤리 • 덕 있는 삶 •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발전 •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 의무론과 결과론 •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 윤리사상의 연원 • 덕 • 행복추구의 방법 • 신앙 • 도덕의 기초 • 옳고 그름의 기준 • 현대의 윤리적 삶
사회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양의 이상 사회론 • 국가의 기원과 역할에 대한 동서양 사상 • 시민적 자유와 덕성 • 근대 민주주의 • 자본주의의 특징과 비판 • 동서양의 평화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사상 • 국가 • 시민 • 민주주의 • 자본주의 • 평화

이외에도 인문 계열 성향의 학생들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각 사회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 계열 성향의 학생들은 물리학과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의 특성 및 내용 요소, 대학의 주요 전공 교과목과의 내용 연계성 등을 파악하여 과목 선택에 신중히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나(자신)에 대한 이해

앞서서 언급한 전공(계열)학과, 전공 교과목, 교육과정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선택은 사람(학생)이 하게 됩니다. 사람(학생)마다 꿈이 다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동일한 전공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희망하는 계기와 이유, 시기, 과정까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예시 글에서 나오듯이 사학과를 희망하는 이유와 목적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사학과를 가고 싶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학과를 가고 싶은데?', '사학과에 가서 어떤 공부, 연구를 하고 싶은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은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성찰해보며,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중
서울대 국사학과 재학생 인터뷰 일부



저는 고등학교 시절 막연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 속에서 조망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선택하여 공부했습니다. <동아시아사>는 하나의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제 소망인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면 좋겠다.'에 적합한 과목이었습니다. …(중략)…

여러분의 목표와 그 과정에 필요한 사회교과의 다른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경제학 이론을 한국사에서 활용하고 싶다.' '한국의 철학사 연구를 해보고 싶다.', '지리학을 활용한 한국사 연구를 해보고 싶다.' 등의 목표를 가졌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목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가 아닌 <실용 경제>나 <윤리와 사상> 또는 <한국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특성이 모두 다르기에 잘 할 수 있는 일도, 흥미를 느끼는 일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선 자신의 꿈이 무엇이고, 자신이 그리는 미래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과목 선택은 반드시 진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로의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학습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목 선택은 진로 탐색과 자신의 학습 상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과목 수업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지식과 이론이 무엇인지, 또한 기를 수 있는 역량과 내가 선택한 수업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할 공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순히 과목의 난이도나 성적의 유희리 등만 따져서 과목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실제 평가자의 관점은? (실제 과목 선택 평가 예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지원학과에 따른 과목 이수 현황에 따라 실제 정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평가자의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이 와닿지 않을까요?

1) 대학의 평가요소

광운대학교의 서류 평가 요소를 적용하여 과목 선택 정성평가의 사례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서류 종합평가 평가 요소는 크게 3가지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목 선택과 관련된 주된 평가 요소는 '진로역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에는 직접적으로, 진로 관련 분야 자기주도성과 발전가능성에는 간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지원 전공(계열) 과목 이수 양과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수강하려고 노력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과의 성취도를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거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성취도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통해 학생이 지니고 있는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여러 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인지, 지속적인지, 지적 호기심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지를 확인합니다.

광운대학교 서류 종합평가 평가요소-진로역량

진로역량

우리대학교의 '진로역량'이란 대학에서 지원 모집단위에 관련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역량과 준비도는 고교생 수준에서의 지원 전공(계열) 관련 관심과 이해 수준을 의미하여, 고교 활동과정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탐색했는지를 살펴 봅니다. 또한, 지원 전공(계열)과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학교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계획한 학업과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자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진로 관련 분야 자기주도성]

-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가?
-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진로 관련 분야 발전가능성]

-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지원 전공(계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고 확장해 나간 경험이 있는가?

[전공(계열) 관련 교과이수 노력]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기본 과목의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진로 선택과목의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목이수현황 포함)
- 창의적체험활동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대학의 평가요소를 적용한 평가 예시 (※신소재공학과 지원을 가정)

우선 철수라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아래 표와 같이 철수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과목을 선택하고, 각 과목별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신소재공학과를 지원했다고 합시다. 과연 철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신소재공학과와 전공 과목들은 물리학과 화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자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인 물리학, 화학과 더불어 수학 과목 이수 현황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철수가 물리학 I·II와 화학 I·II,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 과학, 수학 교과목의 이수 여부와 이수 단위 양, 해당 과목의 등급 및 원점수, 수강자 수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철수를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과목 평균 등급 대비 물리학과 화학, 수학 등의 성취도 수준, 학기별(학년별) 성적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철수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과제연구, 프로그래밍 등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연계하여 평가하면서 철수의 학업 수준과 진로 관련 분야에의 실제 노력 여부, 자기 주도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이 어떠한지 판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평가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철수의 경우 수학과 과학 교과 이수 단위 양이 적지 않다는 부분과 수강자 수가 타 과목에 비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소재공학과와 기초가 되는 물리학 I·II, 화학 I·II, 미적분, 기하 등의 과목 이수, 타 교과에 비해 수학, 과학, 영어 성적이 우수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수(사례)의 2, 3학년 과목 선택 현황 및 성적

2학 년	과목	1학기				2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일 반 선 택	독서					4	80/65.0	B(260)	4
	문학	4	85/69.1	B(261)	3				
	수학 I	4	93/60.7	A(261)	2				
	수학 II					4	92/58.2	A(260)	2
	확률과통계	2	90/65.0	A(261)	3	2	88/61.8	B(260)	3
	영어 I	4	92/58.3	A(261)	2				
	영어 II					4	98/57.9	A(260)	1
	물리학 I	3	85/71.4	B(92)	3	3	91/70.5	A(92)	2
	화학 I	3	81/67.2	B(87)	4	3	92/68.0	B(86)	2
	생명과학 I	3	82/68.0	B(113)	3	3	82/63.6	B(113)	3
	일본어 I	3	94/69.5	A(98)	1	3	85/70.0	B(98)	3

2학년	학기	과목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고
진 로 선 택	1	기하	2	90/76.8	A(95)	A(33.3) B(49.5) C(17.2)	
		과학과제연구	2	98/85.5	A(90)	A(44.5) B(37.1) C(18.4)	
	2	기하	2	94/75.0	A(95)	A(35.0) B(44.2) C(20.8)	
		과학과제연구	2	100/86.0	A(90)	A(46.0) B(37.2) C(16.8)	

3학년	과목	1학기				2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일반 선택	화법과 작문	3	84/64.7	B(258)	3				
	언어와 매체	3	86/66.3	B(258)	3				
	미적분	3	95/56.6	A(98)	1				
	영어 독해와 작문	3	91/59.4	A(258)	2				

3학년	학기	과목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고
진로 선택	1	물리학Ⅱ	2	88/68.8	A(75)	A(23.2) B(35.8) C(41.0)	
		화학Ⅱ	2	91/75.3	A(80)	A(25.7) B(33.8) C(40.5)	
		프로그래밍	3	85/65.0	A(46)	A(22.0) B(25.6) C(52.4)	

마무리하며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지, 과목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살펴보고, 고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과목 선택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목 선택은 의무가 아닌 우리 학생들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에 있어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하고, 분명한 기준에 맞춰 선택하고 학습에 충실한 학생을 대학이 원하는 것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전공을 알고, 선택 과목을 안다면 누구보다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을 것이고, 3년 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 매일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공유하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는 수업 사례



김태진

새솔고등학교 교사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대외협력국 간사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前 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리더교사

1. 들어가는 말

저는 지리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변화만 살펴보더라도 2018년부터 도입된 2015 개정교육과정 및 2025년 전면 시행이 예정된 고교학점제까지 교육과정의 개편이 거듭될수록 지리와 같은 선택과목의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각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지정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대입에 반영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여차하면 '전략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교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학생들에게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운영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학교의 사정이 다르고,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부족하지만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 수업 소개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3학년 학생들의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교 4년차, 올해 3학년이 2회 졸업생이 되는 신설에 가까운 학교여서 3학년 학생 수가 100명 뿐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가 모두 개설되어 있는데, 한국지리는 2학년에서 확률과 통계,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세계사와 함께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과목을 선택합니다. 세계지리는 3학년에서 기하, 경제수학, 영어권 문화,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동아시아사,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와 함께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3개 과목을 선택합니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일반 선택 과목이면서 수능 선택 과목이기도 하기에 교과성적에서도 모의고사를 비롯한 수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보통 수준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행지리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여행지리는 3학년에서 미적분, 사회문제탐구, 프로그래밍과 함께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합니다. 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며 여행지리와 사회문제탐구를 함께 고르는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와는 다르게 여행지리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 대신 성취도(A,B,C)가 산출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여도 수능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교과를 선택할 때 학생들은 이름을 보고 흥미를 느껴 선택하지만, 피부로 체감되는 등급 변화도, 노력에 따른 수능에서의 활용도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학습 열의가 떨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름의 덕을 가장 많이 보기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보기도 하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진로 선택 과목인 여행지리아말로 등급도 수능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기에는 가장 좋은 과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게 유난히 더 어렵고, 고민되는 과목이 바로 여행지리이고 오늘 소개할 수업 사례는 여행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 영역	교과 (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일반	진로	전문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물리학 I /화학 I /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사회·문화/생활과 윤리/세계사/ 한국지리	[택4]	5	6				3	3			
			5	6				3	3			
			5	6				3	3			
			5	6				3	3			
	미적분/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프로그래밍	[택2]	2/5		6						3	3
			2/5		6						3	3
	기하/경제 수학/영어권 문화/ 윤리와 사상/정치와 법/ 세계지리 /동아시아/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 지구과학 II	[택3]	5	6							3	3
			5	6							3	3
			5	6							3	3

3. 자율과정

고교학점제가 단계별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자율과정이 대두되었습니다. 자율과정이란 수업량 유연화에 따라 기존 1회당 50분, 17회로 구성된 수업량 중 1회를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 학습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활동을 바탕으로 개별 교과와 연계되는 수업이라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융합 혹은 체험형 수업이라 특정 과목과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수업 형태를 융합형, 주제 심화형,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한 학생당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2차 지필 시험과 방학 사이의 기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단순한 여행지리 수업이 아닌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이 가능하고, 아직 명확하게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도 융합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행은 그 자체로도 주제가 될 수 있으며 특정 테마로 여행을 기획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여행을 바탕으로 타 교과 선생님과 융합 수업을 기획하였는데, 소개할 수업은 음악 교과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삶: 음악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해외 여행계획 세워보기'로 정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단계별 적용 - 수업량 유연화

	단계적 이행		전면 적용
	'22	'22 ~ '24 ('23 : 1학년 / '24 1,2학년)	'25 ~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1)회	50분 17(16+1)회	50분 16회
총 이수학점(이수시간)	204단위(2,890시간)	192학점(2,720시간)	192학점(2,560시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비중	교과 180 창체 24	교과 174 창체 18	교과 174 창체 18

4. 수업 목표 설정

수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과목별 핵심역량 및 과목별 성취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업하고 있는 교과의 진도를 고려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까지 생각해야 하니 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계획한 수업은

아직 여행지리를 접하지 못한 1,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 통합사회, 한국지리는 수강했거나, 수강 중인 학생들이기에 중간 수준은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각각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범위가 넓기도 하고, 너무나 거창하고 막연하여 어쩌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생각까지 들게끔 합니다.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각 과목에서 제시하는 과목별 핵심역량을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아래 자료집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이 함께 기획한 '교과세특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교과세특 기재 예시 도움 자료'입니다. 선생님들의 교과세특 기재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자료이지만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그에 따른 평가 과제,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수업 목표를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매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세특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교과세특 기재 예시 도움 자료집

위 자료집에서는 교과별로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과의 교과 핵심역량으로는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핵심역량은 아래 제시해드리는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사회과의 교과 핵심역량을 연결한 것은 제 생각이며, 반드시 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사회과 핵심 역량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	사회과 교과 핵심 역량	내용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력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자기관리 역량	비판적 사고력	사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정보 활용 능력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자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한 수업의 핵심 주제는 여행계획을 실제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매우 많습니다. 목적지를 정해야 하며, 정해진 목적지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정하고, 여행지에서 묵을 숙소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보를 탐색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과의 일정 조율 및 의견교환도 필수이며,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 방안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계획 수립 활동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사회과 핵심역량의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음악과 핵심역량은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과목별 성취기준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는 수업은 음악과 지리의 융합형 수업이기 때문에 지리와 음악 모두의 과목별 성취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여행지리의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영역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여행 방식,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

여행에 필요한 지식·기능·가치·태도, 안전한 여행과 관련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여지01-01] 책이나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행 사례를 통해 다양한 여행의 의미와 종류를 찾아보고 여행이 개인 삶과 세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12여지01-02]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여행의 일정, 경로, 방식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함으로써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를 이해한다.
- [12여지01-03] 다양한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행지 및 여행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조직한다.
- [12여지01-04]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행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행 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탐구하고 이를 몇몇 사례 지역에 적용한다.

여행지리 성취기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여행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주제가 음악가와 관련된 여행지를 중심으로 여행계획을 세워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생활화하여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확장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함께 수업을 기획한 음악 선생님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음악의 감상 영역을 수업 목표로 설정하고 성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음악 성취기준

지금까지 살펴본 2015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음악과 핵심역량 및 여행지리, 음악 성취기준, 학생들의 과목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설정한 수업 목표는 첫째,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통해 흥미 있는 음악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가와 관련된 관광지를 찾아 실제 여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둘째, '음악과와 사회과의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5. 구체적인 수업 구성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을 구성합니다. 자율과정에서 담당한 수업은 4차시입니다. 이 4차시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는데 가장 먼저 정한 것은 음악 선생님과 수업 시간 배분입니다. 수업 시간을 정하는 것은 수업의 주제 및 활동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회의 결과 여행지리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을 융합한 형태이기에 제가 세 시간, 음악 선생님께서 한 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수업의 목표와 주제 등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의 배분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활동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업이 조금 더 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행지리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현재 3학년 학생들의 경험에 비추어 수업의 주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하지만, 학생들의 여행은 수동적이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정한 목적지와 일정,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짜보기는 커녕 어떻게 목적지를 정해야 하는지, 일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비행기의 가격은 얼마인지, 어느 수준의 숙소에서 묵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여행을 보며 자신의 여행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타인의 여행을 소개하는 자료를 감상하는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여행을 기획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자신의 계획을 짤 수 있기에 이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행의 주제를 음악가와 관련된 여행지를 여행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음악 선생님께서는 우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를 선정하고, 그 음악가의 주요 활동지와 활동지에서 완성한 작품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수업 주제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듣고 자신이 선택한 음악가와 관련된 여행을 실제로 계획해보는 실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수업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업의 목표와 시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의 주제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구성 및 주제

차시	관련 교과	수업 주제
1	여행지리	음악가와 함께하는 여행 '세계 테마 기행-음악을 사랑한 도시, 빈' 내가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와 방법은?
2	여행지리	여행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3	음악	음악가의 일생, 작품, 그들의 발자취 - 쇼팽, 슈베르트, 베토벤
4	여행지리 음악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하는 '음악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여행'

수업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구체적 수업을 구상합니다. 주제에 맞는 활동을 찾아 자료를 탐색하고 활동지를 제작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참신한 소재를 탐색합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타인의 여행을 보며 자신의 여행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 여행을 주제로 한 영상을 일정 시간 시청하도록 수업을 구상했고, 관련 영상을 탐색하였습니다. 마침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 EBS의 세계 테마 기행에 음악가들과 관련된 여행지를 소개한 '음악을 사랑한 도시, 빈'이라는 회차가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시청용 동영상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음악이 발전한 오스트리아의 빈을 여행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음악 여행에 대해 소개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활동지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와 여행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용 동영상 - EBS 세계 테마 기행

첫 번째 수업이 시청했던 동영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여행을 감상하고 여행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수업은 여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분하여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보급된 오늘날에는 정보를 구하지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정보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여행에 관해서는 어린이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은 50분입니다. 여행계획 수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의 주요 활동지는 유럽입니다. 따라서 항공권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우선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고려할 것이 숙박입니다. 호텔을 찾고 예약하는 방법도 안내해야 합니다. 지도 보는 법, 관광지 와 식당, 교통수단을 알아보는 법, 이것들을 활용하여 동선을 구상하는 법,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법, 환전하는 법 등 50분 안에 이것들을 다 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르고 골라 학생들과 함께 다음 세 가지 활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여행의 일정을 짜기 위해 지도를 보고 동선을 구성하는 법, 예산을 짜는 법, 여행지에서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선정한 활동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지도 제작합니다.



1. 여행 일정 짜기 (최대 6박 일정)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지역							
할 일 (To Do)	□	□	□	□	□	□	□
	□	□	□	□	□	□	□

2. 예산 짜기

① 항공료

- 가격 : 총 _____ 원 (왕복 항공료를 합산하여 기재)
- 가는 항공편 : <출발> _____ → <경유> _____ → <도착> _____
- 오는 항공편 : <출발> _____ → <경유> _____ → <도착> _____

② 숙박비 (최대 6박)

- 가격 : 총 _____ 원
- 지역, 숙소명, 세부 가격

지역	DAY	숙소명	가격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③ 입장료 및 식비

- 입장료 : 총 _____ 원 (여행에서 입장료를 지불하는 관광지의 총 입장료를 합산하여 기재)
- 식비 : 평균 _____ 원 (한 끼당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기재)

3. 여행지에서 특별히 보거나 하고 싶은 것

- _____

- _____

- _____

두 번째 수업 활동지

세 번째 수업은 음악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음악 선생님께서도 많은 음악가를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으셨겠지만 50분이라는 시간상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음악가인 쇼팽, 슈베르트, 베토벤을 선정하고 해당 음악가의 일생, 활동 국가, 주요 작품, 유명한 에피소드 등을 안내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셨습니다. 수업을 듣고 학생들은 음악가와 연관된 관광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음악가를 선정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제작했습니다. 활동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음악가에 대해 알아보기

내가 선택한 음악가는?

-

그 음악가를 선택한 이유는?

-

-

음악가의 주요 작품은?

-

-

-

음악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있는 대로 적어주세요.

세 번째 수업 활동지

네 번째 시간은 학생들의 실습 시간입니다. 활동지를 한번 더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세 번의 수업을 바탕으로 실제 계획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결과물이 나오고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음악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기념품도 준비합니다. 여행 과정에서 다이나믹하거나 여행 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와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미니 접착 메모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스티커와 미니 접착 메모지

6. 수업 운영 및 결과물

이제 실현입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자율과정의 특성상 선착순(?)에 밀려 신청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걱정되었습니다. 제목과 설명을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들도 생각과 다를 경우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이 쓰였는데, 첫 시간 동영상 시청부터 마지막 실제 여행계획을 세우는 활동까지 무사히 마치고 학생들을 위한 기념품 배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성실하게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실제 수업은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소소한 질문이 있었고,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항공권을 알아보고 가상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음악가와 관련된 관광지를 찾으며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 제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네 번째 수업까지 모두 끝이 나고 학생들의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두 가지 결과물을 제출해야 했는데, 하나는 학교 차원에서 작성하는 자율과정 자기보고서이며, 다른 하나는 수업 차원에서 작성하는 여행 계획서

입니다. 자율과정 자기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 인상깊은 활동, 프로그램을 마치며 느낀 마음 등을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학생이 작성한 사례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2023 학교자율과정 자기보고서

학번		이름	
프로그램명	코라 영의 삼! 음악가의 반가위를 따라온 해외 여행 계획 세우기.		
담당 선생님	김태진, 강 선생님	활동 장소	3학년 5반
본인의 진로희망 또는 분야	A/O.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	국제가 음악인이라는 음악과 역량을 배워 경험을 더 많은 함의감을 더 할수있는 용이 많은거! 라는 생각에 선택하게되었다. 어떤 노래 어떤 해외 여행계획이 좋을지, 어떤 나라와 도시 상안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을지, 그곳에서의 식사는 어떤 음식이 좋을지 있을지 같은 계획안이 선택되기로 했다.		
가장 인상깊은 활동 (해당 활동에 본인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였는지 서술하세요)	BBC 프롬, 브리튼스 크로이카 와 같은 음악 음악이 있었는데 음악 밖에 연주도 들었는데. 많은 밤에도 제니 두산은 나타내며 약한대로 듣기요 잠깐 귀머거리고 눈물을 흘리었다. 인상깊은 노래도 듣고 연주도 해보고 스튜디오를 생중계도 보았는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같이 들었는데 생각은 들었어. 듣는 노래와 음악 해외 여행. 어떤일이든 꼭 생각했고 더 생각되고 있었다. 더 많은 노래와 노래를 찾아와 아티스트를 찾아와서 내와야 했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본인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세요)	음악에 관심이 있어 직접해보는 코라를 재미있게 들었던것 같아 50%의 음악이 되도록 많이 일러서야 나중에 꼭 무대에 가보고 싶어한다 음악은 찾아보고 여러 언어나 문화를 찾아보니 각자의 분위기를 통해서 들을수있는 다양한 음악 색깔들이 생각났다. 아티스트들도 잘 보았고 직접하면 믿어다더 듣 거 듣는 기분에도 좋다. 음악의 조식은 더 찾아보고 알아보고 싶어졌다.		
프로그램 및 진행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X good!		

학교자율과정 자기보고서

위 사례의 학생은 미용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언뜻 보기에 음악도, 여행도 미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학생은 활동에서 미용에 대한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인 클래식 음악이 여행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나중에 꼭 해당 도시로 여행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에서 교사로서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라 특정 과목과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수업은 음악과 여행지리의 융합형 수업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학생에 대한 기록은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기록의 양입니다. 학생별로 세 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했기 때문에 1500바이트까지 기재가 가능한 분량을 온전히 혼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당당 교사별로 500바이트로 기재 분량이 한정되었고, 한정된 분량 안에서 최대한 학생의 배움 과정 및 발전 과정을 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기재 분량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사들끼리의 합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 작성했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예시입니다. 제가 잘 기재해서 자신감 있게 제시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수업-평가의 과정을 고려한 기록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

자율과정 '코로나 이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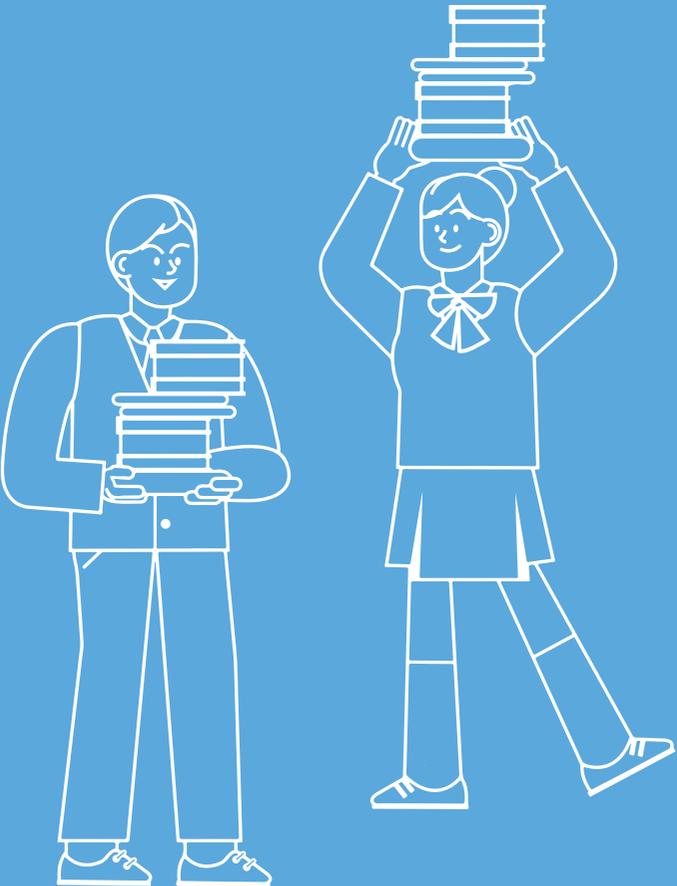
'음악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해외여행 계획 세워보기'에 참여함, 폴란드 출신 음악가인 쇼팽을 선택한 후 바르샤바 곳곳에 쇼팽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잘 정리함. 쇼팽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6박 7일 일정의 여행 계획을 작성함. 바르샤바 곳곳에 있는 쇼팽과 관련된 관광지의 동선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항공권,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확인하여 계획을 완성하는 모습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함.

음악과 여행지리 관련 활동지의 기록을 모두 반영하려 노력하였고, 실제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 학생의 배움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여행 일정을 계획한 부분, 항공권,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조사한 부분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과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정보 활용 능력과 연계하여 기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8.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학교 자율과정을 활용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수업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평소 수업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저처럼 자율과정을 활용해서 타 교과와의 융합형 수업을 구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수업이 완성도가 높고 훌륭한 수업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게 만드는 수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많은 수업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업 사례가 공유 된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수업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 하는
학생과 중합전형 이야기



03

진로진학을 위한 소통

책 속에서 내가 가야 할 진로를 찾아본다

└ 독서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방법

교내 활동을 통해 진로의 문을 두드린다

└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방법

나에게 맞는 전공·학과를 탐색하는 방법들



책 속에서 내가 가야 할 진로를 찾아본다



독서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방법

박정준

서울오산고등학교 교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1. '진로 독서'란?

'진로 독서'는 독서를 통해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길이자, 학과 및 직업 등 외부 세계를 탐색하며 진로에 대한 정보를 쌓아 나가는 도구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진로 독서는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자신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학은 수험생의 학업 역량, 전공에 관한 탐구,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 가치관 등을 학생의 독서 활동을 통해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로 독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한 진로 탐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한 탐색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진로 독서를 위한 도서 탐색 방법

진로 독서를 위한 도서를 탐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학 홈페이지 탐방 등을 통해 도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성구석을 살펴봄과 대학에는 어떤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각 학과에서는 인재를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 길러내는지 확인해 보면 진로 검사와 더불어 자기 진로를 확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학과(전공) 가이드북을 통해, 혹은 대학/전공별 추천도서 목록 제공을 통해 학과별로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하고 있어서 전공 관련 도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학과명과 추천 도서를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 추천

도서', '기계공학과 추천 도서' 등으로 검색하면 3년간 읽기에 충분한 양의 도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검색한 도서를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서 목차와 내용을 확인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압축하고, 직접 서점에 나가 읽어 보면서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1) '얕어 읽기'와 '깊이 읽기'를 통한 도서 탐색

'진로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점차 심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관심을 둔 분야에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가장 적합한 독서 방법은 '얕어 읽기'와 '깊이 읽기'입니다.

'얕어 읽기'는 하나의 갈래나 체계를 세우면서 책을 읽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얕어 읽기는 몇 개의 관심 분야를 정하고, 거기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몇 권 골라 단계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즉 어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 책과 관련된 다른 책을 읽거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책을 읽는 방식이 바로 '얕어 읽기' 독서법입니다. 이런 책 읽기 방법은 같은 계열의 독서가 거듭되면서 막연하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정보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거나 자기 관점을 세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진로 독서'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얕어 읽기' 독서법을 기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읽기'는 책을 읽다가 어려운 개념이나 의문이 생기는 관점들을 정리하고, 독서 중이나 독서 후에 그와 관련한 책을 읽으며 의미를 심화·확장해 나가는 독서법입니다. '깊이 읽기'를 할 때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어려운 개념어를 찾아보거나 특정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읽는 등 정독을 통해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해당 교과목 선생님께 질문하며 독서를 이어 가는 방법도 '깊이 읽기'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얕어 읽기와 깊이 읽기의 독서 방법을 고려하며 도서를 탐색한다면 같은 주제군에 해당하는 다양한 도서를 탐색하거나, 깊이 있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도서를 탐색하는 등 독서 목적이나 독서 방법에 따른 적절한 도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얕어 읽기'를 잘하기 위한 Tip!

-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검색하면 '이 책을 산 분들이 함께 구매한 상품'이 나와요. 그 목록을 눈여겨보며 얕어 읽을 책을 찾아보세요.
-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서 다른 책을 언급하거나, 인용한 구절에 달린 주석과 색인 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음에 읽을 책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죠.
- 읽은 책의 저자가 쓴 다른 책들을 찾아 읽는 것도 좋아요.

'깊이 읽기'를 잘하기 위한 Tip!

-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개념을 정리하며 읽고, 꼭 그 부분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 특정 지식이 나타난 배경이나 원리 등을 추가로 검색해 읽고, 기록해 보세요.
- 의문이 생기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의 저자가 쓴 책과 비교하며 읽으면 좋아요.

2) 학년별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진로 독서’는 넓게 시작해서 점점 좁혀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너무 좁게 주제를 잡아 읽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분자공학’에 관심을 둔 학생이라면 화학공학 전반을 다룬 책을 먼저 읽고, 점차 고분자공학 쪽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복지학 전반을 다룬 책을 1학년 때 읽고, 점차 다문화와 관련된 책으로 관심을 좁히면서 수준은 높여 가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 있는 분야가 속한 교과목에서 다루는 지식을 담은 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년별 독서 로드 맵을 위한 도서 선택 방법

모집단위	전공	전공·교양	교양
1학년 (전공·교양 및 교양 중심)	진로 분야의 기초 서적 탐독	전공 분야의 위인 평전 탐독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도서
2학년 (전공 및 전공·교양 중심)	진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심화 도서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술한 도서 탐독	전공 분야의 고전 탐독 및 리더십, 인성,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도서 탐독
3학년 (전공 중심)	세부 전공 분야에 초점을 맞춘 심화 도서		전공 분야의 고전 탐독

3. 진로 독서 -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독서는 인간의 정신 활동 가운데 가장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독서를 생활화하지 않은 학생은 책을 읽어도, 의미를 구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독서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심화 배경지식을 쌓기를 원한다’는 가정 아래, 가장 추천하는 독서법은 쉽고 재미있는 책을 ‘다독(多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읽기 훈련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많이 읽으라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은 책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다가 오히려 책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독서는 ‘정독(精讀)’하면서 깊이 있게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독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은 엮어 읽기를 통한 다독으로 진로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어떤 한 분야의 주제를 정해서 관련 서적을 골라야 하며, 최대한 얇고 쉬운 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엮어 읽기'로 다독하면서 시작하는 진로 독서

한문학자 정민이 쓴 『스승의 옥편』(마음산책, 2007)에서는 정약용의 사례를 들어 '구슬을 꿰는 독서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내일 저 책을 읽더라도, 저마다 따로 놀아 하나의 체계로 꿰어지지 않으면 책에서 얻은 지식은 잠시의 기쁨만 남기고 사라지고 만다.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는데, 읽은 책의 내용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오늘 읽은 책이 내일 읽는 책과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생각하는 힘을 키워 줄 수 있으려면, 갈래를 나누고 체계를 세워 지식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채워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읽기만 해서는 도무지 독서의 보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마구잡이 독서는 읽지 않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저 읽은 책의 목록만 추가하는 의미 없는 독서에 머물고 만다.

갈래와 체계를 세우는 일을 다산¹은 색깔별로 구슬 꿰는 일에 견주었다. 먼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 분야를 정한다. 그리고 나서 그 분야에서 정평 있는 내 수준에 알맞은 책을 몇 권 골라, 단계적으로 읽어 나간다.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과 관련하여 다시 다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소개한 또 다른 책을 읽는 방식의 독서다. 독서가 거듭되는 동안, 처음에 막연하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각 정보들 사이의 우열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1학년 때는 쉽고 재미있는 책을 다독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독을 통해 독서량을 늘려 가면, 책 읽기에 즐거움을 느끼며 심화 독서 단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정약용'의 호.

'읽어 읽기'로 다독하자

1. 관심 분야 선정(진로 전공을 아직 못 정했다면 관심 이슈로 시작해 봐요)
2.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여러 권 고르기
3. 고른 책 읽기(인용, 각주 체크는 필수)
4.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 찾아보기(저자가 쓴 다른 책이나 참고 문헌에서 힌트를 얻어도 좋아요)
5. 새로 고른 책 읽기

'읽어 읽기'를 위한 독서 Tip!

1. 목차에 따라 요약해 보세요.
 - 핵심어 찾기: 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정리하고, 그 개념을 완벽히 정리하면 좋아요.
 - 문단별 주제문 찾기: 각 문단에서 쓰인 문장을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 가며 읽으면 주제문을 찾기 쉬워요.
 - 접속사 표시하며 읽기
2. 목차에 따라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항목마다 느낀 점 적기
 - 자기 생각이나 반론 정리하기

진로 독서에서 한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목차에 따라' 내용을 요약해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성취하거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책을 읽을 때는, 자기가 읽은 내용 가운데 중요 내용을 정리하며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표에서 설명한 독서 팁은 수능 국어의 독서(비문학) 영역을 공부할 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에 따라 요약할 때는 제목과 목차, 대주제와 소주제 등의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 키워드 아래 나타난 핵심어와 주제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할 때에는 공감하는 문장이나 주제문에 밑줄을 긋거나, 더 알고 싶은 주제를 메모하며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깊이 읽기'를 통해 정독하는 심화하는 진로 독서

읽어 읽기 단계를 충실히 거쳤다면, 한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으며 독서의 즐거움 또한 맛볼 수 있습니다. 읽어 읽기 단계 이후에는 관련 분야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독서법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관련 자료를 찾고, 배경지식을 쌓는 '깊이 읽기' 독서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스승의 옥편』에서 말하는 '깊이 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을 읽다가 어느 하나가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 나가는 독서다.

조제(祖祭)는 고대에 먼 길을 떠날 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비는 제사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 조(祖)'를 쓸까? 이것이 궁금할 것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길제사 지낼 조'란 뜻이 나오고, '먼 길을 떠날 때 행로 신(行路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란 뜻풀이가 나와 있다. 그래도 왜 할아버지 조 자를 쓰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더 문헌을 뒤져 보면, 아득한 옛날 황제²의 아들 누조(累祖)가 여행을 좋아하다가 길에서 죽었다는 기록과 만나게 된다. 조(祖)란 바로 이 누조의 귀신을 위로하기 위해 생긴 제사임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

여기서 의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냈을까? 이것은 역대 여러 종류의 제사 지내는 방법을 적은 책을 참고하여 알아볼 수가 있다. 알아보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목차를 세워 차례대로 옮겨 적으면, 조제에 관한 아주 훌륭한 소책자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조제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약옹이 말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방법론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링크를 통해 계속 의미를 파고들어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책 한 권을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는 자료 조사를 통해 의미를 확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엮어 읽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단순히 정리했다면, 깊이 읽기는 관련 자료를 찾으며 그 의미를 파고들어 되새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독이 필요합니다.

'깊이 읽기'로 정독하자!

1. 관심 분야 선정
2. 책 한 권을 정독하며 핵심 내용 요약하기
3. 의미 확장을 위한 주제 정하기(좀 더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나 관심을 끄는 내용에 표시해 보세요)
4. 자료 조사로 의미 확장하기
5. 확장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책을 추가로 찾아보고 읽기

'깊이 읽기'를 위한 독서 Tip!

1. 엮어 읽기처럼 목차에 따라 요약해 보세요.
2. 심화할 배경지식을 탐색해 보세요.
 -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고 자료 찾기
 - 관심을 끄는 내용에 대한 전공 지식 알아보기

최근에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추가 자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지속해서 탐색한 내용을 목차별 요약에 포함하는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대로 진행된다면 어느새 읽기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깊이 읽기의 독서습관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자세히 반영되면, 지식 탐구 과정과 노력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두 방식 이외에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읽기 방법을 진로 독서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략적 독서법은 'SQ3R'이다. 'SQ3R' 독서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黃帝, 중국 전설상의 제왕.

SQ3R 독서법

Survey (훑어보기)	목차 또는 각 장의 제목이나 주요 주제, 머리말 등을 보면서 책의 전반적 내용을 살피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
Question (질문하기)	독서에 들어가기 전, 각 장의 제목과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단계 (목차나 소주제를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 보면 좋다.)
Reading (자세히 읽기)	글의 내용을 차분히 읽으면서 질문에 답을 찾는 단계 (내용을 정리하며 읽으면 좋다.)
Recite (기술하기)	책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든 질문에 간략히 답하는 단계
Review (다시 보기)	글 전체를 다시 훑어보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단계 (각 장의 요약문이나 핵심 용어를 점검하면 좋다.)

진로독서를 할 때는 요약하고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요약하기보다는 컴퓨터를 켜 놓거나 노트를 앞에 두고 독서를 하면서 좋은 글귀를 옮겨 적고, 장별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썬어 읽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약한 내용 뒤에 추가로 조사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깊이 읽기'의 요약본까지 완성됩니다. 이런 썬어 읽기와 깊이 읽기 독서법으로 1학년 때는 '다독'하고, 2학년부턴 '정독'하면 진로 분야에 대한 심화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독서 기록, 어떻게 해야 할까?

'전공 심화를 위한 독서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양서적과 달리 전공 도서는 구어체보다 문어체로 기록된 책이 대부분이고,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학문 분야의 심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구조로, 목차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전공 심화를 위한 책 읽기는 '목차에 따른 핵심 내용 요약'과 '자기 생각 정리'가 중요합니다. 전공 심화를 위한 독서 기록도 책 읽기 방식과 마찬가지로, 목차에 따라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전공 심화를 위한 독서 기록은 '책을 읽게 된 동기 → 책 내용 정리 → 진로·전공 분야 연관성 → 썬어 읽기와 깊이 읽기'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공 도서를 읽고, 정리해볼 수 있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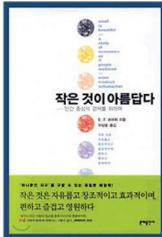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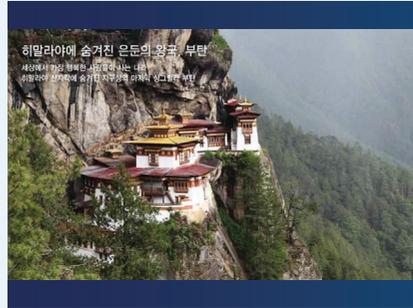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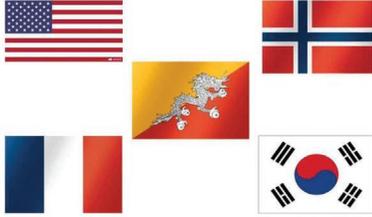
전공 심화를 위한 독서기록장

제목·저자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관심 분야와 관련지어 서술)		
책 내용 정리하기	목차별 개념어	
	목차별 주제문	
	새로 알게 된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진로·전공 분야와 연결하기	자신의 진로·전공 분야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	
읽어 읽고 깊이 읽기	심화 지식을 위한 추가 자료 검색	
	심화 지식을 위한 추가 도서 검색	
	비슷한 주제의 다른 전공 서적	
	책 속에 나온 참고 문헌	

이 양식은 책을 읽으면서 목차별 개념어와 주제문을 메모해 가며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공 심화 독서는 읽기와 쓰기를 병행해야 더욱 효율적이므로 읽으면서 기록한 뒤, 양식에 기재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양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책을 읽으며 인상적으로 다가오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검색한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면 읽어 읽기와 깊이 읽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급 특색활동 독서 발표 사례

행복도 1위인 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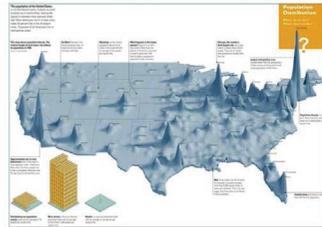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에른스트 슈마허



자본주의 문제점 1 - 양극화



자본주의 문제점 2 - 환경훼손



자본주의 문제점 3 - 실업



슈마허의 대안경제

- 1 제3세계에서의 중간기술 적용
- 2 불교경제학 (최소 소비, 최대 행복)
- 3 분절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적용사례

TOMS

One for One

One for One



One pair of TOMS glasses



Sight for one person

HOW?



이 자료는 인간 중심의 경제를 제안하는 E. F.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읽은 학생이 학급 특색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한 독서기록의 방법이 반영된 좋은 발표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경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양극화, 환경 오염, 실업 등을 키워드로 슈마허가 책 속에서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저자가 주장한 대안 경제의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배운 대안 경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제 기업의 운영 사례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조사해 자신의 희망 전공 분야에 대한 추가 자료조사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저자의 다른 저작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엮어 읽기와 깊이 읽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하여 읽기', '개념 이해, 더 궁금한 내용, 실제 사례 등을 추가 자료조사하며 읽기'의 과정을 양식에 잘 정리하며 독서활동을 전개하면 면접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독서 활동의 확장 - 독서, 토론, 논술

지금까지는 '전공 분야의 책을 어떻게 읽고 기록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진로 독서 활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진로 분야의 정보를 찾고, 심화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타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질문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화 배경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전공 도서를 읽는 진로 독서는 토론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이 생략된 '독서'는 힘에 겨울 뿐만 아니라, 오독의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정조³는 독서와 토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론만 중요시해서도 안 되고 독서만 중요시해서도 안 된다. 토론과 독서는 수레의 바퀴나 새의 날개와 같아서 한 가지만 버려도 학문을 할 수 없다."

독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토론은 심화 독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치열하게 다투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생기는 배경지식은 혼자서 지식을 습득하는 독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로 독서는 토론의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토론이 혼자 읽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식을 함께 탐구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독서 → 토론 → 논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3 조선 제22대 왕, 재위 기간 1776~1800.

1) 진로 독서를 위한 '독서 토론' 학급 특색활동

친구들과 진로 독서를 함께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공 분야별 독서토론을 학급특색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활동보다 전공분야가 비슷한 학생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 몰랐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독서 토론을 진행할 때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로 각자 다른 책을 읽은 뒤 토론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같은 책을 읽고 쟁점에 따라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별로 다른 책을 읽은 뒤 각자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토론한다면, 하나의 주제 안에서 폭넓은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쟁점에 따라 토론하는 방식은 한 권의 책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다양한 관점을 공유 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어서 책 한 권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방식을 병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공분야별 독서 토론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별 독서 토론 활동의 운영 절차

1. 전공 분야별 독서 토론 참가 학생 모집
2. 쉬운 전공 교양 도서 → 수준 높은 전공 도서 순으로
3. 월별 독서 계획 세우기(주제별 다른 책 읽기, 또는 함께 읽기를 위한 도서 정하기)
4. 토론하기
5. 개인별 서평 수정·보완하여 최종 서평 작성하기

독서	도서 선정	동아리에서 정한 주제에 따라 도서 탐색 후 선정하기
	책 읽기	독서록 작성하며 읽기, 논제 만들기, 토론 과정 숙지하기
토론	토론하기	CEDA, 찬반 등 다양한 형태로 토론하기
논술	주제별 글쓰기	추가 자료 조사 / 독서록 수정·보완하여 주제별 글쓰기

6. 독서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독서활동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줍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활동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나 전공 분야에 대한 심화 배경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교과에서 생긴 궁금증을 독서를 통해 해결하게 되면 자기주도적인 탐구능력, 후속 활동의

계획 및 실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과와 연계한 독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독서활동상황란은 대입 정보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과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도서명뿐만 아니라 독서활동 내용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활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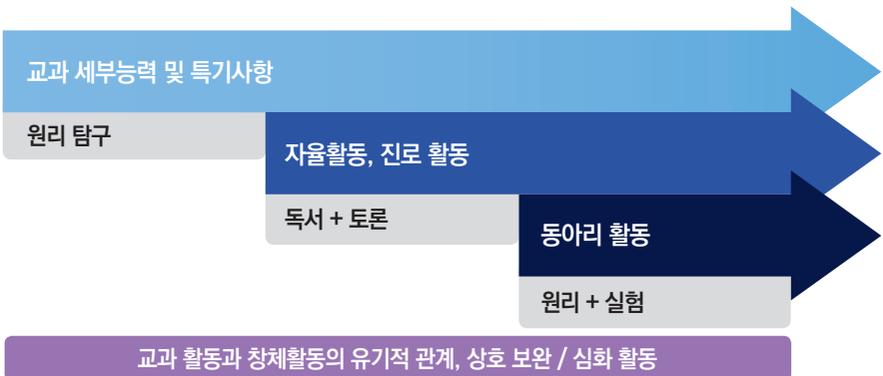


독서 : 창체/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독서 프로그램 개발

- 학생부 기재요령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의 교육활동을 전개 시 교과세특,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입력 가능(도서명, 활동 내용 등)
- 독서 활동에 대한 대학평가
 - 독서활동이 활동 내용까지 제시될 때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깊이가 보일 수 있음
- 학생부 창체 및 세특에 독서활동 기록 적극 반영 - 면접에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독서활동으로 마무리

* 학생부 기반 면접 및 구술고사 연구·서울대학교

활용 정보(건수)	평가 항목(건수)
독서(39)	전공 역량(18), 전공 적합성(19), 지원 동기(1), 학업 태도(1)
창체 자율(2)	전공 적합성(1), 학업 태도(1)
창체 동아리(14)	인성(3), 전공 역량(5), 학업 태도(6)
창체 봉사(3)	인성(3)
창체 진로(6)	전공 적합성(1), 지원 동기(5)
교과 세특(3)	학업 능력(3)
수상(1)	전공 적합성(1)
자기소개서(18)	인성(3), 전공 역량(12), 전공 적합성(1), 지원 동기(1), 학업 능력(1)
합계(86)	인성(9), 전공 역량(35), 전공 적합성(23), 지원 동기(7), 학업 능력(4), 학업 태도(8)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되고, 대입 미반영 요소(수상,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독서활동상황)가 증가한 상황에서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부각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바뀌어 학급특색활동이나 진로,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도서명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면접에서 전공 역량과 전공적합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진정성 있게 탐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교과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원리와 이를 바탕으로 기록된 진로활동 특기사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활동

사회문화시간에 법과 관련한 판례분석활동을 한 것을 토대로 사회과학 주제탐구세미나에 참여해 전공분야 판례분석활동을 하며 최우수 발표자로 선정되었음. 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판례를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법의 목적과 문화재보호법의 다양한 사례를 추가조사해가며 헌법의 기본 원리와 연결하여 국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이후 실제 지역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직접 정책제안하는 등 실천능력이 돋보임.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등 뛰어난 사고력과 과제집착력을 발휘한 점이 인상적이었음.

탐구의 과정과 탐구 이후 다양한 학술자료를 참고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였으며 특히 '2022 문화재 관련 법령(배승현)', '한국문화재 수난사(이규열)' 등의 단행본 도서를 읽고 추가 발표를 진행하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뛰어난 학생임.

- ☑ 교과를 기반으로 한 자원 희망 모집단위 관련 탐구활동
- ☑ 활동의 자기주도성, 확장성, 학생 개인의 특성과 역량이 드러남
- ☑ 학업역량 및 진로 역량 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교과에 기반한 탐구활동을 하여 교과에서 배운 호기심을 연계, 확장, 심화시켜 나가며 학생들이 꿈을 키워 나가기를 지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통해 진로의 문을 두드린다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방법

정무웅

송곡고등학교 교사
서울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3권역 대표
서울 동부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단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을 대비 매우 낮은 직무 만족도를 보입니다. 전공과 직업과의 일치도가 낮고(졸업생의 30%) 대졸자의 실업률도 높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도 변화되고 있으며, 진로교육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¹ 진로교육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학교교육은 큰 범주 안에서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해마다 '진로교육 내실화 진로 계획안'과 '진로교육을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는 진로직업지원센터를 두어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자아의 확립이라는 생애 설계로서의 궁극적인 진로교육 목표 아래 개인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 자기이해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사회적인 특성 등 특정한 환경, 특정한 경험이나 여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줍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 목표 달성 과정에서 대학 입시라는 눈앞의 현실적인 목표가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진로교육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1학년은 대략 9월~10월경 앞으로 자신이 이수할 교과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추어 계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과정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구호와 결을 같이 하므로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의 일체화가 필요합니다. 즉, 학생이 선택한 교과와 모집단위(계열)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이 드러나야 합니다.²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자신의 진로 개발을 위한 탐색과 호기심 탐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는 크게 교과(일반교과, 전문교과1, 전문교과2)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진로활동 또는 진로교육은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활동들은 넓은 의미에서 진로활동이 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역시 진로활동과 연계됩니다. 매우 광범위한 범위이니 여기에서는 교과 외 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본교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도 각기 자신의 진로활동으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계획 수립

각 학교의 진로 전담교사는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을 총괄하며 진로교육 운영 계획 수립·시행, '진로와 직업'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학교급에 따른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진학지도, 포트폴리오 지도뿐만 아니라, 교내외 진로탐색 활동을

2 「2021년 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공동연구」, 〈NEW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기획·운영해야 합니다.³ 각급 학교에서는 이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활동을 수립합니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진로교육 추진 체계, 중점 과제,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별 진로 연간 계획, 진로 진학상담 계획, 진로체험 안전지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아래에서는 시기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교사와 학생의 역할과 유의점을 구분하여 각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이때 각급 학교별로 운영 여건이 다르므로 각 학교 또는 학생 개인별로 주어진 여건에 알맞은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계획 예시

시기	프로그램명	내용
3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2023 진로교육 안내
4월	진로심리검사	표준화 심리검사
5월	진로캠프 아카데미	직업인체험의 날 직업인 초청 특강
6월,10월	교과선택 집중상담 기간	교과 선택 집중 상담
7월	학과체험 아카데미	학과 체험의 날 대학 전공멘토단 초청 학과 체험 특강
10월	진로진학코칭 아카데미	대학입시, 교과선택,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3월~12월	메이커 스페이스 체험	지역 메이커 스페이스와 동아리 연계 진로 체험
	진로학업설계지원단	교과선택, 진로탐구 담임교사 연수
	진로서포터즈	진로봉사활동 운영
	학업설계	학업설계 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3 2023학년도 서울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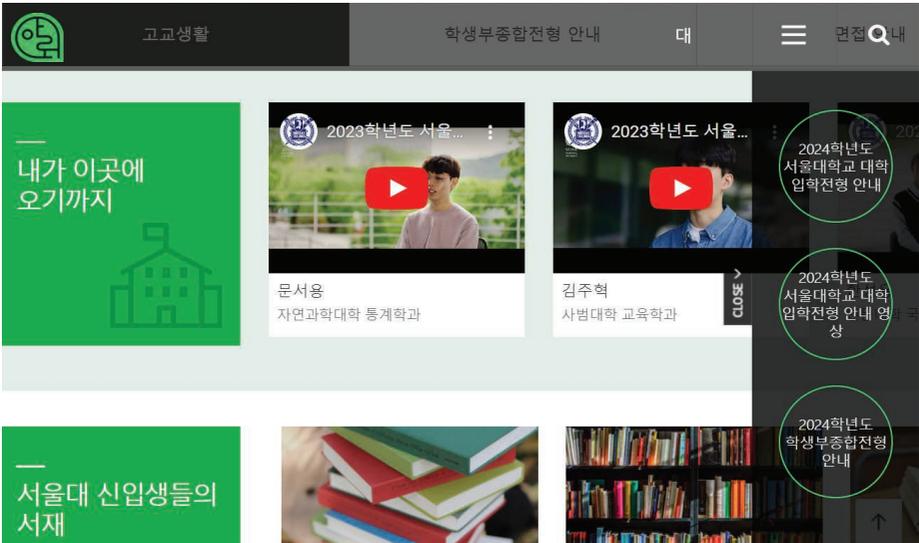
진로교육 연간 계획 예시(1학년)

학기	월	시수	활동 주제	활동 내용	
1 학 기	3	4	연간활동 안내 및 학교생활 다짐	창·체 진로활동 연간계획 안내 및 학교생활 다짐 활동	
			학교생활 및 진로탐구 안내	리로스쿨 활용법, 아로리, 메이저 맵 소개 및 활동 안내	
			학생 개별 기초조사 학생 개별 기초조사	관심분야, 희망직업, 흥미, 취미,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등 기초 조사	
	4	4	흥미와 강점 찾기	흥미와 강점 찾기	
			진로탐구 1	진로독서, 체험, 탐색, 탐구, 토론 활동 안내	
			안전교육	직업체험 안전교육	
	5	4	창의융합 사고	창의융합사고의 이해와 적용	
			자아탐색	커리어넷 회원가입 및 나이스 연계	
			자아탐색	직업흥미검사(K), 직업적성검사	
			자아탐색	직업가치관검사, 진로개발역량검사	
	6	4	자아탐색	심리검사 종합 결과분석 및 이해하기	
			진로탐구	진로독서, 체험, 탐색, 탐구, 토론 활동	
			학업설계	교과계열 탐색검사	
	7	3	학업설계	교육과정 편성 이해하기	
			학업설계	진로활동 자기평가서 작성	
			학업설계	선택과목 모의선택	
	2 학 기	8	2	창의 융합 발표	창의 융합 사례 발표
				창의 융합 발표	
9		4	창업과 직업의 이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창직 이해하기	
			4차산업 미래 직업	4차산업 미래 직업 알아보기	
			희망 직업 직능 이해	희망 직업 직능 알아보기	
10		4	진로탐구	진로독서, 체험, 탐색, 탐구, 토론 활동	
			진로진학 프로그램	'어디가' 진로진학 프로그램 활동 안내	
			진학 희망 대학과 학과 탐색	진학 희망 대학 학과 탐색하기	
			진학정보탐색	진학정보탐색	
11		4	과목이수 점검	선택 과목 점검하기	
			진학 계획	진학계획 수립 및 확인	
			학과 탐색	메이저맵 활용 대학별 학과 특징 비교분석하기	
12		4	대입정보 정리하기	대입정보 정리하기	
			진로탐구	진로독서, 체험, 탐색, 탐구, 토론 활동	
			진로탐구	진로 활동 자기평가서 작성	
			창업 창직 발표	창업 창직 사례 발표	
1		1	창업 창직 발표	창업 창직 사례 발표	
			학교 생활 돌아보기	학교 생활 다짐 확인을 통한 돌아보기	
		1	3개년 학업설계 점검	3개년 학업설계 점검하기	

3. 학교생활 안내

학기 초에는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중학교 시기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점차 진로활동 방법,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활동, 학업 계획 수립, 진로탐구활동 등 시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진로교육 연간 계획 예시(1학년)⁴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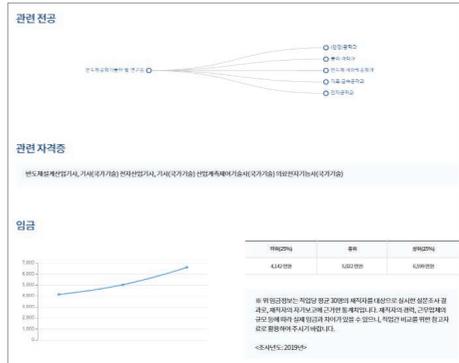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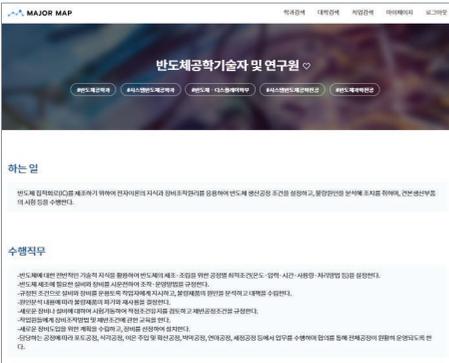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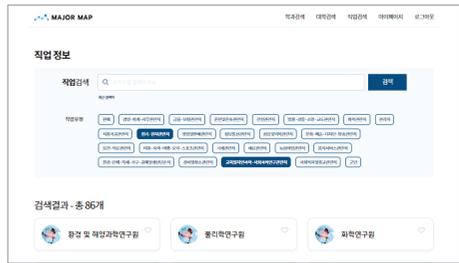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아로리”의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서울대 신입생들의 서재’,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등을 소개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제시해 준다.
- 적극적인 진로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내 개념으로 접근 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도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서울대학교라는 학교의 네임밸류보다 바람직한 학교 생활 안내에 중점을 둔다.
- 독서활동을 통한 호기심 해결 및 다양한 경험 충족, 폭넓은 지식 습득, 심화 연계 탐구 활동 등 독서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해 안내한다.

⁴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아로리”, snuarori.snu.ac.kr/



-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의 창을 통해 합격생들의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 소신 있는 고등학교 생활, 진로활동 등의 과정을 살펴봄과 자신의 고등학교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 학교에서의 안내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틈틈이 접속하여 살펴본다. 이때 자신의 관심분야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인터뷰 영상과 추천 도서, 학생부종합 전형 안내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자신의 학교생활을 계획한다.
- 인터뷰 속의 경험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진로활동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점차 자신만의 진로활동을 찾아가는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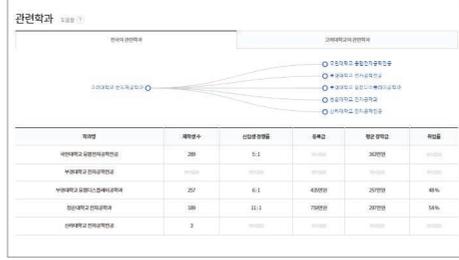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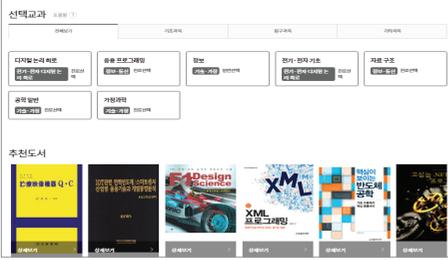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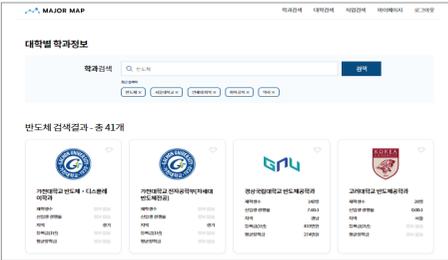
진로 자료 활용 방법 예시-메이저 맵⁵⁾



(1) 직업검색

관심분야의 '직업 검색'을 통해 하는 일, 수행 직무, 직업을 가지는 방법, 관련 전공, 임금, 직업만족도, 일자리 전망, 업무수행능력, 지식, 업무환경, 성격, 흥미, 직업가치관, 업무활동 중요도, 업무활동 수준, 학력 분포, 전공학과 분포, 관련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메이저 맵”, www.majormap.net/



(2) 학과검색

관심 학과 검색을 통해 관련 학과와 대학의 대략적인 정보를 살펴본 후 관심 대학의 학과를 클릭하면 해당 대학에서 개설된 학과의 특성을 키워드를 통해 직관적으로 대학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 키워드를 통해 자율 주제 탐구활동의 대략적인 주제를 선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과와 관련한 선택교과와 최근 추천도서 정보까지 제공해 주고 있어 학업계획 수립 및 진로 독서 활동을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심분야의 진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 '직업검색'을 통해 진로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과검색', '학교검색'의 순서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 학과에 대한 정보 수집 후 전공 관련 추천 선택교과와 추천 도서 검색 방법을 안내한다.
- 사실 사이트로 자료 제시에 조심스럽긴 하나 무료 버전만으로도 자세하고 다양한 진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무료 버전의 자료 검색법과 활용법을 안내한다.
- 1학년 시기에는 '직업 검색'과 '학과 검색'을 중심으로 정보를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 정보를 찾아본 후, 심리검사 결과에서 제시된 추천 직업도 찾아본다.
- 관심 학과의 대학별 교육과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며 자신의 진로 목표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다.
- 검색한 정보 또는 추천 독서활동은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심화 탐구활동으로 발전시키고 해당 탐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과정은 자기 평가서 양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교과 또는 담임 선생님께 제출한다.
- 평소 관심 있던 직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추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찾아보고 자신의 진로 적합도를 고민해 본다.
- 탐구활동은 교과 담당 선생님께 탐구 계획, 과정 등을 소개한 후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아로리” 및 “메이저 맵”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진로정보 수집 정보 사이트 활용방법 안내 후에는 개별적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하도록 2~3차시의 시간을 주고 해당 시간 동안 학생에 대한 이해와 개별 지도를 위해 학생 개인의 기초정보를 요약하여 정리해둡니다. 이때는 수합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류 제출 방식이 아닌 질의응답 형식이 좋습니다. 기초 정보 수합 정리 이후 학생들의 관심분야가 달라질 때는 개별 상담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메이저 맵 활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이순남 교사의 글)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4.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심리검사는 주로 학생 개인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진로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 능력, 행동의 준비 정도, 직업에 대한 지식 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미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 목표가 결정이 되었고 해당 직업 또는 진로와 비슷하거나 일치한다면 적합도 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효능감을 확인하여 보다 자신감 있게 진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자기이해를 통해 적합한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로활동에 있어 개인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검사 - '워크넷', '커리어넷',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⁶

The screenshot shows the WorkNet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홈', '회원관리', '찾아보기', '내정보', '내진로', '내기록', '내평가', '내문의', '내알림'. Below this, there are several assessment tool cards:

- 직업심리검사 (총 20종)**: Includes tests like '성격검열', '성향검열', '성숙도검사', '성숙도검사'.
- 세상의 모든 직업**: A section for exploring various professions.
- 2분 만에 OK! 진로성숙도검사**: A quick test for career maturity.
- 진로성숙도검사**: A test to assess career readiness.
- 직업준비도검사**: A test to assess job preparation.
- 대개의 다양한 학과**: A section for exploring various university majors.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Career Guidance Center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진로정보',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진로 · 진학의 꿈, 서울진' and '진로심리검사'.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service cards:

- 공저사항**: A list of publications and services.
- 진로심리검사**: A section for career psychology tests.
- 진로와 진학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A statement about providing solutions to common questions.

6 “워크넷”, www.work.go.kr/, “커리어넷”, www.career.go.kr/,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



교사

- 사설 심리검사도 나쁘지 않지만 “커리어넷”, “워크넷”, “서울진로진학정보 센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온라인 무료 표준화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 기존 “커리어넷”의 결과는 나이스와 연동하여 학생, 학부모, 진로교사, 담임 교사가 상담자료로 수시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4세대 나이스로 변경된 이후에는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비슷하거나 같은 심리검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시기의 검사 결과는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주지시키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검사도 중요하지만 결과지를 해석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중 또는 개별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심리검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 심리검사, 결과 확인까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스마트 패드와 같은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생

- 심리검사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3가지 항목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사에 임한다.
-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자신 진로를 성찰한다.
- 평소 관심 있는 분야와 검사를 통한 추천 직업에 대한 직업 정보, 학과 정보, 진로 동영상 등을 찾아보고 찾아본 내용을 정리한다.
- 심리검사 결과 추천 직업과의 일치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 목표가 확고할 경우, 자신이 정한 진로 목표를 선택하고 진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자세를 갖는다.
- 자신의 우수한 역량을 개발하고 부족한 역량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때 부족한 역량이 본인의 진로 목표와 연관성이 적고 주로 선천적이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신체적 역량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 직업인 특강, 직업체험

학생들이 관심 갖는 현장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직업 탐색을 통해 진로 의사 결정 및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져봅니다. 이러한 진로 체험을 통해 진로 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직업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로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교는 사람 남고로 공학에 비해 학생들의 희망 진로가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편이며 진로교사의 강사풀, 동창회, 지역의 기관,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초청하였고 부득이 섭외가 어려운 경우 지역 진로직업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강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1, 2학년 학생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초청강사의 사전 요구가 없는 한 경험의 다양성을 위하여 한 학생당 두 개의 직업인과 만날 수 있으며 2년간 최대 네 개의 전문 직업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교실 및 특별실을 활용하여 23개 강의실을 확보하여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직업체험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시·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진로직업박람회를 통해 직업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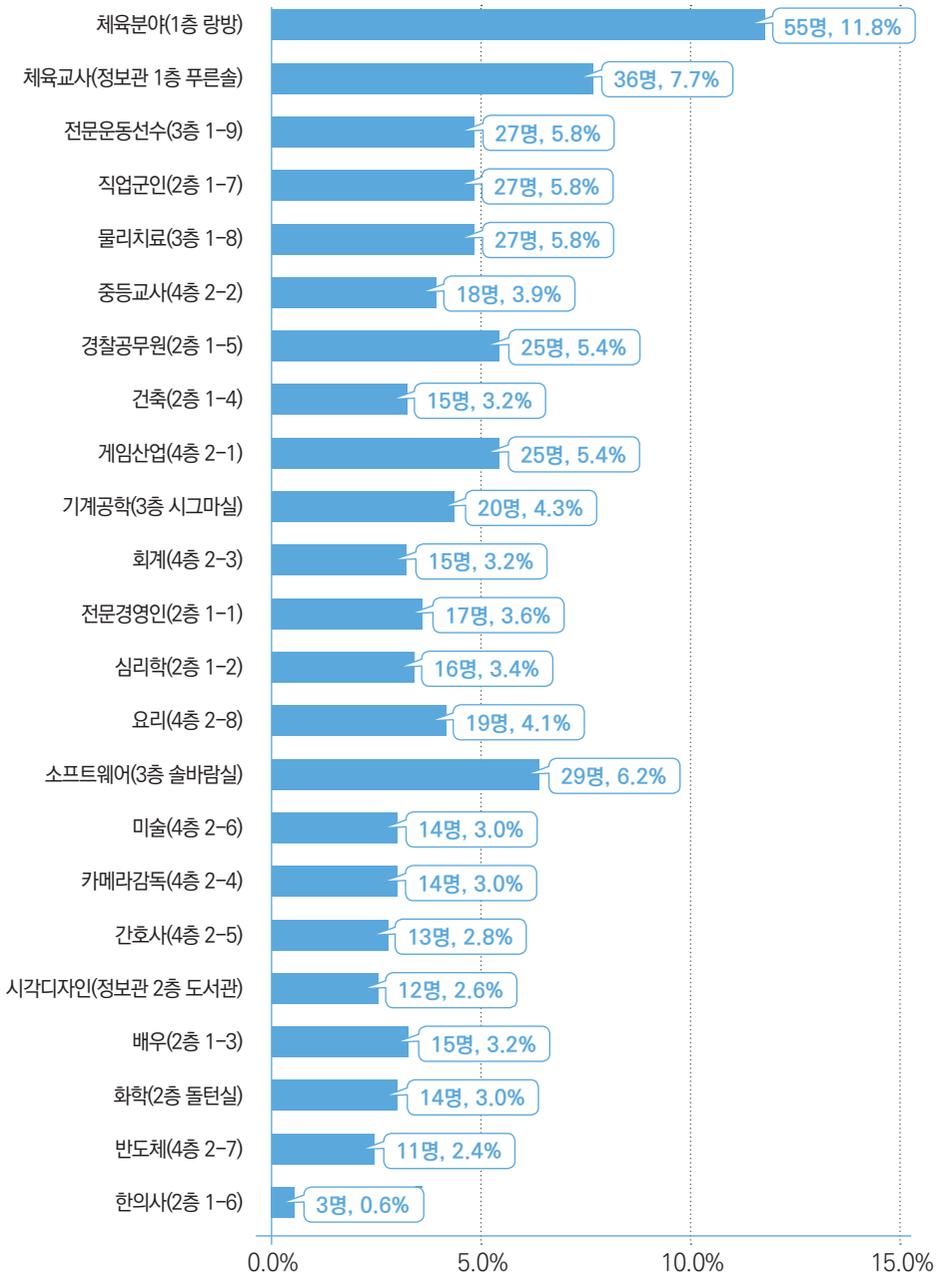


2023학년도 송곡고등학교 1, 2학년 직업체험 진로아카데미 초청강사

번호	분 야	강 사
1	체육관련진로	○○○ 교수(한림대 체육학과)
2	체육교사	○○○ 교수(前고등학교 체육교사, 국립한경대, 동문)
3	전문운동선수	○○○ 교수(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
4	직업군인	○○○ 대령(대령예편, 동문)
5	물리치료사	○○○ 교수(강원대 물리치료학과)
6	중등교사	○○○ 장학사(경기도 ○○교육지원청, 동문)
7	경찰공무원	○○○ 경정(서울지방경찰청 ○○과, 동문)
8	건축	○○○ 건축/인테리어디자이너(중랑진로직업지원센터)
9	게임산업	○○○ 부사장((주)에센코퍼레이션)
10	기계공학	○○○ 교수(강원대 기계공학전공)
11	회계사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동문)
12	전문경영인	○○○ 대표((前)한국동서발전 사장 (現)○○글로벌(주) 대표, 동문)
13	심리학, 철학	○○○ 교수(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중랑진로직업지원센터)
14	요리사	○○○ 교사(서울○○고등학교 외식조리과, 동문)
15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	○○○ 개발자(KAIST 전산학부 졸업, 주)○○서버 개발자, 동문)
16	미술	○○○ 교수(강원대 미술학과)
17	카메라감독	○○○ 감독(○○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30회 후쿠오카 아시아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18	간호사	○○○ 간호사(케이아이안전보건기술원 산업 간호사)
19	시각디자이너	○○○ 감독(○○미술감독,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
20	배우	○○○ 배우(매니지먼트 에스 소속, 연극, 영화배우)
21	화학	○○○ 교수(광운대 화학과)
22	반도체	○○○ 교수(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23	한의사	○○○ 한의사(○한의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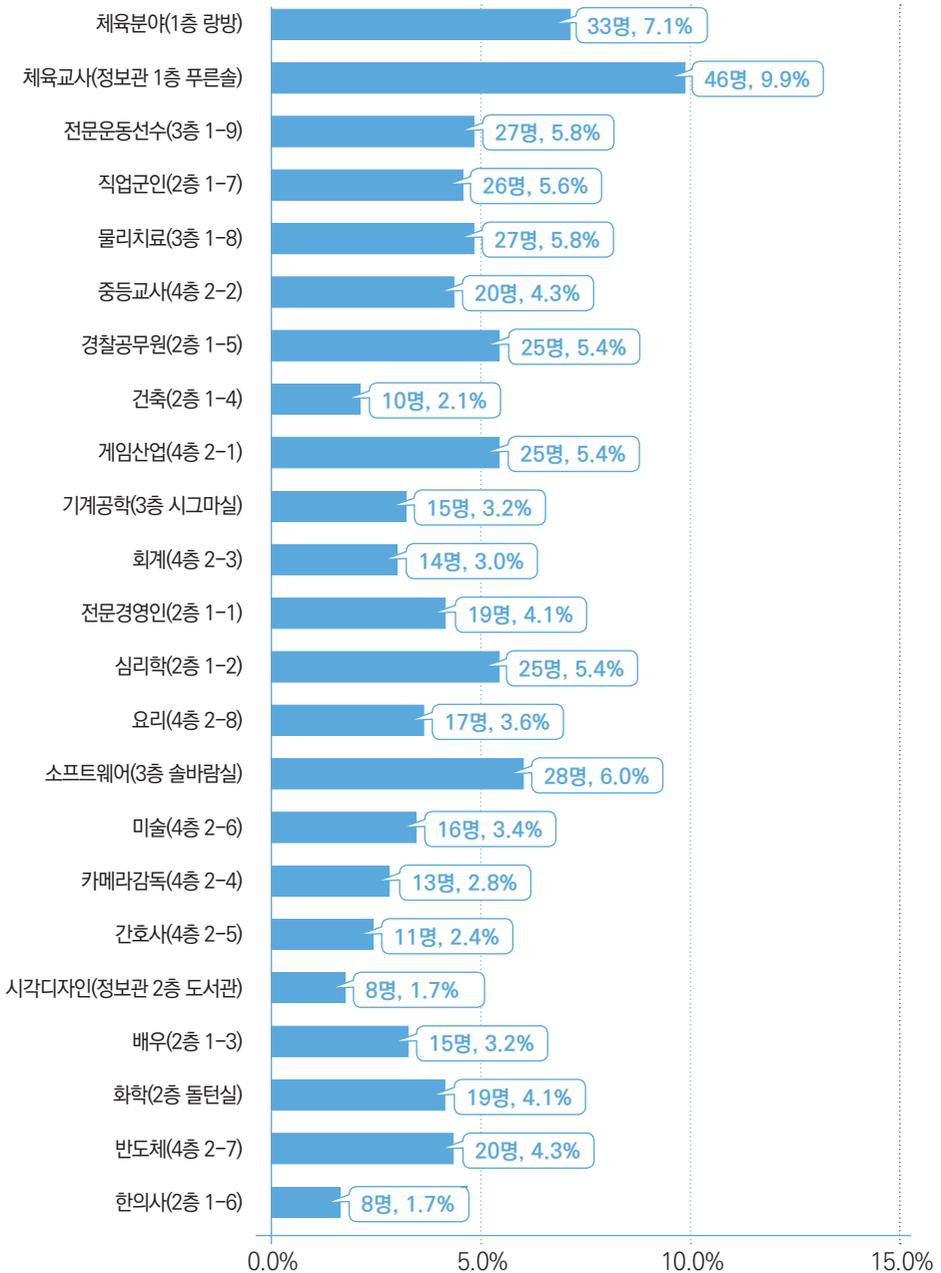
2023학년도 송곡고등학교 1, 2학년 직업체험 진로아카데미 수강신청 통계

1. 5교시 강좌 선택(교사별 1개 강좌 필수)



2023학년도 송곡고등학교 1, 2학년 직업체험 진로아카데미 수강신청 통계

2. 6교시 강좌 선택(교사별 1개 강좌 필수)





교사

- 오프라인 활동에 앞서 1차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직업인 강의를 제공하고 온라인 영상과 관련된 직업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사전에 학생들의 관심분야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가장 원하는 직업을 순서대로 선별하여 진로교사의 강사풀, 동문회, 대학, 지역 기관, 관할 진로직업지원 센터 등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초빙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인다.
-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한다.
- 다양한 온라인 직업인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인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강의실을 확보하고 강의실 수에 맞추어 전문 강사를 초청한다.
- 강사는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인으로 학생들과 대화가 잘 통하는 직업인을 선별하여 초청한다.
- 학생이 원하는 모든 강좌를 개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인수 신청 직업인의 경우 개설된 강좌 중에서 선택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관련 분야의 온라인 강좌나 유튜브, 관련 독서활동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관심분야가 미정인 학생들을 위하여 심리검사 결과 추천 직업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지도하거나 다양한 진로 경험과 깊은 고민을 해본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관련 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줄 수 있음을 고지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

- 온라인 직업인 강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관련 분야의 연계 탐구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내용을 정리한다.
- 직접 대면하는 오프라인 직업인 강의에서는 학생이 사전에 정리한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한다.
- 직업인과의 만남 이후 자신의 진로 목표가 확고해졌다면 구체적인 진로 준비 단계로 들어가 학업역량과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을 심화한다.
-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지자체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체험과 상담을 경험한다.
- 다양한 관심분야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고 자신의 진로목표가 확고하다면 한 분야의 직업인을 집중에서 만나는 것도 좋다.
-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한다.

6. 전공 안내와 체험

각 대학의 학과 또는 전공별 교육목표와 방향은 각기 다릅니다. 학생은 대학의 네임밸류보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이수한 이후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대학별 전공의 차이는 무엇 인지 등 관심 대학별로 학과의 특징을 찾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초청 강의, 교수 초청 강의,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한 전공 소개, 시·도 교육청 주관 전공 체험, 대학 주관 전공체험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본교에서는 직업인 체험과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학생들이 관심 갖는 20개의 다양한 전공분야의 대학생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전공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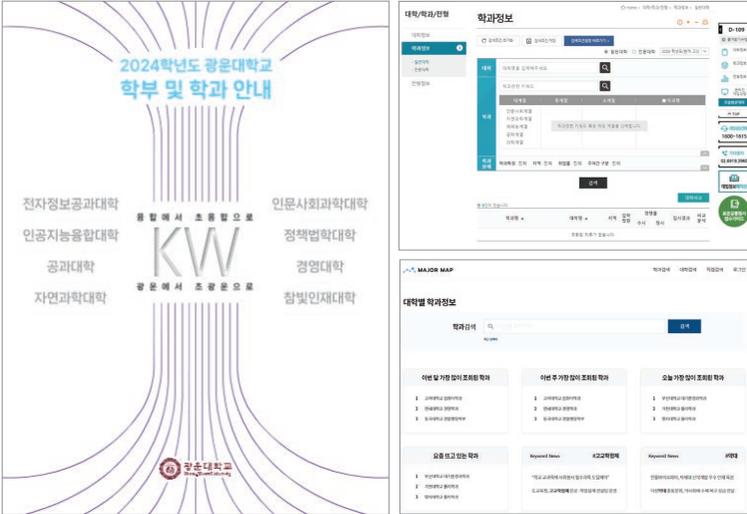
대학생 초청 학과안내



“메이저 맵”, “대입정보포털어디가”⁷⁾, 대학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학과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광운 대학교처럼 각 대학의 입학처에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 안내서를 다운받아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7 “대입정보포털어디가”, www.adiga.kr/

정보검색을 통한 학과정보 수집



시·도 교육청 주최 진로직업 박람회, 대학 주최 학과체험



교육청 또는 대학에서 주최하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주최하는 경우 주로 방학기간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심 대학의 입학처나 학교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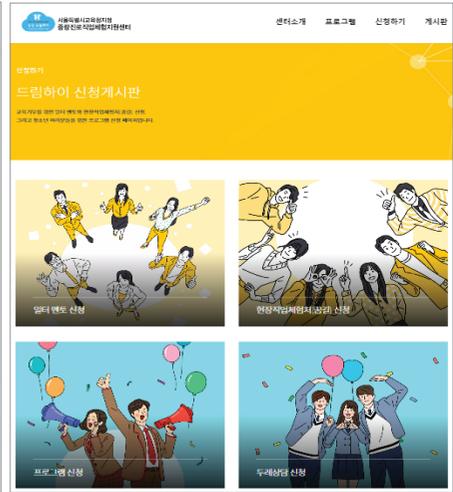
7. 교육부와 지역 진로체험처를 활용한 진로체험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이 있는 만큼 수준과 내용을 다양하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교육부와 지역의 진로직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지역진로직업지원센터 체험



꿈길⁸



중랑진로직업지원센터⁹

8. 그 밖의 다양한 진로활동

개별 학교의 진로 부서에서만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진로교육으로 귀결되므로 학년부, 창의적 체험활동부, 연구부 등 각 부서와 각 교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융합, 대학 연계, 독서연계, 창의융합, 창업·창직, 인문사회 아카데미, 천문과학캠프, 로봇 코딩, 과학실험교실 등 다양한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꿈길”, www.ggoomgil.go.kr/

9 “중랑진로직업지원센터”, www.dreamhigh.kr

다양한 학교진로활동 프로그램 예시



로봇코딩프로그램



창업·창직 온라인 발표회



화학, 신소재 공학 실험



인문사회아카데미



전문과학캠프



생활 속의 통계 프로그램

교과융합활동을 통한 진로탐구 예시

□ 근거
 송곡고등학교-12418(2021.11.26), 송곡고등학교-1448(2022.2.16)

□ 세부 운영 계획

1. 운영기간: 2023년 7월 10일(월) ~ 14일(금) 18:10 ~
2. 운영장소: 휴먼실, 도서관 등
3. 참가대상: 1학년 학생 20명 내외
4. 담당교사(소속부서): ○○○(교무기획부)
5. 세부 운영 계획

날짜	시간	강의 주제	담당교사	비고
7/10 (월)	13:10~16:10 (8시간)	13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 From MDGs to SDG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	휴먼실
		13시50분 심화 탐구 - 글로벌 교육의 현황		
		13시50분 심화 탐구 - 생활의 질 향상과 행복의 실현		
7/11 (화)	13:10~16:10 (8시간)	14시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	도서관
		14시50분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5시50분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7/12 (수)	13:10~16:10 (8시간)	14시 [나의 생각 정리 및 발표] -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	○○○	휴먼실
		14시50분 [나의 생각 정리 및 발표] -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		
		15시50분 [나의 생각 정리 및 발표] -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		
7/13 (목)	13:10~16:10 (8시간)	10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업교육	○○○	휴먼실
		11시 심화 탐구 -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		
		12시 심화 탐구 -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		
7/14 (금)	13:10~16:10 (8시간)	13시 주제 발표	○○○	휴먼실
		14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유 주제 발표 발표		
		15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유 주제 발표 발표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고력 확장과 창의력 계발,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인문 및 과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SDGs에 대한 이해 도모, 기후 위기, 환경 문제, 빈곤, 인권, 코로나 팬데믹 등 국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인식, 해결 방안을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고 토론하며 각자의 다양한 관심분야로의 심화 탐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9.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기록

창의적 체험활동은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에 대해 각 영역별로 학급 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참여도, 활동 의욕,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기재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수행한 활동은 그때마다 수행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리로스쿨, padlet, 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온라인 관리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아래 제시된 활용 가능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합니다.¹⁰ 아울러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진로활동 수행자료 결과물 예시

순번	연도 - 과제명	제출	담당교사	제출기간	바로가기
11	2023년 1학년 진로 - 지속가능발전목표프로그램 활동보고서	15명	김선희 외5명	07-15 12:00:00 08-01 00:00:00	📄
10	2023년 1학년 진로 - 교과선택 정보 찾기	0명	정무용	07-15 12:00:00 08-31 12:00:00	📄 🗑️
9	2023년 1학년 진로 - 학과체험 아카데미 활동 소감문	46명	정무용	07-10 08:00:00 07-31 23:00:00	📄 🗑️
8	2023년 전학년 진로 - 2023 대불어교실 1차(코딩드론) 소감문	22명	1학년부	07-07 13:00:00 07-16 23:55:00	📄
7	2023년 1학년 진로 - 직업체험의 날 진로캠프 아카데미 1학년 활동 소감문	140명	정무용 외9명	05-26 10:30:00 07-31 16:00:00	📄 🗑️
6	2023년 1학년 진로 - 활동지3. 1학년 커리어넷 검사 결과 활동 자기 평가서	129명	정무용 외9명	04-17 10:00:00 07-31 23:55:00	📄 🗑️
5	2023년 1학년 진로 - 활동지 2. 온라인 진로직업탐색 활동 자기 평가서(4월)	139명	정무용 외9명	04-10 07:00:00 07-31 23:55:00	📄 🗑️

이때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 합니다.¹¹

10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29쪽.

11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87쪽.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10. 나오는 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활동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 탐색 과정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진로 탐색 과정은 크게 자기이해, 직업탐색, 진로의사결정, 구체적 진로 준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기이해 과정을 거친 후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급변하는 시기에서의 주변 여건이나 환경 등에 따른 위기나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진로 탄력성을 키워나가며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도 학교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장해온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바라는 미래의 인재¹²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든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55쪽.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마다 내용과 운영방식도 다르고 참여하는 학생의 태도도 다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고 시간만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활동 자체보다 학생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 얼마나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참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에게 맞는 전공·학과를 탐색하는 방법들



이순남

신목고등학교 교사
서울시 진학지원단 및 상담지원단
양천구 면접지원단

들어가며

‘말랑카우’와 ‘목캔디’, 두 종류의 간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받고 싶나요? 아마도 이 두 간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탕이 취향이라면 ‘말랑카우’를, 목 건강을 신경 쓰고 달콤하면서 시원한 느낌의 사탕이 취향이라면 ‘목캔디’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아프리카 지역의 주식 중 ‘마토케’와 ‘우갈리’라는 요리가 있는데, 이 중 하나로 한 달 동안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마토케’와 ‘우갈리’라는 음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할만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검색창에 ‘마토케’와 ‘우갈리’라는 음식을 검색해서 음식의 재료 및 조리 방법, 음식 사진 등을 알아볼 것이고, 이왕이면 이것을 먹어본 사람의 후기도 찾아본 후 결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선택 전에 ‘마토케’와 ‘우갈리’를 조금이라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택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겠죠? 결국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취향’이고, 또 하나는 ‘선택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진로 및 전공에 대한 선택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에서 권하는 진로 또는 전공이라서 또는 미래에 유망한 분야라는 평가가 있어서 선택을 한다면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와 연계성을 갖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와 ‘진로 및 전공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랑카우



목캔디



마토케



우갈리

1. 자기 이해

학생들과 진로와 대학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전공을 못 정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흥미 및 적성을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와 적성은 가만히 앉아서 고민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진로 표준화 검사 활용

표준화 검사란 측정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사로 행동의 표집을 객관화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의하여 행동 특성을 미루어 짐작하여 그것을 기초로 개인의 진로 적성, 직업 흥미 등을 도출하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지에는 개인의 진로 적성 또는 직업 흥미에 부합하는 진로 및 직업들의 예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지를 활용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관련 진로를 찾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표준화 검사 결과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일 뿐 검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보여주는 자신의 특성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결과에서 제시하는 직업이나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활동을 진로 탐색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진로 표준화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커리어넷'과 '워크넷'을 소개합니다. 아래는 커리어넷을 기준으로 표준화 검사 경로, 검사 종류, Q&A를 소개하지만 워크넷에서도 유사한 검사들이 있고, 커리어넷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및 직업, 전공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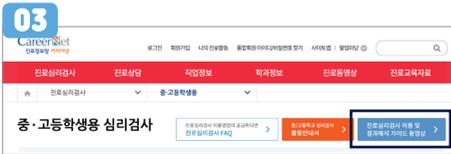
① 검사 경로



1. 커리어넷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진로심리검사 (중·고등학생용) 클릭



2. 6가지 진로 표준화 검사 진행



3. 각 검사 결과 확인 & 검사 해석 동영상(②에서 제시한 화면 위쪽) 참고



4. 아로폴리스 실시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K),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로 탐색 결과 안내

② 검사 종류

검사명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시간 및 문항수
직업적성검사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음	30분, 88문항
진로성숙도검사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태도나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음	15~20분, 63문항
직업흥미검사(K)	여러 직업 영역별 흥미 정도를 알아볼 수 있음	15분, 153문항
직업흥미검사(H)	홀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나의 흥미유형 및 흥미 유형에 맞는 세부 직업을 알아볼 수 있음	20분, 155문항
직업가치관 검사(청소년)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 중,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볼 수 있음	15~20분, 49문항
진로개발역량검사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음	20분, 55문항

③ 진로심리검사 관련 Q&A



Q 중학교 때 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할 필요가 있나요?

A 반드시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용 검사보다 고등학생용 검사가 좀 더 구체적이기도 하고,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경험을 접해보면서 정서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적성이나 흥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Q 적성은 변하지 않나요?

A 적성은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작은 노력에도 금방 잘 할 수 있게 되며,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그 능력은 더 빨리 자라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 적성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적성이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능력 점수가 낮았던 친구가 책을 많이 읽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언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적성은 노력에 따라 많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Q 꼭 검사결과에서 나온 직업들 중 선택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목적은 검사 결과에서 나온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나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직업들을 미리 탐색해 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추천된 직업들을 살펴보고 직업을 이해한 후 나와 어떤 부분에서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하고 싶은지는 본인 스스로가 다시 결정해 볼 문제입니다. 결과에 나온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나의 흥미, 가치관, 직업전망 등을 고려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Q 직업흥미를 느끼는 게 없어요.

A 직업흥미를 느끼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느끼는지, 또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흥미유형을 알아보고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Q&A는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FAQ'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학교 활동을 통한 탐색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게임 하기, 유튜브 시청, 웹툰 감상?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선택한 동기는 '흥미', '재미'입니다. 부모님이 추천해서, 미래 전망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흥미'를 쫓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서 우리의 진로 흥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처럼 즐겁지만 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S대학교 합격생 J선배의 진로 탐색 이야기를 참고해볼까요? J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교사 되기를 여러 차례 권유받고 막연히 교사의 꿈을 10년 동안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적어보려고 하니, 구체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면 교사가 진짜 원하는 진로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명확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해 보았고 나중에 그것을 취합해 봤더니 여러 활동 등이 인권과 차별 문제에 일관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학년 때 정치와 법 수업에서 가족생활과 법이라는 부분을 배울 때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성소수자, 비혼인, 비혈연인 생활 공동체의 법적 지위 및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정책연구원이라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J학생이 진로를 찾게 된 원리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는 것을 추구하기에 다양한 학교 활동의 경험들도 자신의 관심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활동을 할 때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양한 경험을 할 것, 두 번째로 경험의 공통점을 찾아볼 것, 세 번째로 내 경험의 공통점과 관련된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이러한 기록에서 학생들의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들이 드러나게 되어 학생부종합전형에 위한 준비도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험은 크게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활동, 독서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교과활동, 즉 수업과 교과서를 활용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6개 출판사의 생명과학 I 교과서 이미지입니다. 저 교과서 중 어떤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교과 개념을 담고 있을까요? 정답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담고 있는 교과 개념은 같다.'

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어 교과서 속에 담긴 개념의 종류와 양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동일 개념을 다루고 있어도 각 교과서가 개념을 확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다소 상이합니다. 각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동일한 개념을 다루면서 개념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 개념을 활용한 탐구, 개념이 반영된 자료 수집 주제, 개념과 관련된 읽을거리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이때 제시되는 예시들은 교과서별로 상이하기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자신의 흥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찾기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보세요. 앞에 J학생처럼 여러 교과서와 수업에서 시작된 이러한 탐구들이 모이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다룬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미국 캔싱턴에서 펜타닐 중독자가 많아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음료 시음행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으로 그 뉴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진로분야를 찾지 못한 상태라도 어떤 학생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 측면 또는 마약중독자를 치유하는 사회적 비용 등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은 뉴스 보도의 방향이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마약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기작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생명과학 I 교과서 신경계 단원에서 '시냅스 흥분 전달' 개념을 다룰 때 M출판사 교과서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탐구입니다. 마약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기작에 대해 궁금해하던 학생이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배운다면, (비록 아래 제시된 내용이 시험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아래 탐구에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 관심을 소홀히 넘기지 말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추가 탐구를 해보세요. 이러한 관심들을 모아보면 자신의 흥미를 끄는 주제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탐구

자료 수집 | 분석 | 해석

시냅스의 흥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이해를 위한
탐구 활동

I 과정 I

● 모둠별로 다음에 제시된 물질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코카나무(코카인)



대마초(마리화나)



술(알코올)

● 모둠별로 선택한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관해 조사한다.

I 정리 I

1.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보자.
2. 조사한 물질이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토의해 보자.
3. 제시된 물질 외에 시냅스의 흥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찾아 이들이 인체에 주는 영향과 부작용에 관해 조사해 보자.

한국어영역치문동분부

2. 전공탐색

앞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 '키워드'를 찾았다면, 이 관심 분야와 관련도가 높은 전공을 찾고, 찾은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봐야겠죠?

1) 메이저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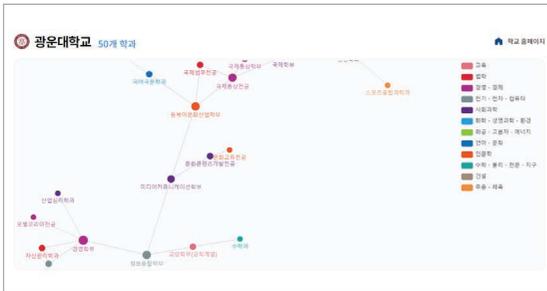
major map은 글자 그대로 전공 지도를 의미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메이저맵'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대학별 연계 전공 및 각 전공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맵 학과검색에서 '의생명'을 키워드로 찾아보면 '의생명'을 키워드로 갖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26개가 검색이 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검색된 대학 중 K대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전공 워드 클라우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K대 '의생명공학'에서 배우는 전공과 관련도가 높은 과목으로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전공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K대 의생명공학과에서는 곤충, 식물, 세포, 토양, 생물 소재, 고생물학 등을 배우고 이를 이용하여 의료, 치료, 진단, 바이오센서, 신약 등에 응용하는 것을 다루는 학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여진 화면에서 관심 단어를 클릭하면 이 단어와 관련 있는 다른 대학, 다른 학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사진처럼 보여진 화면에서 식물학을 클릭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관련 학과들이 나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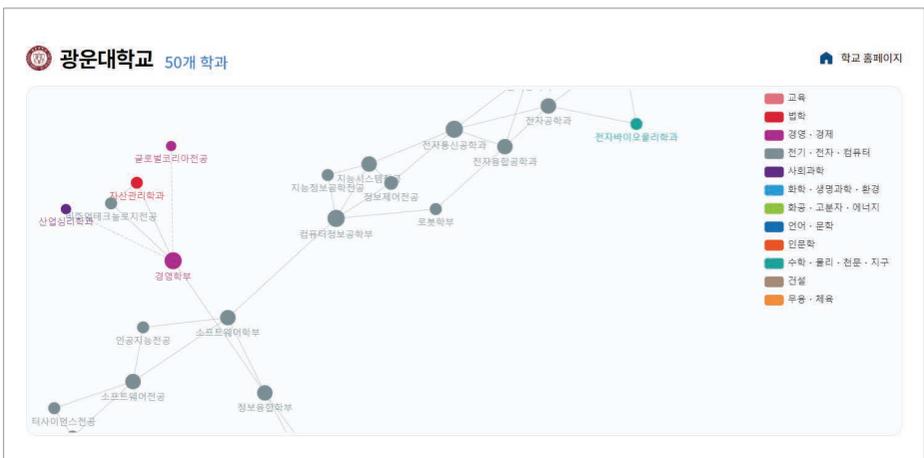
한편 메이저맵을 이용하면 동일 명칭인 학과라도 대학별로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메이저맵 학과검색에서 '철학'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51개의 대학 철학 관련학과가 검색이 되고, 이 중에서 두 개 대학의 워드 클라우드를 비교하면 큰 틀에서 철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비슷하나, 부분적으로 하나는 동양철학이 다른 하나는 서양철학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이저업을 활용하면 특정 대학에서 개설된 유사 전공에 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메이저업 대학 검색에서 광운대를 검색한 것입니다. 광운대에서 개설된 50개 학과의 전공과목 유사도에 따라 맵이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유사도가 큰 전공으로 문화콘텐츠개발전공, 문화교류전공, 동북아문화산업학과, 정보융합학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그라미가 큰 것은 다른 전공과 연계도가 높은 허브학과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동북아문화산업학부를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 처럼 해당 학과의 전공내용을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광운대학교 이공계열 학과 전공맵입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 공대 전공과목 사이에 관련도가 높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정보공학부는 소프트웨어학부, 로봇학부, 지능정보공학, 정보제어전공 등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으므로 복수전공, 심화전공 제도를 통해 전공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으며, 전과제도를 통해 전공을 변경했을 때도 전공 연계도가 높아 전공 이수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업은 전공과 연계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를 클릭하면 위에 전공 위드 클라우드가 나오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전공과 관련된 직업정보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왼쪽과 같은 화면에서 빅데이터 분석가를 클릭하면 직업정보를 안내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해당 직업과 관련된 학과, 하는 일, 수행직무, 직업을 가지는 방법, 임금 및 일자리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직업

직업명	평균연봉(만원)	직업전망	분야/직업
빅데이터분석가	4,307만원	71%	IT/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자	4,180만원	24%	IT/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운영/지원	4,146만원	46%	IT/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가	3,623만원	82%	IT/소프트웨어
데이터과학/분석가	3,503만원	62%	IT/소프트웨어
데이터과학/분석가	4,537만원	46%	IT/소프트웨어
데이터과학/분석가	3,893만원	73%	IT/소프트웨어

빅데이터분석가

하는 일

수행직무

2) 대학-고교연계 진로 및 전공 탐색 프로그램

각 대학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대학 입학사정관, 대학교 전공 선배, 전공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전공 및 대학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소속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전공을 결정하기 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A대 '고교생전공체험안내', B대 '진로진학콘서트', C대 '미리 보는 대학 전공 캠프'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운대학교에서도 '모의전형&전공상담', '진로직업특강(전공/학과 소개)', 'KW진로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의전형 & 전공상담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함께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여 모의전형과 전공상담을 진행합니다. 입학전형 관련대사인 만큼 광운대학교에 대한 정보도 물론, 입시를 정밀해본 선배로서 가치도 있는 입시 전략을 전해주고, 고등학교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로 직업 특강(전공/학과 소개)

중·고등학교에 발문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한 소개 및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리미가 소속된 입문자를 학과, 전공에 대한 학과 세부 전공부터 커리어까지, 향후 진로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리미의 입사지원이 성공한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외에도 광운대학교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고교연계 프로그램(KW진로특강, KW전공교과지, KW진로지도발명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o IT - Like IT] Do IT - Like IT은 레고에서 제작한 교육용 키트, 마인드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로봇의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여 하나의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각 조로 조별활동을 진행하며, 프로그래밍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중·고교생의 다양한 발달상을 이해하며 개인적인 학업에 깊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며 미래 다분야 로봇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적합한 전공을 찾는 것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프로그램 활동에는 수동적인 태도로 참여하기보다는 사전 질문을 만들어가거나 전공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광운대 인공지능융합 대학에는 '컴퓨터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정보융합학부', '로봇학부'가 있습니다. 이 학과들의 차이점을

대학교 홈페이지 및 메이저맵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안된다면 이러한 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해당 학과 교수, 선배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대학 발간 전공가이드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학과소개영상

여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공가이드북 또는 학과소개영상을 제작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가이드북 및 학과소개영상을 통해 대학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목,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 전공의 특징,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전공가이드북이나 학과소개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지만 대학별로 공통된 전공들이 있으므로 내가 희망하는 대학 전공가이드북이나 학과소개영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전공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다양한 대학의 전공가이드북 및 학과소개영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보세요.

D대학 전공가이드북은 국어국문학과 및 문예창작학과와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국어, 사회문화, 역사, 한문을 언급하고 있으며, 평소 책임감 및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적합한 적공이라고 설명합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해도 전공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많은 책을 읽어 사고력과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전공준비 TIP

2023학년도 기준 전공 관련 교과 영역: 국어, 사회문화, 역사, 한문

<p>TIP 1</p> <p>국어(문해·문학·언어학)는 문학 및 언어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 자구조도 성을 기해야 합니다.</p>	<p>TIP 2</p> <p>문해에 책 읽기를 즐기며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전공수업을 이수하는데 유리합니다.</p>
<p>TIP 3</p> <p>국어(고급) 역사, 사회 문화 등 사회과 관련 과목은 고전(문학) 개론이 문해 등 수업(10)에 도움이 됩니다.</p>	<p>TIP 4</p> <p>문해(역사) 시교재는 능동적 기교(문학) 관련 수업(10)에 도움이 됩니다.</p>

Q&A

<p>2018</p> <p>Q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전공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p> <p>A 전공은 수업을 위한 지식이 아닌 체험과 실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글쓰기 능력은 기본적인 학업(10)과 관련된 글(10)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책을 읽으며 쓰는 습관을 기르고 문해(역사) 관련 수업(10)을 통해 글쓰기 능력(10)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p>	<p>2019</p> <p>Q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까요?</p> <p>A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공(10)과 관련된 글(10)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공(10)과 관련된 글(10)을 읽는 것은 사실입니다. 책을 읽으며 쓰는 습관을 기르고 문해(역사) 관련 수업(10)을 통해 글쓰기 능력(10)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p>	<p>2020</p> <p>Q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까요?</p> <p>A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공(10)과 관련된 글(10)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공(10)과 관련된 글(10)을 읽는 것은 사실입니다. 책을 읽으며 쓰는 습관을 기르고 문해(역사) 관련 수업(10)을 통해 글쓰기 능력(10)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p>
--------------------------------------------------------------------------------------------------------------------------------------------------------------------------------------------------------------------------------	--------------------------------------------------------------------------------------------------------------------------------------------------------------------------------------------------------------------------------------------------------------------------	--------------------------------------------------------------------------------------------------------------------------------------------------------------------------------------------------------------------------------------------------------------------------

D대학 전공가이드북은 식품영양학과에서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 및 국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며, 졸업 후 진출분야로 학교 및 병원 등의 영양사,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보건 및 행정직 등으로 근무한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학문

식품영양학과는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과 사회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사람이 균형 있는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준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및 지속 가능한 지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준비된 미래 선도형 헬스케어 인재를 양성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국가교과를 통해 영양사, 교육사, 연구사, 사업가, 상담사로서의 리더십, 새로운 제품개발, 마케팅/홍보를 위한 창의력, 열정 및 도전정신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태도를 배려하는 인성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식품 무역의 자유화 및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 및 국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 및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미래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창의 혁신형 인재 양성 교육목표를 통해 국가의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식품영양학의 과학적 지식을 주도적으로 습득,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경쟁력 있는 식품영양 학문 발전을 주도하는 비전적 지식 인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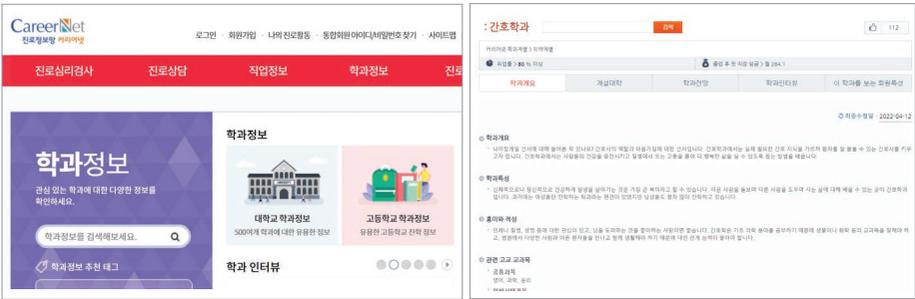
졸업 후 영양교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교육과정과 등록해야 합니다. 고직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학년 1학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직의 적성과 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직 적성 인성 검사를 시행하고 학과 교수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매년 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접 시에는 성격과 교원자격 취득에 대한 의견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됩니다. 학부 과정에서 고직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후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전공 진학을 통해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원공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예비 교사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장 견학, 학술제, 수업 연감대회, 교육 봉사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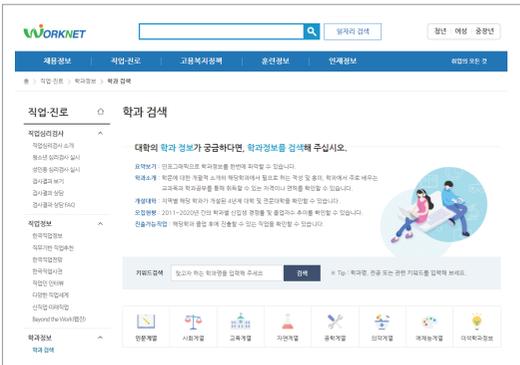
4) 커리어넷/ 워크넷

좀 더 편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여러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찾고 싶다면, 커리어넷 또는 워크넷을 추천합니다.

커리어넷에서는 상단메뉴바에서 학과정보를 클릭하면 '대학교 학과정보'라는 화면이 보이고, 이곳에서 500여 개의 대학교 학과를 계열별로 구분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선택한 후 특정학과를 검색하여 선택하면 학과의 특성 및 필요한 흥미와 적성 관련 고등학교 교과목, 대학 주요 과목, 관련 자격, 관련 직업, 관련 동영상 및 관련 진로상담사례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정보를 워크넷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상단 메뉴바에서 직업-진로를 클릭하면 학과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에서도 계열별 분류에 따라 다양한 학과를 검색할 수 있고, 커리어넷과 유사한 정보도 있으며, 커리어넷에 없는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 하는
학생과 중합전형 이야기



04

대학 교수님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진로 탐색을 위한 전공체험 활동

-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 광운대학교 화학과



진로 탐색을 위한 전공체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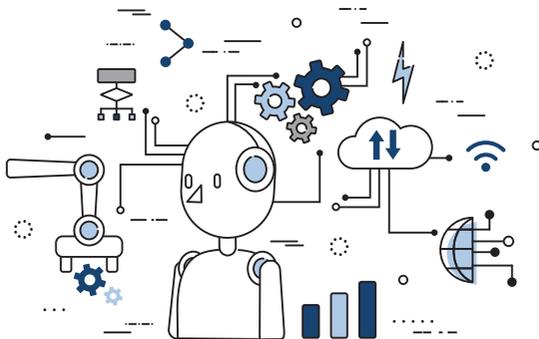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임동혁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교수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학부장
정보처리학회 상임부회장

1. 정보융합학부 소개

4차 산업혁명으로 물리적 공간 및 디지털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AI)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7년 신설된 정보융합학부는 AI 사회에서 직면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융합형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정보융합학부는 융합소프트웨어 분야 국내 최대 규모(모집인원 90명)의 학부이며 '정보융합학부'라는 학부 명칭은 전국에서 유일한 학과로 AI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의 생성, 취합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과 영상 콘텐츠의 생성, 가공, 처리를 위한 비주얼 테크놀로지 전공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융합학부 이수체계도



2.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소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는 다양한 분야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및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솔루션을 만들어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정보융합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등의 공학적 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보융합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데이터 수집 체계 및 처리, 인공지능 학습 모델 구축, 시각화 및 응용의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 습득이 가능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수학 및 통계학 응용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수리적 기초 교과목과 기계학습,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빅데이터 처리 및 응용 등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 교과목, 데이터 시각화, 인공지능 응용, 산학협력 캡스톤설계 등 현장 밀착형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응용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이론과 분석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분야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제조혁신, 인공지능 지원 의료, 스마트 시티, 교통 및 물류, SW 보안, 금융 AI 등 현대 지능

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는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첨단 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리더십과 데이터 과학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현시키는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보안 전문가 등의 역할로 전문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융합, 응용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도메인 특화 응용 사례 도출 등 전문적이고 특화된 인공지능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비주얼 테크놀로지 전공소개

비주얼 테크놀로지(Visual Technology) 전공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시각적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주얼 컴퓨팅, 컴퓨터 그래픽스 과목에서 시각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합성하기 위한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기술의 이론을 배우게 되며,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3차원 형상의 표현, 기하학적 변환, 투사법, 가시 변환, 숨은 면 제거, 렌더링, 애니메이션, 가시화 알고리즘 등의 기반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가상 현실, 증강현실 과목들을 통해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몰입형 환경에서의 가상현실 콘텐츠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콘텐츠를 접목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과정을 실습합니다.

최근 게더타운 등 여러 메타버스 서비스가 웹 환경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정보 디자인 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해 사용자와의 접점과 인터페이스를 웹 기반으로 설계하는 법을 배우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론트 엔드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서비스 설계 및 구현 과목을 통해 실제 웹서비스의 기획부터 구현, 배포, 운영까지의 전체 과정을 실습합니다.

메타버스의 기술 역시 사용자에게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랙티브 심리학, UI/UX 디자인 등의 교과목을 통해 사용자의 인지와 심리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HCI와 UX 평가, 실험 설계 및 분석 교과목을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평가-구현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배우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지적 생체적 반응을 계측하기 위한 실험 계획법 및 분석법을 다룹니다.

졸업 후에는 다양한 산업체에서 모바일/웹 개발자, VR/AR 개발자, 웹 엔지니어, UX디자이너, UX엔지니어, 서비스 기획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게 될거라 기대합니다.

4. 정보융합학부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정보융합학부는 인공지능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공 체험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광운대학교 KW 전공탐색프로그램 : “어서와! 빅데이터는 처음이지?”



KW 전공탐색프로그램(2023년 6월)

정보융합학부는 광운대학교 입학처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매년 <KW전공탐색프로그램 : 어서와! 빅데이터는 처음이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화된 융합 서비스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데이터 과학 및 빅데이터 분석을 미리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수집·분석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파이썬의 기초 프로그래밍과 응용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실제로 학부 수업을 진행하는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실습실에서 약 40명의 학생들이 직접 실습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빅데이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보융합학부 교수가 3명의 실습 조교와 함께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며 진행합니다. 파이썬의 기초 문법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되며 3명의 실습조교가 학생들을 도와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며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내용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습 위주의 진행을 하므로 학생들의 만족감이 매우 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학생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융합학부에 입학하였을 때 배우게 되는 전공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며 향후 진로 탐색에 있어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서와! 빅데이터는 처음이지’ 프로그램 내용

- 01 파이썬 소개 및 기초
- 02 터틀 그래픽을 통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 03 Matplotlib을 통한 빅데이터 시각화
- 04 Folium을 이용한 파이썬 응용

2) KW선택교과지원 프로그램 : “파이토치로 배우는 인공지능”



2022년 KW선택교과지원 프로그램(청원고-청원여고)



2023년 KW선택교과지원 프로그램(영일고)

정보융합학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KW선택교과지원프로그램 “파이토치로 배우는 인공지능”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정보융합학부 교수가 직접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다수 참여를 하였습니다.

‘파이토치로 배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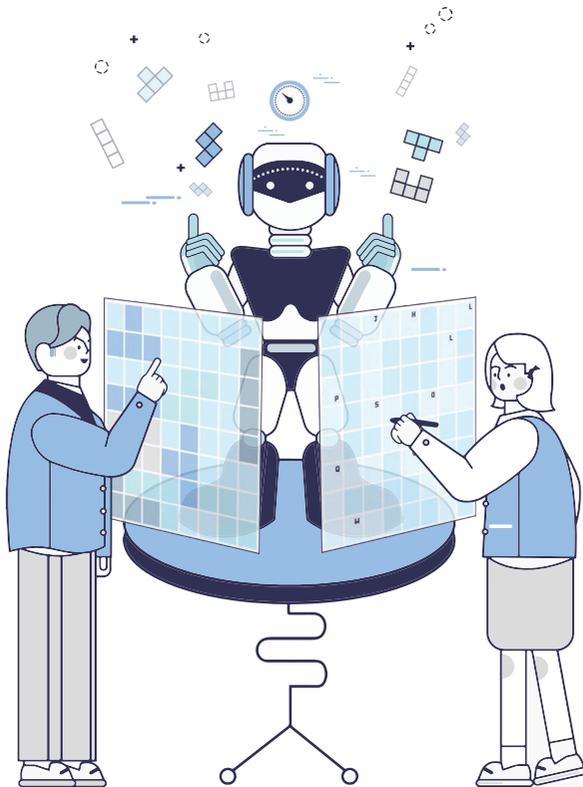
- 01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소개
- 02 파이토치 소개 및 실습
- 03 MNIST를 이용한 숫자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은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실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습 내용은 손글씨 데이터 셋인 MNIST의 숫자 이미지가 입력되면 그 이미지가 무슨 숫자인지 맞히는 프로그램을 실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프레임 워크인 파이토치를 이용하였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습 조교 3명이 학생들을 도와가며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면

서 고등학생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 숫자 이미지를 컴퓨터가 잘 분류하는 결과를 보면서 인공지능의 주요 원리와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희망하는 전공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진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진로 탐색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5. 맺는말

정보융합학부는 AI 사회에서 직면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UI/UX, 메타버스 등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교수진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본 학과에서 지원하였던 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인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로 탐색을 위한 전공체험 활동



광운대학교 화학과

이윤미

광운대학교 화학과 교수
前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박사 후 연구원

1. 화학과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화학과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광운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매년 <KW전공탐색 프로그램 : OPEN LAB>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험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화학과의 전공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OPEN LAB”에서는 화학과 교수님과 5명의 실습 조교가 함께 참여하여 화학이란 무엇인지와 화학과 전공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학의 다양한 분야와 학과에서 진행되는 연구 주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학과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화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화장품, 식품,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화학의 역할은 무엇보다 큼니다. 이러한 실생활적인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은 화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일반 고교 교육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소중한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실험 체험을 통해 실제 화학 실험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를 높이며, 화학과 연구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실습 조교들의 지도를 받으며 다양한 화학 실험을 직접 참여하고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실제 연구 환경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프로그램 시간 동안 멘토링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와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유익하고, 화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합니다. “OPEN LAB”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화학과의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키우며, 실용적인 화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1) 화학과의 전공체험 프로그램 내용

화학과 “OPNE LAB”에서는 다양한 화학 분야 중에서 유기합성과 분석화학 실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아스피린 합성 실험과 나일론 합성 실험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을 배우고 학생들은 화학 반응을 직접 수행해보며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13개 시험관의 비밀을 풀어보는 분석화학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화학의 실용적인 측면을 알아보게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험 기구를 직접 다루어보고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20~30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 학생들이 개별적인 실험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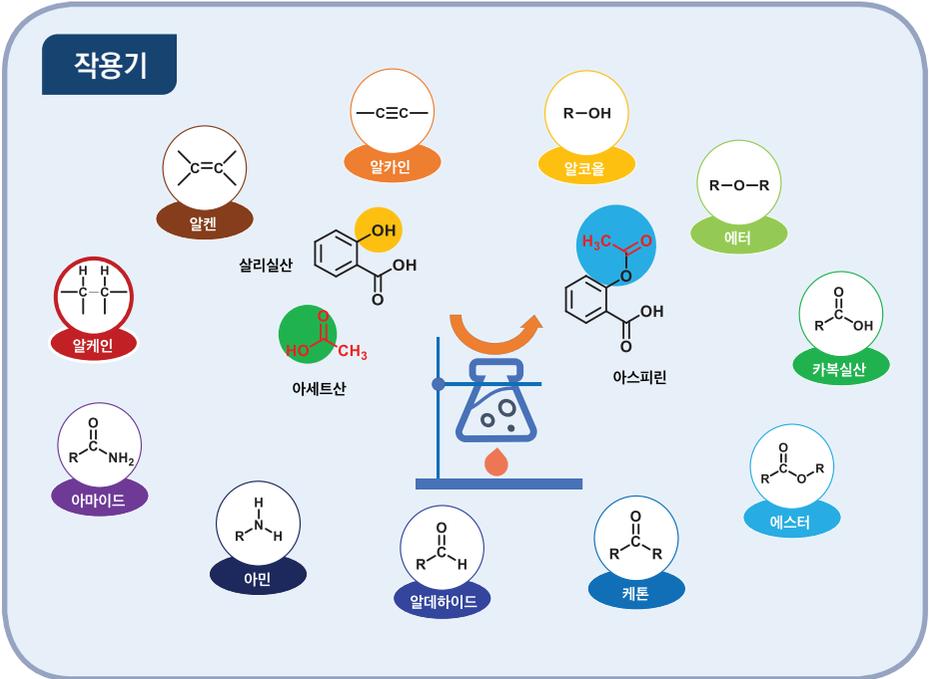
① 아스피린/나일론 합성 실험

화학은 물질의 구성과 성질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질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기본 단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거나 기존의 물질을 변형하여 유용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기화학은 탄소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으로, 생명과학, 의약품 개발, 고분자 합성, 화장품, 천연물 합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응용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합성은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반응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유기합성은 새로운 유기분자, 반응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이미 알려진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합성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며, 신소재와 기술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응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물질의 합성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으로 알려진 아스피린의 합성과 스타킹에 사용

되는 등 의복의 혁명을 가져온 나일론 합성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합물은 분자 내에서 특정 원자들의 배열로 정의되는 작용기(functional group)가 있는데 잘 알려진 작용기로는 알코올(-OH)와 산(-COOH)이 있습니다. 작용기는 화학적인 변화와 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주변의 물질과 제품들의 다양한 성질과 기능을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작용기를 어떻게 결합 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용한 물질을 합성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됩니다. 또한, 특정 작용기가 분자 내에 존재하면, 해당 분자는 특정한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결정하는 데에 작용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원전 400년 경에 살았던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열과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하는데 살리실산이 함유된 버드나무 껍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살리실산은 맛도 역겹고 위장 장애가 매우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1897년 독일 바이엘사의 호프만 박사가 위장에 대한 자극이 적고, 맛도 향상되어 더욱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아세트살리실산을 합성하여 아세틸(acetyl)의 앞부분 "A"와 버드나무의 학명인 "Spiraea"의 앞부분 "S"를 따서 아스피린(Aspirin)을 만들었습니다. 살리실산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 작용기에 식초의 성분으로 잘 알려진 아세트산을 반응시켜 살리실산에 아세틸기를 도입하여 에스터 작용기로 변환시킨 화합물이 아스피린입니다. 알코올 작용기가 아세틸이 결합된 에스터 작용기로 변환이 되는 반응에 대한 합성 실험을 통해 작용기의 중요성과 작용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화학 분야에서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인 작용기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2~3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실험 기구 및 시약을 직접 준비하고 살리실산과 아세틸기 시약을 플라스크에 넣고 적합한 반응 조건으로 반응 세팅을 합니다. 반응 후 생성된 고체 화합물을 여과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합성된 아스피린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합성한 아스피린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워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성한 화합물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제과정을 거쳐 순수한 화합물을 얻어야 합니다. 의약품 합성과정에서도 화합물의 순도가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제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결정 과정을 통해 순수한 아스피린을 얻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용매를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재결정을 수행하면 눈꽃 모양의 아스피린 결정이 생성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험 조마다 생성되는 결정의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떤 모양의 결정이 생겼는지 서로 비교해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험 중에는 실습 조교가 학생들을 도와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주어 학생들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일론 합성 실험은 간단하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 있어 하고 재미있어하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험은 다이아민과 다이카복실산이라는 작용기를 가진 두 가지 시약을 사용하여 아마이드라는 작용기를 가진 고분자 체인이 합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시약의 용액을 비커에 넣으면 두 용액의 경계면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나일론 고분자가 형성되고 고분자 층을 뽑아내면 실처럼 계속 뽑혀져 나오는 나일론 섬유를 실타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나일론과 같은 고분자 물질의 합성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실처럼 뽑혀지는 특이한 실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합성 실험을 통해 화학적 반응과 고분자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 실제 물질 합성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② 13개 시험관의 비밀

“13개 시험관의 비밀”은 전공체험 프로그램에서 경험하는 또 하나의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분석화학의 흥미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석화학은 화학의 한 분야로서, 물질의 조성과 구조를 파악하고, 그들의 성질과 양을 정량하고,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적인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학문입니다.

“13개 시험관의 비밀” 실험은 다양한 시험관에 담긴 미지의 물질들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분석화학의 기본 원리와 기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미지의 물질을 구별하는 데에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정량적인 방법은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미지의 시료에 들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고, 정성적인 방법은 들어 있는 물질의 양과는 무관하게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13개 시험관의 비밀” 실험은 정성 분석을 통해 시험관에 들어 있는 물질의 종류를 알아내는 실험입니다. 시험관 안에는 각기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합니다. pH 테스트, 용액의 색깔, 침전 및 착물 형성 등의 반응을 통해 각 시험관의 물질을 식별합니다.

각 물질을 식별하기 위해 집중해서 하나 하나 반응 테스트를 해보며 물질을 찾았다고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실험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학생들에게 분석화학의 실용성과 재미를 보여줄 수 있으며, 실험을 통해 정확한 측정과 분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실험 기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관에 담긴 물질들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관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전공체험 활동 후 “화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화학과로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실험 과정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으며, 조교들과 대학 진학 관련 상담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검증해 볼 수 있었고, 평소애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즐거웠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2. 화학과 소개

1) 화학은 왜 중요할까?

화학은 물질의 성질, 구조, 조성, 변화, 그리고 에너지 변환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연과학적 현상과 인공적인 물질의 합성과 반응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학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 섬유, 플라스틱, 전자재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며, 특히 지구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변환, 그리고 환경 오염의 저감 등에는 화학적 지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첨단산업 기술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 전자재료, 바이오 기술, 새로운 의약품 및 치료법 개발, 나노기술 등에서 화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화학은 새로운 소재와 기술의 개발에 기여하여 현대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화학과 교과과정

광운대학교 화학과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시대적 필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재의 양성을 기본 교육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년의 학사 과정 동안에 수학, 물리 등 폭넓은 기초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고분자 화학, 생화학 등의 전문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강의를 제공하여 물질의 구조 이해, 반응, 합성, 분석 등에 필요한 화학의 기본 개념들을 교육합니다.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실험 장비인 NMR, FT-IR, HPLC, UV-Visible, GPC, TGA, GC-Mass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합니다. 또한, 신소재화학, 기기분석, 생유기화학, 전산화학, 공업화학, 유기합성, 유기금속화학, 유기반응, 유기금속촉매반응, 고체화학개론, 에너지소재화학, 나노화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문 연구 및 생산 활동의 기초를 다지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험, 세미나, 캡스톤디자인 등의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화학과는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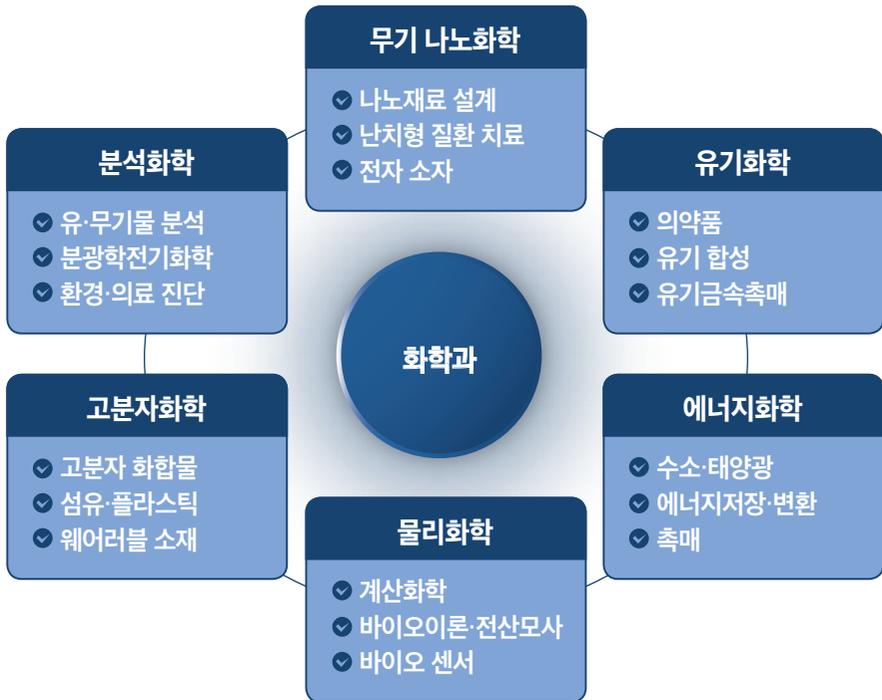
화학과 이수체계도



3) 화학과 연구 분야 소개

광운대학교 화학과 대학원은 석사와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8명의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고분자 연구실, 유기합성 및 유기재료 연구실, 유기합성 및 촉매 화학 연구실, 전기화학 연구실, 나노바이오광학 연구실, 재료 및 전기화학 연구실, 그리고 유기전자재료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합성 및 금속 착물 합성 연구, 유기 고분자 반도체, 기능성 고분자,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유기 센서, 수소 생산용 유기 광촉매 응용 연구, 수소 생산 및 활용 장치,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장치를 위한 나노 촉매 설계 및 개발, 전기화학 기반의 이온 센서, 화학 센서, 바이오 센서 개발 연구, 항박테리아, 항암, 신약 개발, 바이러스 진단, 혈당 측정 등 나노바이오 분야 응용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의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 광운대학교 화학과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이 바이오센서를 연구 하고 제조하는 벤처 기업인 아이센스(i-SENS)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케어센서®” 혈당 측정기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4) 화학과 활동 소개

화학과는 새내기 배움터, 신·복·편입생 환영회, MT,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님과 선후배들과 소통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발표회는 화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를 학생들과 교수님, 그리고 다른 연구실과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화학과는 학부 학생들에게 각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실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부 인턴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에 대해 더욱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학과 소모임으로는 보드게임 동아리 “Chemistry department Board game Clu”, 축구 동아리 “Chemistry Football Club”, 친목, 성적, 자기계발을 위한 동아리 “Chemistry Study Club”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 소모임은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학업 외의 즐거움과 친목을 증진시키고, 관심있는 분야의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학업과 자기 계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운대학교 화학과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학생들은 보다 더 풍성한 학교 생활을 즐기며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마무리하며...

화학과 전공은 폭넓은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 재료 연구, 에너지 생산,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첨단 산업과 학문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화학 전공은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화학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OPEN LA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험을 통해 다양한 화학 분야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학과의 전문 분야와 연구 방향을 이해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지향점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화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고교-대학 연계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화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안에서 초광안이로
융합에서 초융합이로



부 록

광운대학교 학부 및 학과 안내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

로봇학부 정보제어·지능시스템전공, 로봇학부 시로봇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정보융합학부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화학과, 스포츠융합과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산업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산업심리학과, 동북아문화산업학부

정책법학대학

행정학과, 법학부, 국제학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참빛인재대학

금융부동산법무학과, 게임콘텐츠학과, 스마트전기전자학과, 스포츠상담재활학과



전자정보공과대학



- 전자공학과
- 전자통신공학과
- 전자융합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재료공학과
-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광운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서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현장 중심 공학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고급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엔지니어의 메카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는 광운대학교를 대표하는 학과로서 21세기 고도 산업 사회에서 전자공학을 선도하는 실무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현재 20명의 교수님이 680여 명의 학과 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대학원에는 석·박사과정의 개설되어 있어서 학과에서 취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과목을 이수하여 연구, 개발, 생산, 전문교육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는 국내 최상급 실험실습 환경에서 졸업 후에 현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강화된 실험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 개발이 가능하며, 전자공학과 구성원 간에 친목도모 및 동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봄 학기에는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전자공학의 기본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논리적 사고력 및 동료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
-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 대기업/중견 전자회사 취업(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오트론, KT, SK텔레콤, ASML)
-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원 석·박사 진학
- 국내외 연구소 취업(전자기술연구원(KETI), 전자통신연구원(ETR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양성소 전자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인 5G/6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및 통신공학을 기반으로한 전공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ICT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과정을 거의 매년 개편함으로써 우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론, 실험, 실습 및 설계 교과목의 균형적 구성, 현장 친화적 실험/실습,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설계 환경 구축 등을 시행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 문제 발견을 위한 호기심과 관찰력, 문제 정의를 위한 논리적 분석력,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력
- 세상의 변화를 포착 및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획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배려 정신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대/중소/벤처 기업, 공기업, 통신사, 방송사, 언론사, 금융기관
-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 변리사, 기술사,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등

ICT기반 창의 융합 발전소 전자융합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에서는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결합된 ICT 융합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기술적 전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겸비한 전문 공학자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전자융합공학과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 컴퓨터 네트워크, 유무선 통신시스템 등의 전자정보통신 분야뿐 아니라, 방송통신, 자동차, 국방-공공안전 등 전기전자 기반의 다양한 ICT 융복합 기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공학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 주어진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자세
-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 협력 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및 책임감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반도체, 통신 장비 및 단말기, 멀티미디어, 자동차 및 조선, 항공 등의 관련 산업체 분야
- 전자정보통신과 관련된 건설, 금융, 에너지 등의 산업체 분야
- 연구소, 공공기관, 방송국, 정부 부처 및 관련 산하 기관 등

신재생 & 스마트그리드 & IT-BT 융합기술 전기공학과



전기공학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또한, 전기공학은 신재생 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커다란 스케일의 전력시스템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소재 및 소재, 그리고 생체 내의 미세 전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응용 또한 다양한 분야입니다. 전기공학과는 전통적인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융합 및 창의성 교육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명확한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자세
- 빠르게 발전하는 공학 분야의 특성상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
-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융통성과 협동정신
- 전력 및 에너지 분야, 건설 및 중공업 분야의 전기 직무
- 삼성/LG/SK 등 전자 계열 회사의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분야
- 벤처/창업을 통한 다양한 진로
-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변리사 등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소 전자재료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는 전기전자 분야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및 신소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질적인 전공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첨단 기술 정보와 미래의 기술 및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원천기술이 되는 전자재료, 소자 및 응용기술을 다루며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등 첨단 학문의 접점 분야에 있어서 최상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전자 및 재료에 대한 관심과 화학, 물리 등의 분야에 대한 흥미
- 실험-실습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 및 설계 과정에서의 창의력
-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분석력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
- 전자재료, 소자 및 응용기술을 다루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관련 분야의 전자재료 전문 연구 인력

첨단 반도체 인재양성의 중심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첨단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광운대학교의 중심 학부입니다. 집적회로설계, 반도체 소자공정·장비,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공학 전 분야의 요소기술과 반도체 응용 및 융합 시스템 기술의 반도체 공학 전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 교육을 제공합니다.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반도체 소자·공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기술 전 분야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차세대 ICT 전자정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합니다. 특히,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교육부의 첨단 학과신설 정책에 따라 2023년 신설되어 2024년 3월 첫 신입생을 받는 신설학과입니다. 대학의 특성화 계획 및 적극적 지원을 통해 광운대학교의 반도체 특성화 학과로서 발전해 나갈 것 입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공학에 대한 흥미, 문제를 찾아내는 호기심
-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
- 첨단 반도체 및 미래 ICT 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 의지
- 반도체 분야 대·중소·중견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 전자공학 및 ICT 분야 산업체
-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원 진학



인공지능융합대학



- 로봇학부 정보제어·지능시스템전공
- 로봇학부 시로봇전공
- 컴퓨터정보공학부
- 소프트웨어학부
- 정보융합학부

광운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은 실무능력을 갖춘 세계화된 소프트웨어 전문인 교육을 표방하며, 이를 통해 다른 분야와의 통합을 추구합니다. 차별화된 광운대학교만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전문 지식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세상 **로봇학부**



로봇학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학부로서 미래의 로봇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로봇학은 자연과학, 공학 분야뿐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문이므로, 로봇학부의 교육 프로그램은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를 아우름과 동시에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수진은 정부 및 산업체 등과 다양한 형태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웨어러블 로봇, 인공지능 로봇 등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시로봇 전공과 정보제어·지능시스템전공, 2개의 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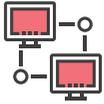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로봇공학에 필요한 수학, 기초과학, 공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기술 분야와 소통하고 팀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 기계/전기·전자/컴퓨터 등의 기존 산업 분야
-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 로봇 기술 분야
- 인공지능 및 로봇 기반 의료/실버산업 분야



지능형 컴퓨터시스템 교육 리더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균형 있게 교육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고성능/고지능화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공지능 및 첨단 응용 분야에 컴퓨터 기반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컴퓨터 시스템의 고성능/고지능화를 위해,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 디자인 및 하드웨어 설계,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능력이 균형 있게 겸비된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정보공학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명확한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자세
- 빠르게 발전하는 IT 분야에 발맞추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 타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융통성과 협동정신
- 컴퓨터 관련 연구소 및 기업(삼성, LG, SK, KT, 현대, Naver, Kakao 등)
- 정보시스템 관련 SI, 벤처 기업, 정보기술업체(Accenture, PWC, McKinsey 등)
- 공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변리사, 창업 등

창의적 SW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부로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전 분야의 포괄적인 교과과정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증강현실 등 유망한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해 각 분야의 우수 교수진이 심도 있게 가르침으로써 다음 세대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빠르게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성상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
- 명확한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자세
- 효과적인 의사전달 및 팀워크를 위한 융통성과 협동정신
- 삼성, LG, Naver, Kakao, Nexon, 마이다스IT, Coupang 등의 컴퓨터 관련 전 분야
- 대학원에서 전공 분야의 석사, 박사학위 등을 취득한 후 국가 및 산업체의 연구직으로 진출

인공지능+창의 융합 소프트웨어 정보융합학부



정보융합학부는 정보화·지능화 사회에서 창의적인 융합 사고를 가진 공학도를 배출하여 미래융합 소프트웨어 실무 현장을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본 학부는 스마트 컴퓨팅 교육을 위한 특성화 실습실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비롯하여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 능력을 두루 갖춘 실무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신설된 정보융합학부에는 비주얼테크놀로지 전공과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이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융합 학문 분야에 적합한 유연한 사고와 융통성
- (비주얼테크놀로지 전공)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
-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
- 대기업 및 벤처 기업(삼성, LG, 현대, Naver, Coupang, Kakao 등)
- 빅데이터 컨설팅 회사
- 클라우드서비스회사
- 국가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 대학원 진학(해외 유학 포함)
- 스타트업 창업



공과대학



- 건축학과(5년제)
- 건축공학과
- 화학공학과
- 환경공학과

광운대학교 공과대학은 기초이론과 응용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현장 적응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교육, 개개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실용적 학문을 바탕으로 한 집중적인 창의력 강화 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담은 공간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은 건축물의 설계·건축·유지 등을 위한 이론과 기술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 사회의 예술, 문화, 경제를 반영하며 인류문명과 함께 발달하여 왔습니다. 건축학과는 건축 전반에 걸친 공학기술적, 예술적 측면을 교육하여 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식을 학습합니다.

건축학과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국제기준에 따라 건축적사고, 설계, 기술, 실무의 4개 영역에 충실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스튜디오 및 연구실, 소모임 운영으로 학생들의 연구 분야에 맞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학과에서는 3U(U-design)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인간, 자연, 건축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능한 건축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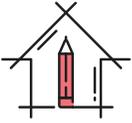


- 창의성, 끈기, 열정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감리, 인테리어 등의 회사 또는 LH 등 공기업, 건축공무원, 연구소 등
- 전기, 설비, 토목, 모형회사, CG회사, BIM 관련 회사, 비정형 외파설계회사, 건축구조회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 가구디자인, 제품디자인 등의 디자인 회사
-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

가장 오래된 첨단 학문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진화해 온 가장 오래된 학문으로 건축공학은 크게 건축구조, 환경·설비, 시공·사업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의 여러 힘에 대항하면서 건물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건축구조 분야이며, Zero-Energy 건물, 인공지능 건물, 친환경 녹색 건축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 환경·설비분야입니다. 시공·사업관리 분야는 여러 자원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물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짓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건축물을 짓고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IT 신기술들을 접목함으로써 첨단학문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건축공학에 필요한 수학, 기초과학 및 공학지식과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건축공학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의 시스템, 부재/부품, 공정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대형 건설사(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E&C, 롯데건설 등)
- 공기업(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SH공사, LH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 건축자재 및 설비기업(KCC, LG전자 등)
-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대우조선해양,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건설교통부, 서울시, 아산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

소비재 종합 제작용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는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고분자, 전자, 소재, 생물, 에너지, 환경 등 화학 공학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내실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은 종합학문으로 그 응용 분야의 폭이 매우 넓어 여전히 미개척지로 남아있거나,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석유화학, 반도체, 대체에너지, 바이오공정, 신약개발, 유기 신소재, 정밀 화학, 공정자동화, 청정 기술 등 첨단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류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보면, 과학과 인류문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화학공학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요구되는 바, 화학공학의 미래는 앞으로도 매우 밝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화학공학적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력
- 화학플랜트, 반도체, 고분자, 생물공정 엔지니어 또는 연구원
- 신소재(나노, 에너지, 바이오소재 등) 및 디바이스, 의류기기, 질병진단, 신약개발 연구원
-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공기업, 공무원, 변호사 등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전반에 관한 환경기초과학 및 환경정화기술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 Capstone Design 등 사회에서 요구되는 환경 전문가에 필요한 교과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초지식과 응용 분야의 지식, 환경시설물의 설계, 시공,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학적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8년에는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현재 외국인 교수를 포함한 7명의 다양한 전공 교수진을 구성하여 높은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친밀하게 학생들의 학사 및 진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사회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학적인 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
- 대기업
-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 공무원/군무원(보건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육해공군본부 등)
- 환경전문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제기구



자연과학대학



- 수학과
- 전자바이오물리학과
- 화학과
- 스포츠융합과학과

광운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신지식을 갖춘 자주자립인의 양성', '실용성, 창의성, 현장성을 중시 하는 교육'이라는 사명으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문적 지식과 지식의 응용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인적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념적 렌즈 수학과



사회적으로 '빅데이터'라는 말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자료를 추출하려면 온갖 종류의 '개념적인 렌즈'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수학적 개념들'로서 빅데이터 처리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도 빅데이터 처리 기법을 활용한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들은 잇달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학과에서는 수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인재뿐만 아니라 고급 수학의 개념으로 무장되고 이들 개념을 프로그래밍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
-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분석적 사고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수학연구 분야, 금융 관련 분야, 수학교육 분야, 정보보안 관련 분야,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처리 관련 분야

융합과학의 선두주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전자바이오물리학과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플라즈마 과학기술, 전자, 반도체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융합하는 융합과학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연구사업인 우수연구센터 및 해외공동연구소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인 BK21 사업을 17년간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 최근 대학중점연구소인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를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첨단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농업 및 환경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인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을 2023년 유치하여, 차세대 반도체를 위한 RF 플라즈마 기반 반도체 공정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대학원생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물리학 기초 교육과 다양한 융합/응용 분야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석사·박사 인력 배출 뿐만 아니라, 학부 졸업생이 다양한 경험, 실습, 훈련을 거쳐 첨단유망 분야로의 졸업 후 진로를 정할 수 있는 학습/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 자연현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
- 실험장치의 사용 및 제작에 대한 흥미
- 논리·비판적 사고 능력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융합/응용 능력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관련 소재, 전자소자, 공정 분야
- 플라즈마 장치 제작, 진단 및 환경, 농업 및 의학 분야 응용, 바이오헬스 장치 제작 및 진단
-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기업, 산업체(연구, 생산 및 시험 분야), 변리사 등

화학산업, 소재 및 의약 개발의 기초 화학과



신소재, 의약품, 차세대 진단 시스템과 같은 미래기술을 위한 핵심 기초과학인 화학을 배우는 화학과에서는 이론 교육과 실험 연구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화학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 연구 인턴제를 통해 학과 3, 4학년이 최신 화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학과 연합 MT, 신입생 환영회 및 학생들과의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교수님과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과에서는 유기반응, 화학센서, 고분자, 나노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 명확한 문제 인식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분석적 자세
- 빠르게 발전하는 이공계 분야에 필요한 혁신적, 창의적 사고력
- 타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융통성, 협동정신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화학, 반도체, 전자, 의약, 소재, 진단, 시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직
-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기관, 변리사 등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소 스포츠융합과학과



스포츠융합과학과는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분야인 스포츠와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합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과 의미를 통하여 스포츠의 새로운 학문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적 기초를 통하여 정부 주도 산학프로그램과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과입니다.

광운대학교가 전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아이스하키팀과 축구팀 등 다양한 스포츠를 통하여 스포츠의 이론적 가치를 배우고 급변하는 스포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체계를 이해하고 각각의 학문영역을 미래사회에서 유의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 관련 학문 영역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체계로 발전시키는 능력
- 국가 및 지방자치 체육 관련 공기업(체육진흥공단 등), 경기단체 및 협회 사무 행정 분야, 공공 문화, 체육시설 관리자
- 방송, 신문, 스포츠잡지 기자, 스포츠 관련 연구소, 체육 정책, 기술과 관련된 전문 분야
- 병원, 운동처방센터, 재활센터, 노인체육, 장애인 복지시설
- 프로/실업팀, 체육시설 체력관리, 게임 및 레포츠시설 종목별 강사, 수련원 및 캠프시설, 레크리 에이션 및 청소년 지도사 등



인문사회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 영어산업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산업심리학과
-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 및 사회를 창조하는 인재, 그리고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의 터전 국어국문학과



One Source Multi Use 개념에 기반한 원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 애니메이션, 게임, 웹 소설, 각종 박물관 및 기념관의 전시 시나리오 등 국어국문학과와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산학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는 최근 문화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각종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스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주도할 작가, 평론가, 연구자를 양성하여 한국문화 전반을 이끄는 전위적 인재를 배출합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마음
- 융합적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창조적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세
- 사·소설 분야의 작가(2017년부터 문학과 사회, 현대문학, 현대시, 신춘문예 등단자 4명 배출)
- 광고 분야, 웹소설, 시나리오, 방송 작가 등

미래형 영어인재 SHOBS 영어산업학과



영어산업학과의 '개인 창의성 기반 SHOBS형 인재 육성사업단'은 2016년 교육부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SHOBS형 인재란 자신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영어영문학 및 유관 콘텐츠를 다방면으로 산업화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뜻합니다. 본 사업단의 획기적인 변화에 힘입어 영어산업학과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영어영문학을 배우고 익힌 역량을 창업 또는 취업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와 현장실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와 선진적 학습전략을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영어의 어학과 문학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글로벌 영어산업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탐구하는 사고력
- 무역회사, 외국계 기업, 영어교육산업 등
- 문화계, 언론계, 출판업계 등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허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 분야 최고 학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이론과 실습, 강의실과 현장을 아우르며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주도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인터랙티브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개의 특화된 세부 전공 영역을 갖추으로써 전문적이고 심화된 학습 환경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고 열성적인 교수진과 우애로 뭉쳐진 재학생, 졸업생이 쌓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공동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조화와 협력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융합적 사고, 창의적 스토리텔링, 혁신적 마인드, 미디어 테크놀로지 지식과 활용 능력, 직업 윤리의식, 디지털리터러시, 비판적 사고력, 협업 역량, 글로벌 역량, 미래지식 창출, 서비스인재, 공존공감의식
- 방송 영상·음악 관련 엔터테인먼트 기업, 언론사, 공연 및 문화기획사 등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
- 인간을 위한 기술, 서비스, 시스템 등을 만들고 적용하는 모든 분야, UX, 디지털 캠페인, 게임, OTT, MCN, 스타트업, 1인 크리에이터 등
- 광고·홍보 기획사,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 및 퍼포먼스 마케터, 정부·단체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및 협상가 등 전략기획과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조직

마음을 탐구하는 과학 **산업심리학과**



산업-조직심리학은 심리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기업, 산업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심리에 특화된 학문입니다. 조직 내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사선발, 교육훈련, 수행평가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부여, 리더십, 코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기계 체계에서의 인간의 수행을 이해하는 인간공학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여 적절한 광고 전략을 개발하는 등의 소비자 심리학 분야와 광고 심리학 분야, 인간의 고위 인지기능(주의, 학습, 기억, 언어, 의사결정, 문제해결)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연구하는 지각심리학, 산업장면이나 디자인 분야, 인공물 설계에 응용하는 공학심리를 배웁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지적 관심과 통찰력
-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 기업의 인사/노무부서, 마케팅/홍보 관련 기업, 사회 조사분석업체, 대기업 상품개발 및 기획부서, 전문 상담사, 대학원 진학/유학

문화 리더들의 놀이터 **동북아문화산업학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집단지성의 새로운 연결 세계가 등장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때, 문화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인간살을 변화시키고 있고 미래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의 연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가치 또한 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은 세계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K-Culture)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아지역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일 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 졸업생들은 글로벌 문화현장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문화현장을 선도하고, 도전적인 콘텐츠를 기획, 창출, 유통하는 문화산업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K-Culture의 거대한 물결을 지속시키고 글로벌 문화산업 현장의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동북아문화산업학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타인과 소통, 교류하기 위한 기본 소양
- 자-타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력, 공감능력
- 상상력, 자기표현 능력
- 출판, 게임, 영화, 방송, 영상, 엔터테인먼트, 광고, 홍보, 공연, 전시, 음악, 뉴미디어 전 분야
- 여가-관광-레저 분야, 정부-지자체-글로벌 문화현장, IT 기업 등에서의 문화 기획 및 제작 분야
- 문화콘텐츠 수출입 분야, 유통 및 투자-배급, 마케팅과 디자인, 문화교류 분야



정책법학대학



- 행정학과
- 법학부
- 국제학부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행정능력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글로벌 인재, 법적 판단능력·행정능력·글로벌 역량을 모두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인재 양성 행정학과



행정학과의 교육목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더라도 많은 사회 문제는 정부의 주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정책과 행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국가행정에 대한 배경 지식과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이 학과에서의 배움을 통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 진출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
- 창의적 기획능력
-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 능동적 변화대응 능력
- 건설한 업무수행 능력
- 공익 중심의 창조적 문제해결능력과 봉사정신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일반행정, 사회복지직, 교육직, 우정직, 경찰공무원 등)
-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 기업(인사관리, 마케팅 등)
- 비영리공익법인(기업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법조인재 양성의 요람 법학부



법학부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법학교육을 바탕으로 실무형 법조인재 육성을 목표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준비반, 로스쿨 준비반, 기업체 취업반 등을 조직하여 재학생들이 수험 및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각종 공무원 시험,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변리사 시험, 로스쿨 진학 등에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양호한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논리적인 법학적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능력
- 법원 및 검찰 공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법무사, 변리사 등
- 일반기업체
- 로스쿨 진학

글로벌 인재를 위한 실크로드 국제학부



국제학부는 전공 분야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동북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국제관계학, 경제경영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을 포함한 다학제 간 융합적 전공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부는 외국어 실전능력 향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해를 위해 중국·일본·영어권 대학 교환학생, 현장학습, 학생교류세미나 등의 프로그램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진행되는 특성화된 캡스톤 수업을 통해 21세기를 선도할 동북아시아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소통하고 배려하는 리더십과 전문지식
-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언론기관, 금융기관, 창업, 대학원 진학 등



경영대학



- 경영학부
- 국제통상학부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은 21세기 국제화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폭넓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정보화 능력과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며, 국제적 경영마인드를 갖춘 실무인재를 육성합니다.

융합형 CEO를 위한 배움터 경영학부



경영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인재, 경영학과 IT지식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 경영학에 속하는 교과뿐만 아니라 ICT, ERP, 빅데이터, 창업과 관련된 교과 교육을 통해 프리미엄의 가치를 더한 경영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경영학부는 교과 운영과 다양한 비교과 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학생과 교수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과 경영환경에 대한 관심
- 습득한 경영지식을 문제해결에 적용시키는 실천력과 응용력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금융회사를 비롯한 전 분야 기업체 또는 창업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
- 대학원에 진학 후 기업체 경영연구소 연구직, 교수직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의 베이스캠프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부는 경제학, 무역학, 외국어를 정체성으로 하는 학부로, FTA의 확산과 신보호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최근의 국제무역 환경에 최적화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균형잡힌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기본지식과 무역실무를 전공지식으로 하고 제2외국어를 무기로 졸업 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영업 분야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빅데이터를 포함한 폭넓은 전공지식을 쌓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획 및 재무 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명품학부인 국제통상학부 교수진 모두는 여러분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의
-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자신감
-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영업직, 기획 및 재무분석 분야
- 회계사, 관세사
- 무역 관련 공기업(KOTRA, 무역협회) 및 금융공기업
- 공무원(통상직, 관세직, 일반행정 등)
-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금융권



참빛인재대학 (재직자 대상)



- 금융부동산법무학과
- 게임콘텐츠학과
- 스마트전기전자학과
- 스포츠상담재활학과

광운대학교 참빛인재대학은 21세기 평생교육 시대에 맞는 선 취업 후 진학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형 교육혁신과 글로벌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금융부동산 법무 실무 전문가 양성소 금융부동산법무학과



금융부동산법무학과는 법학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분야를 다루며, 금융 및 부동산 관련 거래·관리 등의 분야에서 법적 지식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에 대한 법이론 및 실무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분야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금융부동산자산관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부동산법무학과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직중이나 은퇴 후의 사회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실제 사례에 이론을 융합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응용력
- 법에 기반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관계역량을 갖춘 소통능력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각종 실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금융·부동산법무 실무 전문가
- 동덕여대와 마이크로디그리연계를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부동산법무 전문가
- 관련 분야로의 제2의 취업 혹은 창업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등 관련 분야의 대학원 석·박사 진학

게임 산업 트렌드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 게임콘텐츠학과



게임콘텐츠학과는 게임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부상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 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기에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업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게임 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킵니다. 또한, 학과에서는 협업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공모전 참가를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게임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사고와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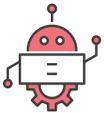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 게임 산업과 새로운 기술과 개념에 대한 관심
-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능력
- 게임선도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게임콘텐츠 전문가
- 1인 미디어 시장 확대에 따른 크리에이터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는 전자기술 인재 양성 스마트전기전자학과



스마트전기전자학과는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통신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산업 및 사회에 적용하는 학문을 가르칩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인 IoT(Internet of Things)와 5G 등의 분야를 학생들이 배울 수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센서,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통신공학 등 다양한 전공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스마트전기전자학과는 스마트전기전자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협업 능력과 다양한 지식에 대한 융합적 사고 능력
- 다양한 문화의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마인드
-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탐구 자세
- 윤리적인 가치 정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 미래 전자전기기술을 통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 전문가
- 본교 산학협력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 대학원 진학

융복합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교육의 시작 **스포츠상담재활학과**



스포츠상담재활학과는 스포츠과학의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실용적인 전문 인력양성과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응용 및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이론, 검사 및 처방, 맞춤 운동, 질환 예방 및 재활, 스포츠상담심리, 스포츠 멘탈리티까지 통합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체육인은 물론 지역 사회 구성원의 평생 건강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앞으로 스포츠상담재활학과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스포츠를 학문 기반으로 스포츠 재활과 스포츠심리상담 분야의 전문 교육을 융합하여 웰니스 시대에 스포츠 분야를 선도하는 융복합 스포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스포츠상담 재활을 연계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 필요한 역량



-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
- 실제 스포츠에서 필요한 것을 캐치하는 현장감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
- 정직하고 인격적인 인성

미래의 시작, 졸업 후 진로

- 동북 4구 체육회, 스포츠 센터의 현장실습 및 보수교육을 통한 체육 실무 전문가
- 융복합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가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아홉 번째 시리즈

진로의 길에서 나를 발견한다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김종헌

발행처 광운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기획 광운대학교

디자인/인쇄 영광정밀인쇄사 T. 053-421-4438

© 광운대학교, 2023

이 책은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와 함께 나의 가치를 올리는 광운참빛인재

미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겸비한 학생을
선발하는 광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